정책연구
2022-37

DSI

세종시 문학의 여정과 ‘문학도시’로서 가능성 모색

이재민 · 한상헌 · 윤설민 외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22-37

세종시 문학의 여정과 '문학도시'로서 가능성 모색

이재민·한상헌·윤설민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 이재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한상헌 / 시민행복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윤설민 / 미래기획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조혜진 / 세종연구실 조사원·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전문가 자문	• 강태근 / 세종시문학진흥위원회 위원장·(전)대전문학관 관장 • 김일호 / 백수문학회 회장 • 이은봉 / 대전문학관 관장·세종마루시낭독회 회장 • 장석춘 / 백수문학회 부회장·세종시인협회 회장 • 정용기 / 세종문학회 회장 • 최광식(최광) / (전)세종문학회 회장 • 박용희 의원 / (전)세종시의원·(전)백수문학회 회장 • 임비호 / 세종시YMCA 시민환경위원장 • 성배순 / 세종마루시낭독회 사무국장 • 김환복 / 백수문학회 사무국장 • 이상우 /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임동욱 / 미디에이터스 대표 • 정제호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정책연구 2022-37

세종시 문학의 여정과 '문학도시'로서 가능성 모색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2년 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 제언

1. 문화콘텐츠 시대에서의 문학의 가치

❍ 도시화와 문화소비의 형태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도시문화 담론이 형성되었음

❍ 국내에서는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류의 등장, 인문학의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이 문화콘텐츠의 등장을 촉진시켰음

-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콘텐츠라는 용어가 공식화됨

❍ 문화콘텐츠가 융합·실용 학문적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 정립이 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태지호(2014)의 “문화적 소재가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이라는 정의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문학은 언어예술이자,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문화콘텐츠 시대에서는 문화적 소재로서 뛰어난 가치가 있으며, 콘텐츠로 활용했을 때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문학을 활용하여 공간형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

- (내재적 관점) 문학 작품 텍스트 서사의 흐름을 통해 거리,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 (외재적 관점) 작가가 가지는 가치관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구현되는 경우

2.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과 흔적

■ 전근대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 : 충정에서부터 유학자로서 소명까지

○ 전근대 세종지역의 문학 흐름은 조선초기와 중·후기로 나눌 수 있음

- 성삼문·박팽년·김종서를 중심으로 조선 초기의 문학 흐름은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비판하고, 단종에 대한 충정을 노래하였으며, 김종서는 장군으로서 호탕함을 노래하였음
- 조선 중·후기 문학 흐름은 사림이라고 불리는 이유태·임성주 등 유학자들에 의해 정립되며, 이들은 유학자로서의 소명과 획일화된 학문을 대하는 안타까움 등을 노래함

■ 전근대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 : 백수문학 등 동인문학회의 활동과 개별문학인들의 활동

○ 현대 문학의 흐름은 동인지 문학과 개별문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인지 문학은 백수문학, 세종문학(연기문학), 세종시인협회, 세종마루시낭독회, 시에 등의 활동과 실천에 의해 정립됨

○ '백수문학은 1955년 창립되어,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세종문학의 본류라 할 만하며, 여기에서 연기문학(세종문학)·엽서문학 등이 분파되어 나옴

- 2022년 11월 동인지 100집의 발간을 앞두고 있어, 이는 조치원이라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동인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국문단사에도 유례없을 정도로 가치가 매우 큼

○ '세종문학(연기문학)'은 1992년 백수문학에서 분파되어 나왔으며, 윤조병·장시종·이대영·김제영 등 신진 문인들을 배출하였고, 2011년 세종문학으로 명칭을 변경함

- 세종문학은 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고, 동인지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지금까지 동인지 27집까지 발행되었음

❍ ‘세종시인협회’는 2015년 ‘세종시인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였으며, 두 차례의 명칭변경을 통해 현재 ‘세종시인협회’에 이르며, 현재까지 동인지 총 7집을 발행함

- 최근 세종시 지역 명소 10곳을 선정하여 시와 함께 영상을 제작한 콘텐츠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세종마루시낭독회’는 2017년 창립하여, 시 낭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문예지 『세종시마루』를 창간하였음

- 세종시(市)의 마루, 세종지역 시(詩)의 마루라는 의미를 가진 동인은 세종시 구도심·신도심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의 수렴을 목적으로 조직됨

❍ ‘시에’는 시에는 2008년 영동지역에서 창립되었으며, 『시에티카』 동인지를 발간하였으며, 세종시에는 2018년 12월 조치원읍에 사무실을 개소하였음

- 시대를 통찰하는 '말'의 시선으로 삶의 윤리를 찾고 사회적 관계망에 충실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성과를 비전으로 활동함

❍ 세종지역에서는 많은 개인 문학인들을 배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작고 문학인인 박노춘·구경서·장옥순·강금종·안회남·백용운·홍재헌·김제영·윤조병·장시종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였음

■ 세종지역 문학공간 현황

❍ 현재 세종지역에서 조성된 문학 유적은 시비(詩碑), 생가, 생가터 등의 형태로 전하고 있음

❍ 세종시의 시비는 총 4기가 전하고 있음

- 박경석의 시비 ‘충절의 고장에 보훈의 빛이’/조치원 충녕탑의 전정
- 박경석의 ‘자유 평화의 빛’ /전동면 개미고개
- 성기조의 ‘조치원에서’ / 세종문화원 전정
- 육철식 시비 / 부강면 노고봉

❍ 생가(집)와 생가터(작업실)

- 소설가 김제영의 집이 현재 조치원 역 앞 세종설렁탕

- 침산리 백용운 작업실 터

■ 세종지역 문학의 지향점

○ 세종지역 문학의 키워드를 '여성', '환경', '일상'으로 설정하여, 문학의 지향점을 "로컬리티 반영을 통한 보통사람들 삶의 재현"으로 설정함

3. 세종시 문학진흥을 위한 노력

○ 세종시에서는 문학진흥과 향유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조례를 통해 문학진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를 통해 문학관 조성 자문위원회가 구성됨

○ 세종시에서는 문학관 조성을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음

- 2013년 故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문학관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백수문학의 백용운 회장의 작업실 발견하여 문학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힘
- 2018년 김제영 소설가가 작고 한 뒤, 김제영 문학관을 설립하자는 문학인들의 실천이 있었음

○ 세종시문화재단에서는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동인과 개인 문학인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음

4. 문학도시로서 세종시의 가능성 모색

○ 세종시는 문학도시로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비전으로 "시민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화 '문학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세종시 지역이야기의 적실한 발굴과 활용, ②문학 거점 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 ③상향식/하향식 콘텐츠의 적용으로 설정함

❍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시민참여형 문학 형태로서 '생활문학',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 '문학 공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론인 '다양한 기법', '지역문화 정책'으로서 한글사랑도시와 연계할 수 있음

- 생활문학 전략을 통한 콘텐츠 : 공모전(백일장) 대회를 통한 시민 문학인 선정, 올해의 문학인 선정, 문학 토크 콘서트, 학술 공론장
- 문학공간 조성 전략을 통한 콘텐츠 : 문학관, 문학거리와 문학공간, 문학 아카이브, 공간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 구현
- 다양한 기법 전략을 통한 콘텐츠 : 공연예술, ICT 등 매체의 활용
- 지역문화 정책 연계를 통한 콘텐츠 : 한글사랑도시로서 문화정책을 활용

5. 문학도시 구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 (1단계) 인식 환기 단계

❍ 문학도시로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학인,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성을 제안하며, 윤조병·김제영·백수문학의 이야기를 활용한 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콘텐츠를 제안함

■ (2단계) 기반조성 단계

❍ 지역 문학 거점공간으로서 문학관의 조성이 필요하며, 디지털 아카이빙의 운영과 활용을 통해 지역문학가들의 작품의 효율적 보존·활용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문학도시 정체성 구현

❍ 행정수도 권위에 적합한 국가단위의 문학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학도시로서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대표 문학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문학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정책 건의

■ 작가 관점에서의 접근

○ 작가 대표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콘텐츠 조성에 대한 작가들의 의견 일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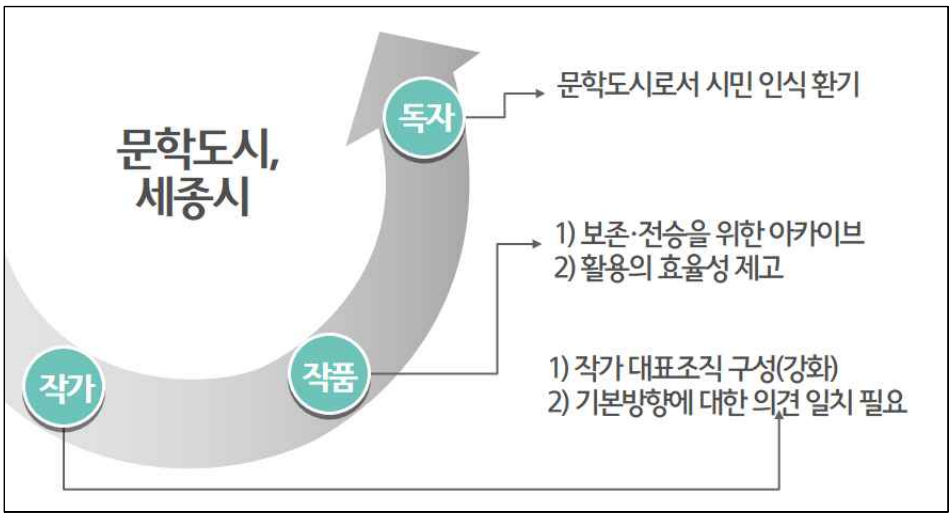
■ 작품 관점에서의 접근

○ 작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아카이브 구현 필요

○ 세종시청 내 한글책문화센터, 세종시립도서관에서의 '지역문학작품' 코너 마련

■ 독자 관점에서의 접근

○ 문학도시라는 시민인식 환기가 필요



〈그림〉 정책제안 구상도

차 례

1장 서론 ····· 3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6
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7
1. 연구범위 ····· 7
2. 연구방법 ····· 7

2장 도시 속 문화콘텐츠로서 '문학' ····· 11
1절 문화콘텐츠 시대의 등장과 개념 ····· 11
1. 문화콘텐츠 시대의 등장과 흐름 ····· 11
2. 문화콘텐츠의 개념 ····· 16
2절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문학도시' ····· 19
1. 문학의 개념과 유형 ····· 19
2.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소재로서 '문학'과 '문학공간' ····· 25

3장 세종지역 문학의 여정과 진흥 ····· 31
1절 전근대(前近代) 문학의 흐름과 여정 ····· 31
1. 전근대(前近代) 문학의 인물 ····· 31
2. 전근대(前近代) 문학의 내용 ····· 33
2절 현대 문학의 흐름과 여정 ····· 49
1. 문학 동인회의 활동 ····· 49
3절 세종지역 문학유적과 작품 속 지역 공간 ····· 78
1. 세종지역 문학유적 ····· 78
2.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세종지역 ····· 82

4장 문학도시로서 세종시의 가능성 모색 ····· 89
1절 세종시 문학진흥을 위한 노력 ····· 89
1. 조례제정 ····· 89
2.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위원회 구성 ····· 93
3. 문학관 조성을 위한 노력 ····· 94
2절 비전과 기본방향 ····· 99
1. 비전과 목표 ····· 99
2. 기본방향 ····· 100
3절 추진전략과 콘텐츠 구상 ····· 102
1. 추진전략 ····· 102
2. 콘텐츠 구상 ····· 103
3. 단계별 로드맵 ····· 114

5장 결론 ····· 119
1절 연구결과의 종합 ····· 119
2절 정책 건의 ····· 124

참고문헌 ····· 127

부록 ····· 129
1절 세종시 활동 작가들 저서 발간 현황 ····· 129
2절 고문헌·향토집에서 세종지역을 노래한 시(詩) ····· 144
3절 세종시를 노래한 문학작품 중 현대 시(詩) ····· 163

표 차례

[표 3-1] 전근대 문학의 흐름 ····· 32
[표 3-2] 세종지역 문학동인 현황 ····· 50
[표 3-3] 백수문학 역대회장 ····· 53
[표 3-4] 세종문학 역대회장 ····· 61
[표 3-5] 세종시인협회 역대회장 ····· 65
[표 3-6] 세종지역의 공간을 다룬 문학작품(고문헌, 향토집) ····· 82
[표 3-7] 세종지역의 공간을 다룬 문학작품(현대시) ····· 84
[표 4-1] 세종시문화재단 지원금 현황 ····· 98
[표 4-2] 개인 선양 문학관 현황 ····· 105
[표 4-3] 개인 선양 문학관 현황 ····· 108
[표 4-4] 지역 문학관 ····· 109
[표 4-5] 생태환경, 자연을 주제로 하는 문학관 ····· 110
[표 4-6] 관광 프로그램 ····· 112

그림 차례

〈그림 1-1〉 차사본풀이의 '강림' ····· 4
〈그림 1-2〉 영화 신과함께 포스터 ····· 4
〈그림 1-3〉 웹툰 '신과함께' ····· 5
〈그림 1-4〉 연구방법 ····· 8
〈그림 2-1〉 문학의 개념과 유형 ····· 24
〈그림 3-1〉 세종지역 대표 동인지 ····· 49
〈그림 3-2〉 세종지역 문학동인의 흐름과 여정 ····· 51
〈그림 3-3〉 (좌)백수문학 1편 표지, (우)백수에 붙이는 말 ····· 52
〈그림 3-4〉 백수문학에서 발간하는 종합문예지, 백수문학 ····· 53
〈그림 3-5〉 백수문학 과거 행사 사진 ····· 54
〈그림 3-6〉 백수문학 영인본 2집의 본문 내용 ····· 55
〈그림 3-7〉 (좌)백수문학 영인본 제1판 1995년도 발행,
(우)제2판 2001년도 발행 ····· 56
〈그림 3-8〉 연기문학 창간호, 2집, 4집, 5집, 6집 ····· 57
〈그림 3-9〉 연기문학 7집, 8집, 9집, 10집 ····· 57
〈그림 3-10〉 연기문학 11집, 12집, 13집, 14집 ····· 58
〈그림 3-11〉 연기문학 15집, 16집, 17집, 18집 ····· 58
〈그림 3-12〉 (좌)연기문학 현판식(94.11.19),
(우)배기덕 선생님 동시집 출판기념 및 회갑연을 축하하며 ···· 59
〈그림 3-13〉 세종문학 17집, 18집, 19집 ····· 59
〈그림 3-14〉 세종문학 19집, 20집, 21집, 22집 ····· 60
〈그림 3-15〉 (좌)세종문학 23집, 24집, 25집, (우)26집, 27집 ····· 60
〈그림 3-16〉 세종시인협회 동인지 (좌)1집, (중)2집, (우)3집 ····· 62
〈그림 3-17〉 세종시인협회 동인지 (좌)4집, (중)5집, (우)6집 ····· 63
〈그림 3-18〉 세종시인협회가 주관한 시화 전시회 ····· 64

〈그림 3-19〉 세종시인협회가 제작한 영상 '세종, 詩에 반하다' 화면 ····· 65
〈그림 3-20〉 동인지 세종시마루(1권에서 4권까지) ····· 66
〈그림 3-21〉 동인지 세종시마루(5권부터 8권까지) ····· 67
〈그림 3-22〉 (좌)금강의 소설가들 창간호와 (우)제2집 ····· 68
〈그림 3-23〉 세종지역 작가의 장편소설 (좌)강태근, 『이제 일어나서 가자(1)』, 『이제 일어나서 가자(2)』, (중)강태근, 『숨은 꽃들의 귀환』, (우)최 광, 『DMZ, 도그하울링』 ····· 69
〈그림 3-24〉 (좌)진영대 시집, (중)김영호 시집, (우)성배순 시집 ····· 70
〈그림 3-25〉 (좌)유태희 시집, (중)김상우 시집, (우)장미숙 시집 ····· 70
〈그림 3-26〉 세종지역 문학공간 현황 ····· 78
〈그림 3-27〉 (좌)충령탑 내 보훈의 빛 탑과 (우)시 ····· 79
〈그림 3-28〉 개미고개 내 자유평화의 빛 비석 ····· 79
〈그림 3-29〉 세종문화원 전정에 있는 성기조 시인의 시비 ····· 80
〈그림 3-30〉 노고봉에 있는 육철식 시인의 비석 ····· 80
〈그림 3-31〉 이은봉 시비 ····· 81
〈그림 3-32〉 과거 김제영 소설가 집이었던 '세종설렁탕' ····· 81
〈그림 3-33〉 세종지역 문학작품을 통해 본 문학적 지향 ····· 85
〈그림 4-1〉 백용운 회장 작업실 (현재는 철거되었음) ····· 96
〈그림 4-2〉 백용운 작업실 알림판 ····· 97
〈그림 4-3〉 세종설렁탕 내부 화장실 주변 창고 ····· 98
〈그림 4-4〉 비전·목표 ····· 99
〈그림 4-5〉 추진전략 ····· 102
〈그림 4-6〉 단계별 로드맵 ····· 114
〈그림 5-1〉 정책제안 구상도 ····· 124

DSI

서 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장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문화콘텐츠 시대에서의 '문학'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2년)의 설립 이후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학계와 정책계·언론계 등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콘텐츠는 나름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념 정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한 태지호(2014)의 논의가 주목할 만함

❍ 태지호(2014)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소재가 있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가공해야 하며, 매체라는 '그릇'에 담긴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임

- '문화적 소재'는 우리가 삶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문화원형·문화전형·문화 원천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됨
- '문화적 소재'는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소통·소비·향유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을 통해 '가공'의 과정이 필요

❍ 문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예술적인 산물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콘텐츠가 될 수 있지만,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소재이자 질료(質料)로서 매우 큰 가치와 의미가 있음

2) 문학을 문화적 소재로 활용한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 구현방법으로서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은 1995년 미국 콜로라도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스토리 자체보다는 기법과 기술을 의미함
-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말하기’로서 출발하지만, 본질은 스토리텔링이 함의하는 ‘이야기’에 있으며,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방식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의미 전달구조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최혜실, 2004)

❍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문학에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음

- 제주도 차사본풀이 설화를 활용한 《신과함께(웹툰·영화·뮤지컬)》, 춘향전의 이야기를 활용한 《춘향전》과 《방자전》, 수궁가를 재해석한 노래인 《범 내려온다》 등으로, 문학을 문화적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

〈그림 1-1〉 차사본풀이의 ‘강림’

〈그림 1-2〉 영화 신과함께 포스터

〈그림 1-3〉 웹툰 '신과함께'

3) 문학도시로서 세종시의 역사와 현황

❍ 현재의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하였지만, 과거 연기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조치원읍의 백수문학을 중심으로 연기문학(현, 세종문학)·엽서문학·세종문인협회(세종문단)·세종시인협회(동인시집)·세종마루시낭독회(세종시마루) 등 문학동인(同人)이 구성되어 있음

- 특히 백수문학은 1955년 조치원에서 창립한 문학 동인회로 1956년부터 문예지 『백수문학』을 발행하고 있는 세종 문학의 본류이자 역사라 할 수 있으며, 2022년 가을에는 문예집 100집 발행을 앞두고 있음
- 지방 문학동인들의 동인지가 대부분 폐간되어 사라졌지만, 백수문학은 조치원이라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연간 정기간행물로 발전한 이후, 현재까지 계간지로 발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 문단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임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지역의 문학진흥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조례'가 제정(2020.10.20.)하여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시산하 문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를 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세종시(과거 연기군 시절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문학자원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세종시 문학자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백수문학·세종문학 등 문학동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학사적 정리와 함께 전승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세종시의 문학자원을 활용한 (사이버)문학관·문학제·문학여행 코스 등 문화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안하고자 함

2) 기대효과

❍ 세종시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정리를 통해 지역 문학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콘텐츠 기획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종시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학제 개최, 문학관 조성 등에 관해 정책적인 기초자료를 기대할 수 있음

❍ 세종시 문학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구현 가능하며, 이 같은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자긍심·소속감·애향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래 행정수도를 넘어 문화수도로서의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 문학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1]로 정의됨

❍ 문학의 범주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비문학이 있으며, 기록물로 전하는 기록문학의 형태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기록문학으로 한정하고 진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1) 연구방법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 도구로서 문헌고찰, 문학인·전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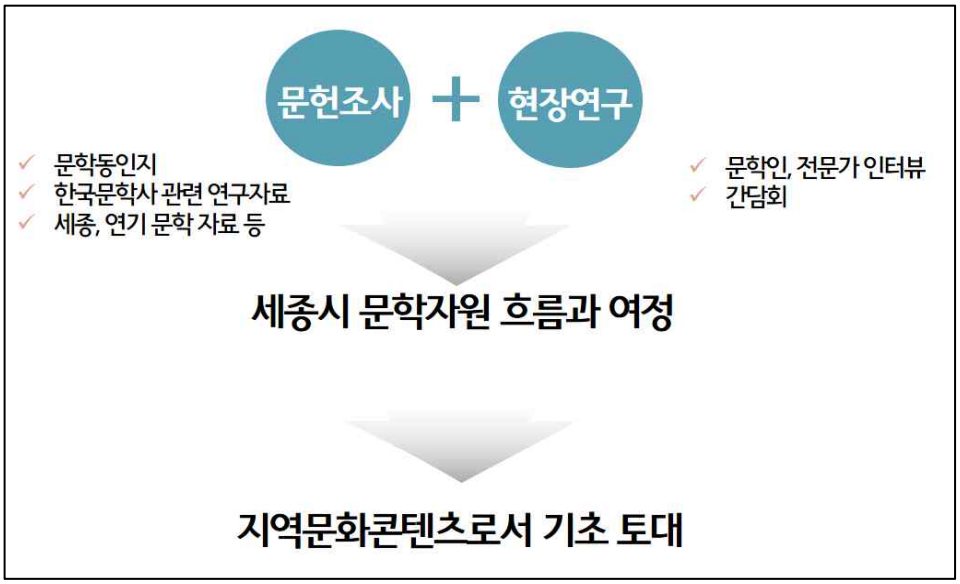
❍ [문헌연구]

- 문학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 논문, 보고서 등
- 세종시 문학동인의 작품 고찰 등
- 문학동인지를 통한 작품 분석
- 고전 자료 원전 확인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학’ 검색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2022.09.27.)

❍ [현장연구]

- 문학인(예술인)·전문가 등 관련자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 문학인 간담회 개최



〈그림 1-4〉 연구방법

DSI

도시 속 문화콘텐츠로서 '문학'

1절 문화콘텐츠 시대의 등장과 개념
2절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문학도시'

2장

2장 도시 속 문화콘텐츠로서 '문학'

1절 문화콘텐츠 시대의 등장과 개념

1. 문화콘텐츠 시대의 등장과 흐름

1) 문화향유 양상의 변화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정

❍ 산업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문화는 주로 교양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문학, 음악, 연극, 영화, 회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의 영역에 국한되었음

- 이 시기 문화는 '예술로서의 문화'를 가리키며, 특권층과 상류층 등 소수만이 향유 하는 것을 의미함[2)]

❍ 산업혁명 이후 신분제 해방, 물질적 풍요와 함께 대중들이 여가활동의 주체로 등장함

- 산업혁명은 재화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물가는 하락하면서 대중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됨
- 유럽 사회의 소극장, 선술집과 같은 공간에서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 연극, 춤 공연이 성행하였으며, 대중문화는 이들의 활동과 실천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대중문화 형성기(19세기)

- 1897년 이후에는 무선통신이 개발됨에 따라 라디오, 영화, 소설 등이 대중매체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대중들은 이를 향유하면서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정립하기 시작하였음
- 당시 대중은 점차 통속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흥행성과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상품의 인기가 높아짐

2) 일레인 볼드윈 외(조애리 외 역), 『문화코드』, 2014

❍ ‘문화도시’의 등장(1970년대 이후)

- 1970년대 이후 사회패러다임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었고, 탈공업화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 도시는 쇠퇴하면서 리버풀, 맨체스터 등의 도시에서는 재생의 매개로서 문화·예술을 활용하였음
- 이 같은 도시에서는 도시가 함의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축제·전시·공연 등 문화예술을 활용하였으며, 여기에서 대중은 콘텐츠의 객체로서 향유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의 주체가 됨

❍ ‘창조도시’의 등장(1990년대 이후)

- 문화도시의 등장 이후, 1990년대 말 세계 국가들은 도시라는 삶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예술을 가미하여 ‘창조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 창조도시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며, 경제적 혁신성을 담보하여 창조적인 예술과 문화, 경제 산업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춘 도시를 의미함[3)]
- 창조도시는 사회가 고도의 지식이 산업이 되면서 도시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술진보를 통한 문화콘텐츠 역할 강화

- 정보화 시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디지털 시티로서 전환이 이루어짐
-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소비는 이전보다 종류는 다양해지고, 영역은 광범위해짐
- 이제는 AR, VR, 홀로그램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해짐

3) 김상욱, 「4차산업시대의 문화콘텐츠산업」, 크린비디자인, 2017 참조

2) 대한민국에서의 문화콘텐츠 발생과 전개

❍ 문화의 위상이 변화되고 국가 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문화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설립됨

- 문화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1990년 1월 3일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문화부가 신설됨
- 이후 문화부는 문화체육부(1993년 3월 6일), 문화관광부(199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2008년 2월)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지속됨

❍ 1990년대 후반 IMF 외환금융위기는 우리의 산업 패러다임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반 기간산업 육성을 통해 공업화 기반을 조성했으며,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이 확산함에 따라 국가적 고도성장을 이룸
- 198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 등 기술집약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IT 산업으로 국가 주력산업이 변화됨
-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
- 이에 실물 중심 산업경제에서 정보 중심의 지식경제로 전환되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 요구됨

❍ 20세기 후반에는 한류의 등장과 확산과 함께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문화가 국가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함

- MBC 주말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1997년 중국 CCTV에서 방영되었으며, 당시 최고 시청률 15%, 평균 시청률 4.3%를 기록하였고, 종영 이후에는 CCTV가 2차 방영권을 구매하여 1998년 재방송을 하였음

- '한류'는 한국의 드라마, 가요(K-pop) 등의 대중문화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유행하는 현상을 이르는 의미임
- 중국의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의 '동풍(東風)도 동점(東漸) 할 때가 있다'는 기사(1999년 11월 19일자)에서 한류라는 용어가 등장함
- 하지만 이 용어가 등장한 초기만 하더라도 단순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가리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지는 못했음
- 한국 드라마는 1990년대 말 이후 중국, 중동 등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 〈올인〉 등은 큰 히트를 기록하면서 K-pop과 함께 한류의 성장과 팽창에 큰 역할을 함
- 이 같은 한류 현상은 대중문화 콘텐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음식·관광·뷰티 등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영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이 같은 한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제고됨으로써, 문화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의 한 영역으로서 관심을 받게 됨

- 할리우드 영화 〈쥬라기 공원(1993)〉이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자동차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총액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됨
- 1994년 문화산업을 21세기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부 산하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영화·영상·게임·음악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음
-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으며, 고부가가치 문화상품개발과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
- 드라마와 K - POP 등 한류가 확산하면서 문화산업이 점차 한국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음

· 이에 2000년대 초반 이후 문화콘텐츠 정책은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

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콘텐츠 창작역량을 확충하는 등 한류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2000년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문화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2001년 8월 주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을 설립하고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2002년 10월 17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특수 법인으로 발전함
-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고유정책인 '콘텐츠코리아비전 21'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저작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함
- 2009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은 기존에 설립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재편됨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넥스트 콘텐츠 페어(2019년)'에서 지역콘텐츠 산업의 허브 역할을 기대하며 각 지역마다 '콘텐츠산업 지역 거점기관'을 출범시킴

- 거점기관은 지역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전반적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아, 광역지자체별 16곳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 운영 및 순환 체계를 새롭게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낸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콘텐츠 산업 거점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문화재단,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세종시테크노파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주도로 제작된 '엄마까투리'는 안동에서 태어난 동화작가 권정생의 동명의 동화작품을 모티브로 제작된 콘텐츠로, 2017년 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어 로열티만 5억을 벌어들인 대표적 지역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함

2. 문화콘텐츠의 개념

1) 콘텐츠(contents)

○ '콘텐트'(content)'의 사전적 의미는 '내용물'이나 '목차'를 가리킴

○ 1990년대 중반 유럽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콘텐트(multimedia content)'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콘텐트'는 미디어 또는 플랫폼에 담기는 내용물을 가리키기 시작함.

- 이후 한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 담기는 내용물 전반을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복수형 s를 더해 '콘텐츠(cont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 콘텐츠란 "말이나 문장 또는 여러 종류의 예술 작품과 같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 "문자, 영상, 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하고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상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리 잡음[4)]

○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 다양한 분야에 '콘텐츠(contents)'라는 용어가 급속히 확산됨

2) 문화콘텐츠

○ 문화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고 문화적 요소가 콘텐츠와 결합하는 등 문화의 중요성과 활용이 증대되면서 '문화(culture)'와 '콘텐츠(content)'의 합성어인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등장함

4)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14쪽.

❍ 1990년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이후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를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함

❍ 유네스코는 2005년 10월 파리 총회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통해 '문화는 발전의 원천으로,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문화 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자산'이라고 설명하면서 문화의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함[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며, 문화콘텐츠란 "인간의 감성·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하여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라고 정의함

❍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문화콘텐츠란 "인간의 삶에 대중적·심미적·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내포한 콘텐츠화 된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태지호(2014)는 문화콘텐츠의 '문화'를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언급한 대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이르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논의함으로써, 콘텐츠와 문화콘텐츠의 의미는 일맥상통함을 밝혔으며,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로 정의함[6)]

5)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참조
6) 태지호(2014), 『공간형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이해총서

- 이기상(2011)은 문화를 소통, 콘텐츠를 소통의 거리로 규정하여, 문화콘텐츠를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기호와 상징을 사용해 사색하며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사물(사건)과 소통하며 자기를 표현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온갖 거리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짧게 요약한다면,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어내고 꾸며낸 모든 것”을 의미함
- 문화콘텐츠를 영상게임·애니메이션·모바일·가상현실 등을 가리키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내용물(김기덕 외, 2006)’의 협의의 개념과 이것들을 포함하면서 출판·공연·전시·축제·테마파크·도시 디자인·캐릭터·식품 등 다양한 대중매체 및 문화양식까지 확대하는 광의의 개념(정창권, 2009)으로 정의한 시도도 있음[7)]

❍ 이 연구에서는 태지호가 정의한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태지호(2014)의 논의는 문화콘텐츠를 지나치게 공식화하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콘텐츠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7) 김기덕 외(2006), 「문화·콘텐츠·인문학」,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정창권(2009),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절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문학도시'

1. 문학의 개념과 유형

1) 문학의 개념과 기능

(1) 문학의 역사적 흐름

○ 문학을 가리키는 영어의 'literature'라는 말은 라틴어 'litera'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말은 '문자(letter)'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용된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오늘날 문학이라는 말의 개념과 차이가 있으며, '글로 쓴 것을 읽는다'는 뜻을 표현하였을 뿐임

○ 현재 가리키는 문학의 의미로서 개념은 18세기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문학이라는 어휘가 크게 활용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 광범위한 의미로서 '문(文)'이 있었다고 전함

- 문(文)은 협의적 개념으로서 하나하나의 글자를 의미하고, 광의적 개념으로서는 교양과 지식 전반을 의미함

○ 글을 읽고 쓰는 행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삶의 도리를 익히는 수양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정도전은 그의 문집에서[8] 글(文)이란 '삶의 도리를 담아 놓는 그릇(載道之器)'이라고 하였음

○ 이처럼 전통사회에서는 글은 취향·감성을 표현하는 예술활동이 아니라, 인간 본질적 가치의 영역이었으며, 정치적 지배 전략에 얽혀있었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음

○ 19세기 중반 이후 '문(文)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개화 계몽 시대의 국어·국문 운동을 통해 신문과 잡지라는 미디어를 양산하면서 글쓰기와 읽기가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서적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지식의 대중적인 확대도 이루어짐

8) 『도은문집서』를 가리킴

- 많은 대중이 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지면서 나와 타자를 구분을 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 글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었으며,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고 다양하고 무한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재생산하는 순환체계를 구성함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문학(literature)은 이광수의 『문학의 가치(1910)』에 의해 정립됨

- 이 글에서는 문학의 개념을 '정(情)의 분자를 포함한 문장'이라고 규정하면서 'literature'의 의미를 번역하여 포함하였으며, 이는 '정서 영역의 글쓰기'로 국한함을 의미하고 있음
- 이는 과거 문(文)이 가치와 윤리 등 인간의 본질적 영역을 포괄하였다면, 정서와 취향 등 예술적 영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글을 쓰는 작가는 글을 쓰는 선비(文士)가 아니라 '예술적 창조력과 상상력'의 소산을 꾸준히 생산하는 사람을 의미함

❍ 19세기 중반 개화 계몽시대부터는 언어와 문자가 사회적인 지위나 학식과 덕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합리적·공공적 매체로 인식되기 시작

- 직업으로서 문필업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글을 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직업개념으로 범주화 가능
- 문학은 인간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는 해방감·상상력을 지향하며, 이는 심미적 가치가 새로운 인간적인 가치로서 인식되기 시작

(2) 문학의 개념과 유형

□ 언어예술로서 문학

❍ 문학은 정서적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 문학은 정치·사회·역사·종교·문화 등 복잡한 대상들을 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서적인 느낌을 중요시하며, 이는 구체적·감각적 인상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정서표현의 예술임

- 이처럼 문학은 개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관의 세계를 반영하게 되고, 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이 중요

❍ 문학은 인간이 창조한 세계이며, 개인의 정서가 문학의 바탕이라면 상상은 문학 창조의 힘임

- 문학에서 상상의 힘은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이는 여러 가지 체험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냄

❍ 문학은 인간 사상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문학의 사상은 문학의 내면에 숨겨진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의해 구체화

- 문학은 인간 정서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심오한 사상을 담아야 함
- 문학의 사상은 논리적인 사고나 추상적인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가 문학의 내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미적인 정서로 융해되어야만 감동을 자아낼 수 있음

❍ 문학은 한 사회의 거울이며, 현실을 반영한 산물

- 문학은 인간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상태'로 그려내는 것이며,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것임
- 그러나 문학에서 표현되는 허구의 세계는 진정한 실재의 세계를 보여주며, 참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허구 속 진실이 숨 쉬고 있는 것임

□ 행위예술로서 문학

❍ 말하기의 한 예술적 형태로서 '시낭송'

- 시낭송은 말하기의 한 예술적 형태이며, 청중과 소통을 하는 행위를 가리킴
- 주로 시낭송에 활용되는 시는 교양 있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호소력이 있는 시가 활용됨
- 시를 '읽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전환시키며, 음성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을 심리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예술의 형태임

❍ 시 낭송의 문화적 기반

- 우리 시대의 '문화적 흐름'은 시 낭송의 문화적 기반으로서 기능하였으며, 특히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문화적 대중주의는 시낭송의 토대로서 실천되고 있음
- 낭송주체로서 인적자원은 시낭송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시를 이해하면서 낭송 문화에 관심이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음
- 청중도 시낭송의 문화적 기반이며, 이들은 독자와는 다르게 적극적 행위를 실천하는 주체를 이름

❍ 시 낭송의 문화적 기능

- 시는 정서의 본질이며, 심리적으로 편하게 하는 장르적 속성을 가질 수 있어, 시민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인접 예술 장르와의 융합과 연계를 통한 가치창출로서, 음악·무용 등과 결합하여 복합문화 예술 장르로서 기능할 수 있음
- 근 문단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시낭송의 실천을 통해 문학 독자를 지속적으로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생활현장의 그릇으로서 문학

❍ 문학은 생활의 현장을 담는 그릇

- 사실 문학은 서구식의 예술 장르로서 분류되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삶과 문학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생활이 문학이 되고, 철학이 되며, 정치·문화 등 현실로 승화된 것을 의미함
- 문학이야말로 생활의 현장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이는 현실주의적인 리얼리즘적 사고가 반영된 의식의 발현을 의미함

❍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생활문학의 개념과 범위

- 문학을 실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생활문학은 시대적으로 개념이 변화하였음
-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함[9)]

□ 학문으로서 문학

❍ 문학은 문학 연구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문학을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이 경우에는 연구방법과 대상 등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문예학·시학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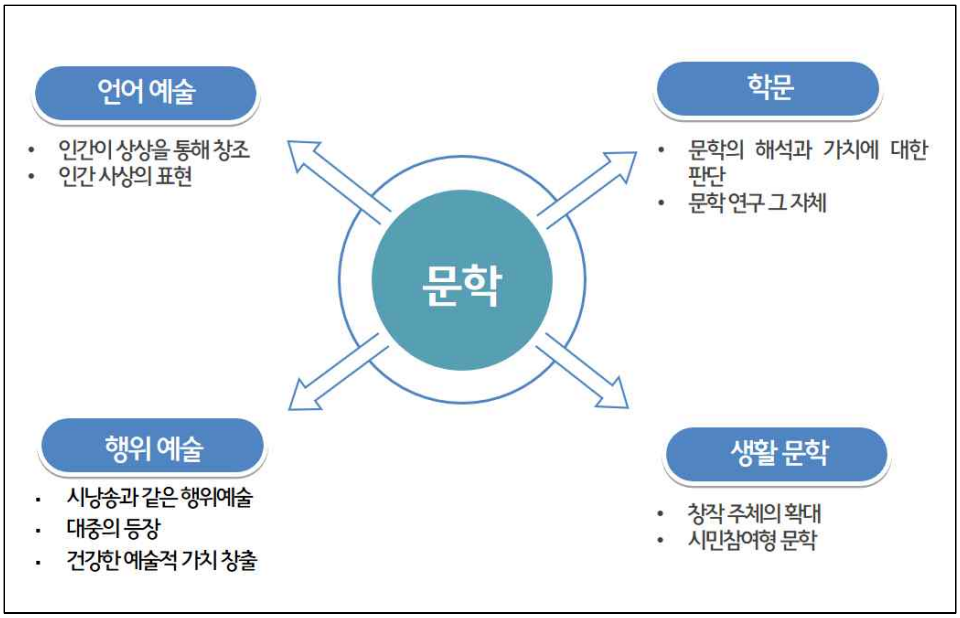
❍ 학문적 연구를 위한 문학은 여기에 내재하는 예술적 속성 등 내재적 관점과 문학을 둘러싸는 외재적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함

- 내재적 요소는 문학의 매체가 되는 언어의 의미, 비유적 표현과 상징, 언어와 리듬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해 등을 의미함
- 외재적 요소는 창조적 주체로서 작가의 삶과 철학, 독자들의 반응 등을 의미함

❍ 문학연구는 문학 자체와의 유기적 상관관계 속에서 성립되며, 미학·언어학·역사학·사회학·심리학·종교학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주변 학문의 다양한 방법론을 포함함

- 엄밀하면서도 정치한 방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의 속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 방법을 추구함

9) 김석회, 「성호 이익의 〈入儉設〉과 생활문학의 관련양상」, 『국어교육』 97, 1998, 236쪽 참조



〈그림 2-1〉 문학의 개념과 유형

2.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소재로서 '문학'과 '문학공간'

1) 문화콘텐츠 시대에서의 '문학'

○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로 정의했던 개념을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함

- 문화적 소재는 문화원형과 유사한 맥락으로 그 자체가 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가공의 방식이 적용되었을 때 콘텐츠로서 가치가 높아짐
- 매체는 가공한 문화적 소재를 담는 매개로서, 그릇의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 그릇을 통해 콘텐츠로서 식별할 수 있음

○ 문학은 문화적 소재로서 가치가 있으며, 그 자체가 콘텐츠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음

- 하지만 콘텐츠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가공의 과정이 필요하며, 가공된 문화적 소재는 출판물·CD·DVD·스크린 등의 매체에 체화됨으로써 무한한 콘텐츠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

2) '문학공간'의 조성 배경과 유형

○ 최근 지자체에서는 문화산업적인 시대의 흐름과 함께 문화 향수(享受)라는 인간 삶의 질과 관계된 인식이 달라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진보를 통한 문화산업의 시대임을 고려하면 다양한 문화가 새로운 가치로 인식되고 실제로 향유되는 현실에서 문학공간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논리일 수 있음[10)]

10) 한원균, 「문학과 공간, 그 이론적 모색」, 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문예창작』 3(2), 2004, pp.33~46.

❍ ‘문학공간’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작품 내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서사를 표현하는 공간과 작품 외 가령 문학작품 작가의 경험과 사상 등을 나타내는 장소로 분류할 수 있음[11]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텍스트 내 문학공간으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활용한 평창, 박경리의 「토지」를 활용한 ‘하동’ 등에서 이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학관과 생가 혹은 서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도보길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 작가의 경험을 형상화한 문학공간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조직화한 의미의 세계로서, 소통을 통한 문화가 생성되며, 내가 느끼지 못했던 문화의 생성적 돌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반복함[12]
- 작가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는 개인과 집단의 기억은 독자에게 특정한 민족·지역과 결속을 맺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추체험(追體驗)이 아니라, 소멸되는 기억을 실체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13]
- 이 같은 상황에서 문학공간은 기억의 보존과 유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기억 형성의 매개로서 기대되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지역에서는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3) ‘문학자원’의 활용에 관한 논의

❍ 지금까지 문학자원의 활용에 관한 논의는 인문학·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융·복합 기반의 학문적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음

- 김선주(2019)는 문학을 공간적 영역에서 접근하였으며, 한국문학의 흐름과 연계하여 로컬리즘의 시대별 변이 등을 파악하여 통시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규명하면서, 앞으로 산업의 변화과정과 문학 발전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11) 이승우 외, 「대구 상화로 ‘길’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간브랜드 기획」, (재)세종문화재연구원 내부자료
12) 간복균, 「문학공간 연구를 위한 현장 답사의 방법과 실제—문학공간 동구천을 중심으로」,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21, 2007.2, pp.251~252.
13) 이승우, 「중국 개항장 문학공간의 의미—톈진(天津)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47. 2019.6. p.422.

- 주현진(2016)은 문화콘텐츠의 시대에서 문학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문학 고유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학 낭독'의 중요성을 고찰함
- 임화순 외(2012)는 소설『지상에 숟가락 하나(현기영)』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스토리코스, 체험코스 등 관광콘텐츠로서 문화공간을 기획하여 제안함
- 강민희(2015)는 권정생의 문학공간을 조망하여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권정생의 행적을 중심으로 안동·의성·청송·봉화 등을 고찰하였으며, 권정생 동화나라의 라키비움화·스마트투어서비스 운영·인적네트워크에 기반한 웹툰 기획 등을 제안하였음
- 김인경(2018)은 소설『마당 깊은 집(김원일)』에서 다뤄진 대구의 실제 공간을 문화콘텐츠로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유물로 재창출한 모습의 대구를 구현함으로써 활용가치를 분석하였음
- 류주현(2013)은 돈키호테의 길을 사례를 통해 장소마케팅의 중복·하드웨어적인 시설 위주 개발·박제화된 박물관 중심의 개발·스토리 테마의 일관성 결여·지방자치 단체 간 지나친 경쟁 등은 지양해야 함을 언급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학콘텐츠의 방향을 제안하였음
- 이경숙·권기창(2021)은 권정생의 작품『몽실언니』를 활용하여 놀이터, 어부바 길, 운산역사와 객차를 활용한 콘텐츠, 미천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 같은 기획을 통해 지역만의 고유한 상징의 장소가 구현됨에 따라 지역브랜드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한명희(2013)는 '길'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걷기 코스·체험 및 녹색관광 등의 콘텐츠로 기획하였으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의 올레길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기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함
- 김인경·염경순(2020)은 '평택시'의 문학인인 박석수의 문학을 재조명하여 문학의 공간 활용·생가 조성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문도시로서 평택시의 가능성을 고찰하였음

- 정선희(2014)는 삼국유사와 한문소설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원천소재로서 고전서사문학의 가치를 탐색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의 창출과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기 위한 서사와 인물을 함의하고 있어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매우 적절하다고 분석함
- 김종우(2014)는 대구문학관을 대구 지역의 문학활동과 지역관광 거점, 보조 교육기관, 주민문화시설, 연구지원공간, 문학박물관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안하였음
- 변찬복(2016)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박태원)』의 문학공간을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로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소설에서 언급된 제비다방·낙랑파라·엔젤카페 등의 건축적 재현과 디오라마 전시기법을 제안하였음
- 김보성·이웅규(2014)는 해양문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새로운 해양문학 관광프로그램의 기획과 해양문학콘텐츠의 DB 구축, 소셜미디어 등의 활용을 제안하였음

❍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지역의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기획은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을 함의한 콘텐츠의 구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 브랜딩,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음

DSI

세종지역 문학의 여정과 진흥

1절 전근대(前近代) 문학의 흐름과 여정
2절 현대 문학의 흐름과 여정
3절 세종지역 문학유적과 작품 속 지역 공간

3장

3장 세종지역 문학의 여정과 진흥

1절 전근대(前近代) 문학의 흐름과 여정[14)]

1. 전근대(前近代) 문학의 인물

○ 세종지역의 전근대 문학의 흐름은 과거 고려말 연기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흔(金忻, 1251~1309)부터 흔적이 전하고 있음

- 조선 초 세종대왕의 충신이기도 했던 김종서(金宗瑞, 1383~1453),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성삼문(成三問, 1418~1456)에 의해 시조·시문 등 문학작품이 남아있음
- 사육신 이후 문학의 흐름은 조선 초기의 유학자 성제원(成悌元, 1506~1559)에 작품이 전승되고 있음

○ 조선 중기는 공주 출신의 유학자이면서 현재 어진동에 묘소와 서원에 헌액된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에 의해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후 유학자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작품이 전하고 있음

14) 과거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을 여기에서 언급한 8명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독락정에 배향된 임춘(林椿), 합호서원에 배향된 안향(安珦), 조선 중기 활동한 성제원(成悌元), 독립운동가 장재규(張在圭), 맹의섭(孟義燮), 가네코 후미코 등도 훌륭한 작품을 남겼지만, 이 연구에서는 8명의 선비 중심으로 전근대 문학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함

○ 조선 후기는 유학자 임헌회(任憲晦, 1811~1876)의 작품이 남아 있으며, 이를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음

[표 3-1] 전근대 문학의 흐름

이름	작품 수	종류	현황 및 특징
김흔((金忻), 1251~1309)	1	시문	안동 영호루 현판에 걸려있음
김종서((金宗瑞), 1383~1453)	3	시문	장군의 기개를 문학으로 표현
박팽년((朴彭年), 1417~1456)	4	시문	충성스러운 마음을 문학으로 표현
성삼문((成三問)1418~1456)	25	시문	충의, 절명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일상영역에서도 많은 시를 남김
성제원((成悌元), 1506~1559)	3	시문	유학자로서의 소명과 학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의 작품이 많음
이유태((李惟泰), 1607~1684)	1	시문	유학자로서 소명과 충의에 대한 작품
임성주((任聖周), 1711~1788)	34	시문	일상, 학문에 대한 내용
이규상((李奎象), 1727~1799)	1	구곡가	충절을 다한 선인을 추앙 선양하는 내용
임헌회((任憲晦), 1811~1876)	1	시문	일상에 대한 내용
황헌((黃櫶), 1858~1929)	10	시문	농촌, 일상에 대한 내용

○ 세종지역 전근대 인물의 시문 작품을 통해 문학의 흐름은 ①충절, ②학문, ③일상으로 정리할 수 있음

2. 전근대(前近代) 문학의 내용

1) 계유정난의 비판(충의와 절의)

❍ 세종지역과 관련한 인물로서 조선 초 수양대군의 계유정난(癸酉靖難)에 반대하고 끝까지 단종을 보호하려 했던 충신인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의 작품들이 대표적임

- 김종서는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묘가 있으며 박팽년은 전의면 관정리에서 태어남. 성삼문은 그의 사당인 문절사(文節祠)가 세종시 금남면 달전리에 소재함

❍ 박팽년, 성삼문은 사육신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수양대군을 비판했다면,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장군(문인)으로서 호탕한 기개를 표현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음

□ 김종서의 작품

❍ 호기가(1) :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 무인으로서 호방한 기상, 나라에 대한 근심, 굽힐 수 없는 절조와 기개를 잘 드러내고 있음
- 『청구영언(靑丘永言)』, 『병와가곡집(甁窩歌曲集)』 등에 전함

朔風은 나무 긋틱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춘듸	삭풍은 나무 끗헤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찬데
萬里邊城에 一長劍 집고 셔셔	만리장성에 일장검 집고 서서
긴 프롬 큰 흔 소릭에 거칠거시 업세라	긴 휘파람 큰 소리에 거칠 것이 업세라

❍ 호기가(2) : 장백산에 기를 꽂고

- 절재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할 때 지은 것으로 전해짐
- 전쟁터 군인들의 사기는 충천하지만, 선비들의 시기와 모함을 일삼아 만주 회복의 대망을 이루지 못한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

長白山에 旗를 ᄭᅩᆺ고 豆滿江에 ᄆᆞᆯ을 씻겨 셕은 져 션ᄇᆡ야 우리 아니 ᄉᆞ나희냐 엇더타 凌烟閣上[15]에 뉘 얼골을 그릴고……1 獜閣畵像(인각화상)[16]을 몬져ᄒᆞ리오……2	장백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뉘 얼골을 그릴고

□ **박팽년의 작품**

❍ 題寒雲曉月圖(제한운효월도)

- 고사리로 연명한 사람은 주나라 백이, 숙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종에 대한 충절을 노래함

紛紛衆卉覺芳辰(분분중훼각방신)	나부끼는(분분한) 풀잎도 봄을 아는데
誰向窮陰風雪親(수향궁음풍설친)	뉘라서 (한겨울) 눈바람을 좋다 하겠나
植物無知猶爾許(식물무지유이허)	아니지, 풀잎이야 몰라 그렇지
西山獨有採薇人(서산독유채미인)	(서산에 홀로) 고사리로 연명하던 그 사람 알지

❍ 정부연(政府宴)

- 계유정란 이후, 세조가 부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박팽년이 참석하여 아래의 시를 지어 이름

15) 중국 한나라 때 공신의 초상을 인각에 그려서 걸어놓은 사당
16) 한나라 무제가 기린을 잡은 기념으로 누각을 세워 기린상을 그려 넣은 데서 유래한 말로, 그 후 무제의 후예 선제가 공신 10명의 화상을 그려서 그들의 공적을 기리게 하여 인각화상이란 말이 생겨났음

廟堂深處動哀絲(묘당심처동애사)	묘당 깊은 곳에 구슬픈 풍류소리 진동을 하니
萬事如今摠不知(만사여금총불지)	만사가 지금과 같을 줄 도무지 알 수가 없도다
柳綠東風吹細細(류록동풍취세세)	버들잎이 푸르른 것은 살랑살랑 부는 동녘 바람 때문이요
花明春日正遲遲(화명춘일정지지)	꽃이 활짝 피는 것은 더디고 더딘 바로 봄날씨 때문이로다
先王大業抽金櫃(선왕대업추금궤)	선왕의 대업은 금궤에서 뽑아 낸 것이요
聖主鴻恩倒玉巵(성주홍은도옥치)	성주의 큰 은혜는 옥 술잔을 기울임 이로다
不樂胡爲長不樂(불약호위장불약)	즐겁지 않다하여 어찌하여 오래도록 즐기지 않을 손가
賡歌醉飽太平時(갱가취포태평시)	다시 노래 부르고 취하고 배부름에 태평한 시절이로다

❍ 금생여수(金生麗水)

- 세조가 사육신을 옥에 가두었을 때, 박팽년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조로서 고문으로 갖은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단종에 대한 강직한 충절을 보여줌

금생여수(金生麗水) ㅣ라 ᄒᆞᆫ들 물마다 금(金)이 남녀	깨끗한 금생여수(金生麗水)라 한들 물마다 금이나며
옥출곤강(玉出崑崗)이라 ᄒᆞᆫ들 뫼마다 옥(玉)이 날쏜야	옥은 곤륜산에서 나지만 산마다 옥이 나겠는가?
암으리 사랑(思郞)이 중(重)타 ᄒᆞᆫ들 님님마다 좃츨야	아무리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한다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겠는가?

❍ 가마귀 눈비마자

- 시대는 혼란스럽더라도 단종에 대한 충절은 강직하다는 내용

가마귀 눈비마자 희는 듯 검노매라
(본 바탕이 검은 까마귀가 흰 눈비를 맞아 잠깐 하얗게 보이지만 다시 검어지는구나)

夜光明月이야 밤인들 어두으랴
(야광구슬과 명월구슬이 밤이라고 해서 어둡게 변하겠는가)

님 向한 一片丹心이야 變할 줄이 이시랴
(임에게로 향한 한 조각 붉은 충정이야 변할 리가 있겠는가)

□ **성삼문의 작품**

❍ 顯陵松柏(현릉송백)

- '현릉'은 세종의 장남 문종의 능호를 가리키며, 성삼문의 충신적 면모를 나타내고 있음

食君之食衣人衣(식군지식의인의)	임금의 음식 먹고 임금의 옷 입으니
素志平生莫有違(소지평생막유위)	평소의 뜻을 평생에 어김없기 바라노라
一死固死忠義在(일사고사충의재)	한 번 죽어 진실로 충의가 있음을 아니
顯陵松柏夢依依(현릉송백몽의의)	현릉의 송백이 꿈속에서 어른거리네

❍ 臨死賦絶命詩[17](임사부절명시)

- 성삼문이 죽기 전 읊었다는 시로,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성삼문의 충절을 나타내고 있음

擊鼓催人命(격고최인명)	목숨을 재촉하는 북소리 둥둥 울리는데
回頭日欲斜(회두일욕사)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지려는구나
黃泉無一店(황천무일점)	저승에는 주막집 하나도 없다 하니
今夜宿誰家(금야숙수가)	오늘밤은 뉘네 집에서 묵으려나

❍ 灤河祠(난하사)

- 고사리를 먹었다는 백이, 숙제를 조롱할 만큼 강직했던 성삼문의 충절을 엿볼 수 있음

當年叩馬敢言非(당년고마감언비)	당년에 말고삐 당기며 그르다고 말을 하였으니
大義堂堂日月輝(대의당당일월휘)	대의가 당당하여 해와 달처럼 빛나더라
草木亦霑周雨露(초목역점주우로)	초목도 역시 주나라 우로에 젖은 것인데
愧君猶食首陽薇(괴군유식수양미)	부끄럽게도 그대는 오히려 수양산 고사리를 먹었구려

17) 죽음에 이르러 지은 시

□ **이규상의 작품**[18]

○ 이규상은 삼정승을 비롯해 중앙정치인들의 처신과 학문수준이 정치적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구곡의 명칭을 '태성장구곡'이라 명명함[19]

- 여기서 정승은 절재를 의미하며, 김종서가 충절의 상징적 인물이라 여김
- 따라서 그의 행적을 선양하고 감동하며, 분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1곡의 명칭을 '김승상촌', 제2곡의 명칭을 '김가허'라 명명한 것으로 보임

○ 제1곡 김승상촌(金丞相村) - 김종서집성촌

伊昔方池可泛船(이석방지하핍선)	그 옛날 네모난 못에 배를 띄웠는데,
巨人指點舊山川(거인지점구산천)	주민들은 옛 산천을 가리키네.
杜鵑惟識當時恨(두견유식당시한)	두견만이 오직 당시의 한을 아는데,
來哭年年草似烟(내곡년년초사연)	해마다 찾아와 통곡하니 풀이 연기 같네.

○ 제2곡 김가허(金家墟) - 김종서 생가터

演漾溪邊斗起峯(연양계변두기봉)	찰랑이는 물가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
眞如玉女鏡中容(진여옥녀경중용)	거울에 비친 모습 진짜 옥녀의 얼굴 같네.
更奇數曲明沙上(갱기수곡명사상)	다시 깨끗한 모래 위에 몇 구비 기이한데,
匝以松陰柳影重(잡이송음유영중)	소나무 그늘 둘러싸이고 버드나무 그림자 짙네.

2) 유학자로서의 학문정진

○ 조선초기 세종지역의 문학 흐름이 계유정난을 반대했던 세 인물의 충절이 중심이었다면, 이후 중기에는 성제원·이유태·임성주 등 당대 유학가들인 사림에 의한 흐름이 만들어짐

18)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은 인천부사를 지낸 이사질(이사질(李思質, 1705~1776)의 아들이며, 한산이씨 집안으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학계를 대표하는 문인임

19) 이상주, 李奎象의 『태성장구곡가(台星庄九曲歌)』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61권 0호, 2016. 129쪽 참조

□ 성제원의 작품

❍ 성제원은 기묘사화의 참혹한 피해 상을 보고 은거하였다가, 후에 천거되었던 인물로서, 아래의 작품은 성리학 일변도의 학문보다는 다양한 학문을 두루 수용하려는 자세를 나타냄

俗學厭口耳(속학염구이)	세속에선 口耳之學 싫도록 하여
藻績作文字(조적작문자)	꾸미고 수식하여 글을 짓는데,
刻意師往聖(각의사왕성)	그대는 옛 성현을 본받으려 애쓰니
此道取衆棄(차도취중기)	이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방법이라
磨杵期作針(마저기작침)	절구공이 갈아 침을 만들려 했고
爲山恐虧簣(위산공휴궤)	산을 만들다 한 삼태기로 이지러질까 염려했네
六經讀遺訓(육경독유훈)	가르침 담겨있는 육경을 읽어
大腹爲篋笥(대복위협사)	상자 같은 넉넉한 마음 되었네
旁通百氏說(방통백씨설)	제자백가에도 두루 통달하여
貫穿皆閎記(관천개합기)	이치를 꿰고 모두 암기하였네
譬如滄溟中(고여창명중)	비유컨대 바다 한 가운데에
細大龍蝦萃(세대용하췌)	큰 용과 작은 새우가 모여있는 듯하네

❍ 아래의 작품은 정통학문을 버려두고 한유의 문장만을 익히는 학문적 풍조를 질타하는 내용

踐履當從閭閱途(천리당종려열도)	응당 탁 트인 길을 좇아가야 할텐데
何須韓子小蹊趨(하수한자소혜추)	하필이면 한유의 좁은 길을 좇는가?
周程事業平如石(주정사업평여석)	周子·程子의 공부가 반석처럼 평평한데
胡不催鞭日夜驅(호불최편일야구)	어찌하여 밤낮을 재촉해 좇지 않는가?

❍ 아래의 작품은 유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향교지만, 인적이 끊겨 처량한 현실을 화려한 장식으로 광채를 뿜어내는 사찰을 대비시켜 당시의 학문 실태를 비판함

冠岳山前石磴傍(관악산전석조방)	관악산 앞 돌 시내 곁
黌堂秋草沒頭長(횡당추초몰두장)	향교에는 가을 풀이 무성하네
雲林處處浮屠閣(운림처처부도각)	숲 속 곳곳의 절 집에는
金碧輝煌耀日光(금벽휘황요일광)	찬란한 단청이 햇살에 눈부시네

□ 이유태의 작품

❍ 이유태는 병자년(1636)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계획했던 일과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 유학자로서의 소명을 작품 속에 녹아내었음

공은 / 惟公(유공)
조양의 봉황이고 / 朝陽彩鳳(조양채봉)
형산의 미옥으로 / 荊山美玉(형산미옥)
온화하기는 봄바람 같고 / 穆如春風(목여춘풍)
깨끗하기는 가을 달 같았지요 / 皎似秋月(교사추월)
조년에 유도자를 가까이하여 / 早親有道(조친유도)
이미 그 덕을 이루었고 / 已成其德(이성기덕)
…(중략)…
삼조 이십 년 동안 / 三朝卄年(삼조입년)
예로써 진퇴하니 / 進退以禮(진퇴이예)
예우의 특별함이 / 眷遇之異(권우지리)
전에 없이 높았고 / 逈出前代(형출전대)
지치를 바라는 민심이 / 想望之風(상망지풍)
세상을 진동시켰지요 / 聳動一世(용동일세)
대업을 이루지 못해 / 大業未究(대업미구)
나의 의리 불안하다 하여 / 吾義不安(오의불안)
도로 야인으로 돌아가서 / 還尋遂初(환심수초)
고향에서 지냈으나 / 婆娑故山(파사고산)
충성은 변치 않아 / 惟是葵誠(유시규성)
항상 조정 걱정했지요 / 向日長傾(향일장경)
…(중략)…
내가 학문에 힘을 얻은 것은 / 切磋之力(절차지력)
공의 도움을 받아서지요 / 偏蒙資益(편몽자익)
친밀한 정의 / 情義之密(정의지밀)
늙을수록 더욱 돈독하였고 / 至老愈篤(지로유독)
……(후략)

□ 임성주의 작품

❍ 조선 중후기 유학자 임성주 아래의 작품은 학문으로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현실의 안타까움을 노래함

蠶絲蜂蜜職修天	누에가 실 뽑고 벌이 꿀 모음은 천직을 행함이요
庇己屬人摠妄緣	비신(庇身)과 속타인(屬他人)은 모두가 망연이라
須識此身未滅日	알지어다 이 몸이 죽지 않는 그날까지
須識此身未滅日	집안 걱정 나라 걱정은 당연한 일임을

□ 황헌의 작품[20]

❍ 嘆世不尙吾道 탄세불상오도

- 유학자로서 당시 도가 무너짐을 표현한 시

丈夫元不用心奸	장부는 본디 마음을 간사하게 쓰지 않는 것이요
大道何憂進步艱	대도가 어찌 진보가 어려움을 근심하리오
窮谷我惟隨鹿伴	궁곡의 나 오직 사슴을 따라 짝하는데
酒中烏有陶巾漉	요직에 있는 사람들 몇이나 관직을 버리리
天下今無孔轍環	술 가운데 어찌 도연명처럼 갈건으로 거름이 있으리
耆舊遠亡時學起	천하는 지금 공자처럼 수레로 돌아다님이 없네
語多鴃舌效南蠻	옛 것을 즐김이 멀어지고 없어져 시학(詩學)이 일어나고
	말은 남만격설(南蠻鴃舌)의 말을 본받는구나

20) 황헌(黃櫶, 1858~1929)은 연동면 명학리 출신으로 황희의 후손이며, 천성이 단아하고 문장이 뛰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3) 일상의 이야기

□ 김종서의 작품

❍ 남포(南浦)

- 귀한 손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표현

送客江頭別恨多(송객강두별한다)	강가에서 손을 보내니 이별의 한 깊어라
管絃凄斷不成歌(관현처단불성가)	곡조가 처량하여 노래 다 부르지도 못 하네
天教風伯阻征旆(천교풍백조정패)	하늘이시여, 바람불어 출정하는 깃발을 막아주소서
一夕大同生晩波(일석대동생만파)	저녁 녘 대동강엔 물결이 이네

□ 성삼문의 작품

❍ 성삼문 아래의 작품은 능(陵)을 순시하러 함길도(咸吉道)로 가는 박 첨사(朴僉使)를 전송하면서 읊었던 노래

先生氣槩十分雄(선생기개십분웅)	선생의 기개가 대단히도 웅장터니
脚踏靑雲步步悤(각답청운보보총)	밟아 온 벼슬길이 걸음마다 바빴더라
厚禮每容徐孺榻(후예매용서유탑)	후한 예는 매번 서유탑[21]을 허용했고
幼年初謁梵王宮(유년초알범왕궁)	어린 시절 범왕궁[22]에서 처음 뵈었었네
天低沃野龍江碧(천저옥야용강벽)	넓은 들판에 하늘이 낮아 용강[23]이 푸르고
暾出扶桑虎節紅(돈출부상호절홍)	동해에서 해가 뜨니 호절[24]이 붉었도다
孝理於今敦國政(효리어금돈국정)	오늘날의 국정을 효도로 다스려서
巡陵此日出朝中(순능차일출조중)	능 순시 이번 행차 조정에서 출발했네

21) 후한(後漢) 때 사람인 서치(徐穉)의 자가 유자(孺子)이다. 집이 가난하여 몸소 농사지어 살면서도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 군수 진번(陳蕃)이 손님 접대를 하지 않다가도 서치가 오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여 대접하고 그가 돌아가면 자리를 다시 거두어 매달아 놓았다 하여, 현인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을 '현탑(懸榻)'이라고도 한다.

22) 부처를 모신 사찰(寺刹)을 지칭하는 말

23) 영흥 대도호부(永興大都護府)에 있는 용흥강(龍興江)을 말한다.

24) 사신이 출행할 때 소지하는 호랑이 모양의 부절(符節)

❍ 성삼문이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 황제가 그의 재주를 시험해 백로가 그려진 두루마리 하나를 보이며, 시를 지으라고 했고, 두 구절을 지었음

- 하지만 왕희지는 묵화가 그려진 나머지 두루마리를 보여줌으로써 삼문을 당황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기가 막힌 재치를 보여줌

雪作衣裳玉作趾(설작의상옥작지)	눈으로 의상을 짓고 옥으로 발을 지어
窺魚蘆渚幾多時(규어로저기다시)	갈대밭 물고길 엿보았나 얼마나 많은 세월을
偶然飛過山陰縣(우연비과산음현)	우연히 날아서 산음현을 지나다가
誤落羲之洗硯池(오락희지세연지)	실수로 왕희지의 세연지에 떨어졌구나

❍ 성삼문은 향이 없는 해당화를 보고 순수한 아름다움의 꽃을 노래함

子固不能詩(자고불능시)	자고(子固)[25]는 시를 못 지었다
不能亦何傷(불능역하상)	못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되랴
我愛柳仲郢(아애유중영)	나는 사랑하네, 유중영(柳中郢)[26]이
衣不喜薰香(의불희훈향)	옷에 훈향을 즐기지 않음을

□ 황헌의 작품

❍ 시를 일기처럼 기록하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소회를 많이 표현

- 수연시(壽宴詩), 만시(輓詩), 문방사우(文房四友), 영물시, 팔경시(八景詩), 학자의 고민을 담은 시 등 다양한 시를 창작

25) 자고(子固) : 송나라 팽연재(彭淵材)가 말하기를, "오한(五恨)이 있는데, 첫째는 시어(鰣魚)가 뼈가 많은 것, 둘째는 금귤(金橘)이 너무 신[酸] 것, 셋째는 순채(蓴菜)가 성질이 냉(冷)한 것, 넷째는 해당화(海棠花)가 향기가 없는 것, 다섯째는 증자고(曾子固)가 시(詩)에 능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26) 유중영(柳仲郢) : 당나라 사람. 그는 검소하여 평생에 의복에 향(香)을 풍기지 아니하였다. 해당화가 향기가 없으므로 이렇게 쓴 것이다.

❍ 학자의 눈에 비친 농부의 모습을 그린 ‘농부(農夫)’는 고생하는 가운데도 정이 넘치는 농촌 생활을 묘사

揮鋤不覺汗沾衣	호미질 하느라 옷 젖는 줄 모르고
暑雨初晴正午暉	더운 여름날 비 개니 정오 햇살 비추네
老妻亦解勤艱意	늙은 아내 또한 부지런히 애쓰는 뜻 알고
炊黍蒸藜饁畝歸	기장밥 지어 명아주 쪄서 들밥을 해 밭으로 가져오네

❍ ‘자영(自咏)’은 뜻을 이루지 못한 선비의 모습을 담음

晴餘野色煙成煙	날씨 개인 들, 따뜻해지니 안개 피어오르고
麥氣初生四月天	보리가 처음 나오는 사월의 하늘
山谷自鳴知伐木	산골짜기 벌목할 줄을 알고 스스로 울고
棹歌忽斷覺行船	뱃노래 홀연히 끊기니 배가 가는 것을 느끼네
人來有或三盃困	혹 사람이 오면 석 잔 술에 곤해지고
客去無聊一榻懸	객이 떠나면 무료해 손님 위한 걸상은 늘 걸려 있네
懷思最多送春後	품은 생각 가장 많은 것은 봄 보낸 뒤
難堪長日杳如年	견디기 힘든 긴 하루 아득한 한해 같네

❍ ‘수북정청남(水北亭晴嵐)’은 수북정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신의 감흥을 노래

江山霽後淨無塵	강산이 맑게 개이니 티끌 하나 없어
嵐氣蒼蒼眼界新	푸른 아지랑이 피어오르니 눈 앞 세상 새롭네
何處樓臺無此景	어느 곳 누대도 이러한 경치가 없으리
此亭此景勝形眞	이 누대 이 경치는 진정 뛰어난 모습이네

❍ ‘탄시사(歎時事)’는 나라를 빼앗기고 유학의 쇠퇴를 한탄한 작품임

花盛而衰月滿虧	꽃은 성하다 시들고달도 차면 기우나니
推看世更亦何疑	미뤄 보니 세상 변화는 것 또한 어찌 또한 의심하리
農時因用朝鮮曆	농사의 때는 조선력을 써야 하거늘
府令皆懸日本旗	부의 명령에 모두 일본기를 매달았네
將相虛名遺有臭	장수와 재상의 헛된 이름 냄새만 나고
祖宗弘業復無期	조종의 큰 대업 다시 기약하지 못하네
綱頹倫斁今天地	삼강과 오륜이 무너진 지금 세상
不見韓官舊禮儀	우리나라 관리와 옛날 예의를 보지 못하네

❍ ‘우협모춘(牛峽暮春)’은 우산[27]골짜기의 늦봄을 노래함

春光不惜惜流光	봄빛은 아깝지 않지만 흐르는 세월이 아깝네.
半世浮生懷自傷	부질없는 반평생 생각하니 서글프구나.
埋壑雲心常欲雨	골짜기 덮은 구름, 항상 비가 오려하고,
滿天風氣已舒陽	하늘 가득 바람은 이미 따스하구나.
閭閻近市多商鄉	마을 가까운 저자엔 장사꾼들이 많고,
山水如圖盡楚鄉	산수는 그림 같은데 모두 초향(楚鄉)이구나.
回首將窮千里眼	머리 돌려 천리를 바라보니,
平蕪野色入蒼茫	평평한 들 빛이 아득하게 들려온다.

❍ ‘국(菊)’은 국화의 기상과 이미지를 묘사한 영물시

着根春雨待秋陽	봄비에 뿌리를 내고 가을 햇빛을 기다려
庭畔花開數朶黃	뜰 가에 몇 송이 꽃을 피웠네
後院松筠徒晩翠	후원의 소나무 대나무 무리 늦게까지 푸르고
東園桃李易先傷	동원의 복숭아 자두 꽃 쉽게 먼저 상했네
號衡憃逸濂溪筆	예형(禰衡)처럼 불렀으나 은일하며 글 쓴 것은 주렴계이고
勝愛靑香栗里觴	맑은 향의 술을 사랑한 것은 율리(栗里) 도연명이네
憐爾宜名霜下傑	가엾은 너를 상하걸(霜下傑)이라 이름하리니

27) 우산(牛山) 혹은 황우산(黃牛山)으로 불리는데, 세종시 연기군 동면 명학리와 합강동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필자의 고향인 황우재 마을이 이 산의 아래에 위치해 있음.

○ 부강팔경(芙江八景)

- 황헌이 거주하였던 연동면과 가까운 부강면의 아름다운 지점 여덟 곳을 읊은 시
- 부강팔경은 ①금강의 돌아가는 돛단배(錦江皷帆), ②황우산의 석양 빛(牛山落照), ③용포의 연꽃(龍浦浮蓮), ④노산의 반달(老山半月), ⑤태산의 녹음(台山綠陰), ⑥낙암의 영천(樂岩靈泉), ⑦남성의 돌아오는 구름(南城歸雲), ⑧구평의 저녁 안개(鳩坪暮烟)를 이름

■ (1경) 錦江皷帆 금강의 돌아가는 돛단배

錦江秋日暎澄輝	금강(錦江)의 가을 해 맑은 빛 비추는데,
一片孤帆過水扉	한 조각 외로운 돛단배 물가 사립문을 지나간다.
長浦雨收漁唱晩	긴 물가 비 개니 느지막이 어부 노래,
短篷浪靜客喧稀	잔잔한 물결 위 작은 배엔 손님 소리 드물다.
蒼壁蕭蕭紅葉下	푸른 석벽엔 쓸쓸히 붉은 낙엽 떨어지고,
青山歷歷白雲飛	푸른 산엔 선명하게 흰 구름 떠간다.
烟波行樂仙何願	물안개 즐기니 신선을 어찌 바라리?
不向塵間說是非	속세 향해 시비를 말하지 않는다.

■ (2경) 牛山落照 우산의 낙조

孤城落照射林根	외로운 마을에 석양빛 숲 깊은 곳 비추니,
牛影倒懸放牧園	소 그림자 목장에 거꾸로 매달렸네.
雖道斜紅無限好	붉은 석양 한없이 좋다하지만,
只嫌暮紫有時昏	저녁 안개 때때로 자욱함이 원망스러울 뿐.
蜀峽咏歸工部迹	촉(蜀) 골짜기에 읊조리며 돌아간 공부(工部)의 흔적,
齊岑泣下景公魂	제(齊) 봉우리에서 눈물 흘린 경공(景公)의 혼백.
假令晩眺長如此	저녁 경치 길이 이와 같다면,
不惜青錢對酒樽	돈 아끼지 않고 술잔 대하리.

■ (3경) 龍浦浮蓮 용포의 연꽃

八鳳山南龍浦中	팔봉산(八鳳山) 남쪽 용포(龍浦)가운데,
塘蓮誰植抵今通	연못의 연꽃 누가 심었기에 지금까지 이르렀나?
富豪人去秋雲白	부호(富豪)들 떠나가니 가을 구름 흰데,
君子花留晩水紅	군자다운 꽃 남아 저녁 물가를 붉힌다.
葉傾靑盖能擎風	잎 기울인 푸른 우산을 비에도 꼿꼿이 들고,
露弄團珠半倒風	이슬 빚은 둥근 구슬은 바람에 반은 떨어졌네.
惟有採絲商婦在	오직 실을 간추리는 상인 아낙이 있어,
吳江消息問歸鴻	오강(吳江)소식 돌아오는 기러기에 묻는다.

■ (4경) 老山半月 노산의 반달

愛看山月心何傷	사랑스레 산달 보는데 마음 어찌 서글프리,
多少塵愁却自忘	수많은 세상 근심 문득 잊혀진다.
初疑吳子懸金斧	처음엔 오자(吳子)가 금도끼 걸어놨나 했고,
更訝嫦娥理玉粧	다시 항아(嫦娥)가 옥 단장 했나 했네.
万古峨嵋秋影白	만고의 아미산(峨眉山)에 가을 그림자 희고,
千年銀漢桂輪香	천년 은하수에 계수나무 향기롭네.
人間苦樂如能識	인간 세상 고락을 안다면,
莫照南隣孀婦房	남쪽 이웃 청상과부 방엔 비추지 말아주오.

■ (5경) 台山綠陰 태산의 녹음

密烩似幕万重纖	짙은 그날 만 겹의 장막 같으니,
大樹將軍氣勢嚴	대수장군(大樹將軍) 기세 준엄하네.
酷熱退如樑上子	무더위는 도둑 달아나듯 물러가고,
風情寒若水晶塩	바람은 수정같이 차갑구나.
人民避暑頻爭席	사람들은 더위 피해 자릴 다투고,
鳥雀知歸不穿簷	새들도 돌아올 곳 알아 처마에 들지 않는다.
與客試題烟景好	손님과 아름다운 풍경 시험 삼아 지어보니,
陶陶餘興聳肩尖	흐뭇하게 남은 흥에 어깨 끝이 들썩인다.

■ (6경) 樂岩靈泉 낙암의 영천

靈泉源自地中行	영천(靈泉)의 근원 땅 속으로 흐르다가,
生地岩根始有聲	이 돌부리에서 솟아 비로소 소리 들린다.
瑩如鏡水皆精氣	거울처럼 맑은 물 모두 정한 기운이요,
泄若瑤池不世情	잔잔한 요지(瑤池)는 세속의 정 벗어났네.
三瓢可解飢人渴	세 바가지면 목마른 사람 갈증 풀 수 있고,
一勺能醫病骨淸	한 잔이면 병든 몸도 고친다네.
野老亦分餘派灌	들 노인도 남은 물줄기를 나누어 대며,
叱牛朝出下坪耕	소 다그쳐 아침부터 나와 아래 밭을 가네.

■ (7경) 南城歸雲 남성의 돌아가는 구름

郁郁英英擁碧松	아름답고 성대하게 푸른 소나무에 머물렀다가,
歸時歸也不因風	돌아갈 때 돌아가며 바람도 빌리지 않네.
仙源失路遮山口	선원(仙源) 길을 잃게 하듯 산 입구 가로막고,
世事無心出岫中	세상일엔 무심한 듯 봉우리 가운데 나왔네.
淡影忽涵秋水白	맑은 그림자 홀연 하얀 가을 물에 잠기고,
疎光乍帶夕陽紅	성긴 빛, 문득 붉은 석양빛 두르네.
誰使此雲能住得	누가 이 구름 머물게 하랴?
自來自去任天公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떠남을 하늘에 맡기네.

■ (8경) 鳩坪暮烟 구평의 저녁 안개

鳩坪秋暮事多忙	구평(九坪)의 가늘 저녁엔 일 많아 바쁘고,
太半人烟炊馬唐	밥 짓는 연기 태반이네.
淡籠寒水蒹葭晩	차가운 물 맑게 휘감아 갈대 시드는데,
輕鎖殘墻薜荔香	남은 담장 가볍게 얽은 벽려(薜荔)가 향기롭다.
錯落野雲歸牧豎	들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니 목동들 돌아오고,
迷茫江樹返漁郎	강변 나무 아득해질 쯤 어부들 돌아오네.
晴光照眼還成句	갠 햇살 눈에 비치어 문득 싯구 이루고는,
分付奚奴覓錦囊	어린 종복 불러 비단 주머니 찾는다.

❍ ‘立春(입춘)’은 긴 겨울의 끝에 봄을 맞이하는 마음을 나타낸 내용임

北睦寒威不得侵	북쪽 땅 차가운 위세 침범하지 못하고
乾坤和氣始于今	건곤의 화기(和氣) 지금 시작하네
吉辰先卜回陽卦	길한 때는 먼저 ‘양이 돌아오는 괘를 점쳤고(동지를 택했고)’
暖律將聽鮮慍琴	따뜻한 음률은 장차 불평을 풀어주는 거문고 소리를 듣게 되리라
四澤消餘皆薄凍	사방 연못 모두 얇은 얼음만 남아 있고
三冬過盡是窮陰	삼동이 다하니 음이 다한 것이네
菜傳纖手盤行玉	나물은 섬섬옥수에 들려있고 쟁반엔 옥이 구르니
送舊迎新惑我心	내 마음에 송구영신을 느끼게 하네

※ 근대기에 창간한 『원명(圓明)』

■ 금강대도 종교의 발간지

- 『원명(圓明)』 창간호는 23장 분량의 잡지책이며, 글자는 활자 인쇄로 한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세로글씨로 되어 있음
- 당시 세번째로 규모가 큰 민족종교 금강도에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판매한 최초의 책
- 1926년 2월(대전 15년) 발행[28)]
- 환재(桓齋) 박규수(朴珪壽)의 성적도지서(聖蹟圖誌序), 토암 이승여 선생의 『대성경』 가운데 일부 14개의 장과 ‘금강도사찬송문(金剛道師贊頌文)’, ‘성제칙유대중격언(聖帝勅諭大衆格言)’과 ‘성제영험기(聖帝靈驗記)’ 한문체와 한글 번역, 이 외에도 축사 8편과 금강대도를 설명하는 글 등 수록되어있음
- 책의 시대적 상황과 책의 발간 연대로 볼 때 한국 근대문화사적으로 그 의미가 큼
- 금강대도 종교인들만의 교화책자가 아닌 일반대중들에게 포교 일환으로 25전의 금액을 받고 판매를 했으며 2전의 세금을 냈음

28) 인쇄자는 심우택(沈禹澤), 인쇄소는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이다.

2절 현대 문학의 흐름과 여정

1. 문학 동인회의 활동

1) 세종지역 문학동인의 발생과 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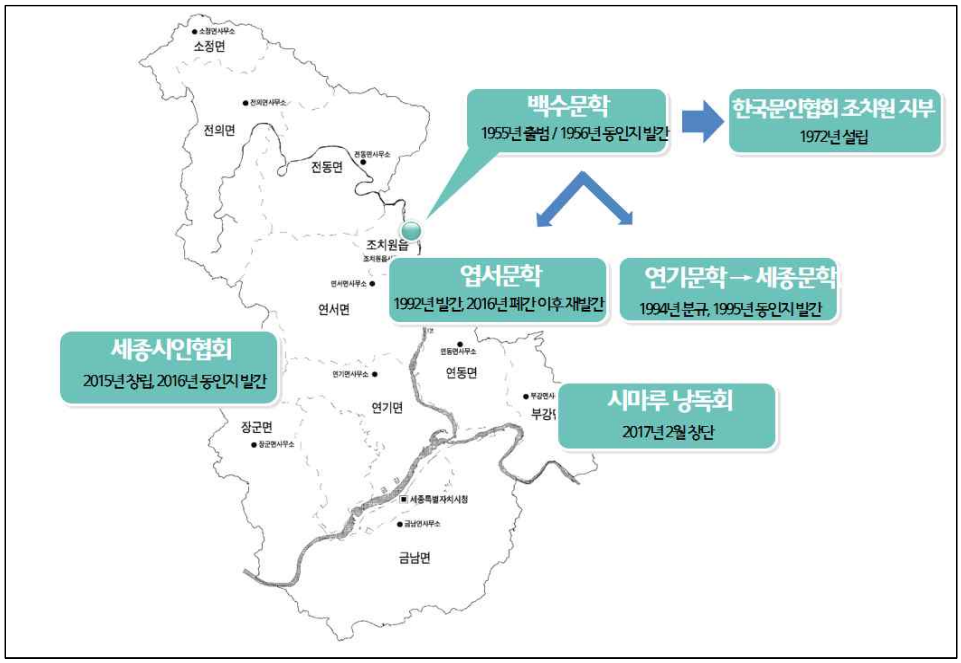
〈그림 3-1〉 세종지역 대표 동인지

○ 세종지역의 문학동인으로는 우리 지역 문학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백수문학'을 비롯하여 세종문학(구, 연기문학), 세종마루시낭독회,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 한국시인협회 세종시지회, 시에, 금강의 소설가들 등이 있음

[표 3-2] 세종지역 문학동인 현황

	창설	활동 내용
백수문학	1955년	·1956년 창간호 발간 ·1990년대 초반 분규사태 ·2022년 가을호 100집 발간 예정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 (구, 조치원지부)	1972년	·1972년 창립 ·2017년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로 변경 ·『세종문단』 창간호 2020년 11월 발간
세종문학 (구, 연기문학)	1994년	·1994년 창립 ·1995년 창간호 『연기문학』 발간 ·2011년 '세종문학'으로 명칭변경
시에	2008년	·2008년 창립 ·2009년 동인지 『시에티카』발간
엽서문학	1992년	·1992년 백수문학 회원이었던 조재구에 의해 창립 ·10페이지 분량의 동인지 『엽서문학』 발행 ·총 150집 이상의 동인지 발간 ·2016년 폐간 ·최근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동인지 재발간
세종시인협회	2015년	·2015년 '세종시인회' 창립 ·2016년 '세종시시인협회'로 명칭변경 ·2016년 11월 동인시집 창간호 『모시울 가는 길』 ·2021년 12월 '세종시인협회'로 명칭변경 ·2022년 10월 동인시집 『세종시향』 발간
세종마루시낭독회	2017년	·2017년 2월 창립 ·2017년 2월부터 매월 낭독회 개최 ·2018년 11월 『세종시마루』 창간호 발간
금강의소설가들	2019년	·2019년 창립 ·연 1회 연간지 『금강의 소설가들』발행

○ 세종지역 문학동인의 발생과 흐름에 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



〈그림 3-2〉 세종지역 문학동인의 흐름과 여정

(1) 백수문학(白樹文學)

□ 백수문학의 창립과 여정

○ 1955년 조치원 지역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문학동인 '백수문학'이 창립되었으며, 이듬해 1956년 3월 28일 문예지 『백수문학』의 창간호가 발간됨

○ 백수문학회는 세종지역의 문학 부흥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문인을 양성하며, 문학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당시에는 백수, 백지, 순수 등이 거론되었으나, '백수'로 선정되었음
- '백수(白樹)'는 '흰 백'과 '나무 수'를 합친 말로, 깨끗이 자라는 나무를 뜻하며, 이는 복숭아 재배지로서 조치원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는 의미도 있음

- 세종지역에 복숭아가 많은데 잎이 피기도 전에 꽃이 만개하여 무릉도원을 이루고 잎이 피기 전 나무의 빛이 하얀색을 띠어서 지역의 상징으로도 적합하다는 이유로 채택됨
- 창립회장은 제주출신의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인 강금종(姜金鍾) 소설가가 맡았으며, 총 8명의 문인이 조치원 역전 승리다방에서 동인회 창립을 주도하였음

(제공: 박용희 세종시 전 의원)

〈그림 3-3〉 (좌)백수문학 1편 표지, (우)백수에 붙이는 말

❍ 백수문학은 조치원역, 조치원의원, 은하수 다방, 궁전 다방, 충령탑 공원, 아홉거리 복숭아 밭 등을 창작공간으로 활동하였음

❍ 1971년 6월 백수문학예술제를 시작으로 백일장과 예술제를 개최·주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축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 1972년 7월 19일에는 백수문학 동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인협회 조치원 지부를 창립하였음

○ 1990년대 초 당시 회장을 역임하던 백용운 소설가와 사무국장을 맡았던 윤조병 극작가가 회장 임기와 운영에 관해 갈등상황에 놓여있었으며, 당시 젊은 문인들은 새롭게 나와 독자적인 '연기문학'을 1994년도에 창설하였음

- 이후 연기문학은 세종시 출범을 앞둔 2011년 세종문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제공: 박용희 세종시 전 의원)

〈그림 3-4〉 백수문학에서 발간하는 종합문예지, 백수문학

○ 백수문학 내 갈등관계 속에서 '연기문학'이 분파하였으며, 백수문학 회원이었던 조재구 문학인은 '엽서문학'을 새롭게 창설하여 최근까지도 계간지를 발간하였음

○ 백수문학은 역대 여섯 명의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2022년 9월 현재 6대 회장 김일호 문학인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음

[표 3-3] 백수문학 역대회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름	강금종	유영목	백용운	신용벽	박용희	김일호
재임 기간	1955~ 1957	1983~ 1984	1985~ 2005	2006~ 2016	2017~ 2018	2019~ 현재

〈그림 3-5〉 백수문학 과거 행사 사진

□ 동인지『백수문학』의 발간과 여정

❍ 1956년 3월 28일 동인지『백수문학』을 발간한 이후, 2022년 10월 100집의 발간을 앞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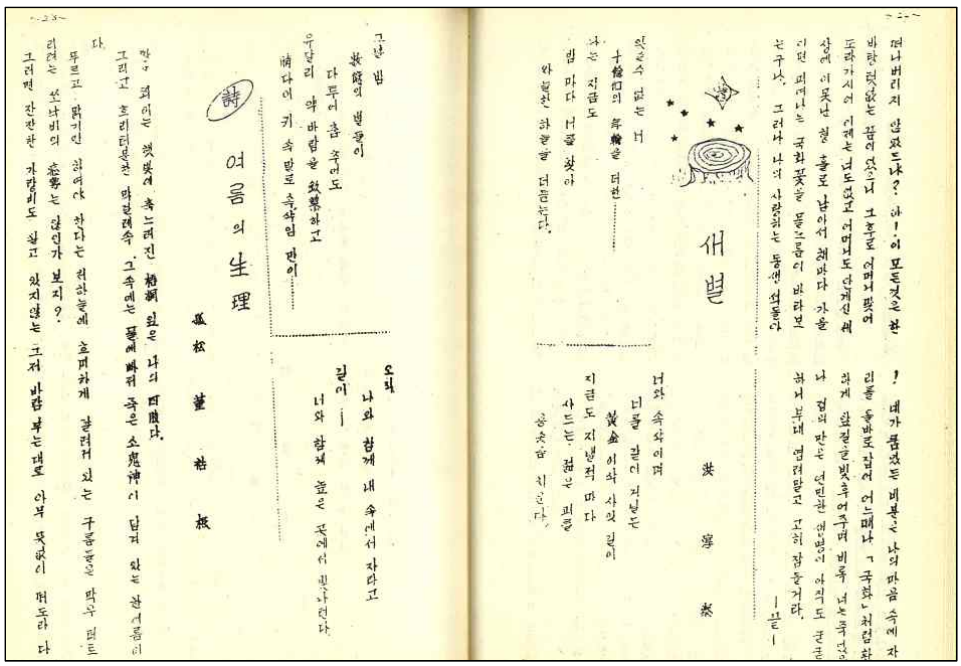
- 1956년 3월 28일 첫 동인지[창간호]를 발간하고 8월 1일 2집, 1957년 7월 1일 2집, 1958년 5월 1일 4집을 발간하였음
- 4집 발간을 기점으로 회장제를 폐지하고 주간제로 전환한 뒤 1960년 10월 1일 5집, 1962년 12월 1일 6집, 1963년 7월 1일 7집, 1964년 8월 1일 8집을 발간하였음
- 1968년 10월 3일에는 예술제, 1969년 10월에는 '학생 문예 작품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1970년 4월 25일에는 9집이 발간되었으며, 1970년 7월에는 '학생 문예 작품 현상 모집'을 통해 동인지를 발간함
- 1971년 5월 25일에는 10집을 발간하고, 1971년 6월 백수문학 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동인지 발간과 백일장 및 예술제를 개최·주관
- 1972년 12월 11집, 1975년 11월 12집, 1977년 2월 13집, 1980년 8월 14집, 1981년 11월 15집을 발간하였음
- 1982년 4월 25일 백수 도화 예술제를 개최하고, 10월에 16집을 발간하였음
- 1985년 9월 20일에는 창설 30주년 기념 특집호『백수문학』19호를 발간하였음

❍ 1988년 ‘반 연간 정기 간행물’로 등록하며 동인지 시대를 마무리하였음

❍ 1995년 7월 분규 이전 연기군문예진흥기금의 지원으로 1차 영인본(1집~24집)을 발간하였으며, 2001년 8월 분규 이후 2차 영인본(25집~35집)을 발간하였음

❍ 2004년 백수문학 여름호를 발간한 후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계간지화’를 목표에 하여 연 4회 발간하고, 2017년 4월 28일 계간지로 전환한 첫 호를 발간하였으며, 2022년 8월 현재 99집까지 발간하였음

- 1956년에서 2005년까지 연 1회 발간 (연간지)
-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연 2회 발간 (반연간지)
-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연 4회 발간 (계간지)



(제공: 박용희 세종시 전 의원)

〈그림 3-6〉 백수문학 영인본 2집의 본문 내용

□ **백수문학의 가치와 의미**

❍ ‘백수문학’은 세종 문학의 본류이자 역사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음

- 『백수문학』은 모든 장르의 작품이 모인 ‘종합 문예지’로 출발함
- 대부분 지방에서 시작된 동인지는 ‘단일 장르’의 문예지로 출발하였다가 발간비용 등 제반 문제로 인해 역사의 흐름 속에 폐간되어 사라짐
-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도 조치원이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동인지로 출발한 『백수문학』이 반 연간 정기 간행물로 발전한 후, 현재까지 계간지로 발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 문단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임

❍ 그동안 ‘백수문학’에는 김동리, 구상, 정을병, 이문구, 이호철, 황금찬 등 많은 문인이 거쳐 가거나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지역의 많은 문인이 ‘백수문학’을 통하여 등단해서 중앙문단으로 진출

❍ 『백수문학』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문예지로서 문화 교두보(橋頭堡)[중요 거점] 역할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음

(제공: 박용희 세종시 전 의원)

〈그림 3-7〉 (좌)백수문학 영인본 제1판 1995년도 발행, (우)제2판 2001년도 발행

(2) 세종문학(구, 연기문학)

□ 세종문학의 창립과 여정

○ 세종문학의 전신인 연기문학은 1994년 백수문학의 분규사태 때, 여러 문학인들이 나오게 되고, 당시 연기군의 지명에서 유래하여 '연기문학'이라는 동인을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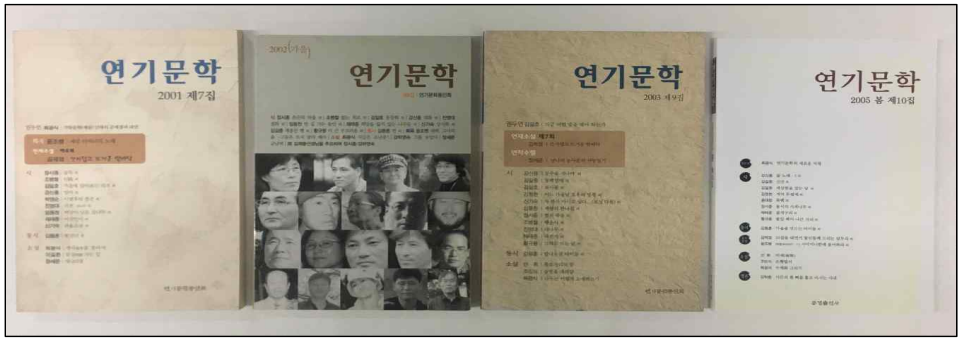
- 백수문학을 이루고 있던 동인 중 당시 진보적 성향의 젊은 동인 중심으로 갈라져 나온 단체임

(제공: 최광 작가)

〈그림 3-8〉 연기문학 창간호, 2집, 4집, 5집, 6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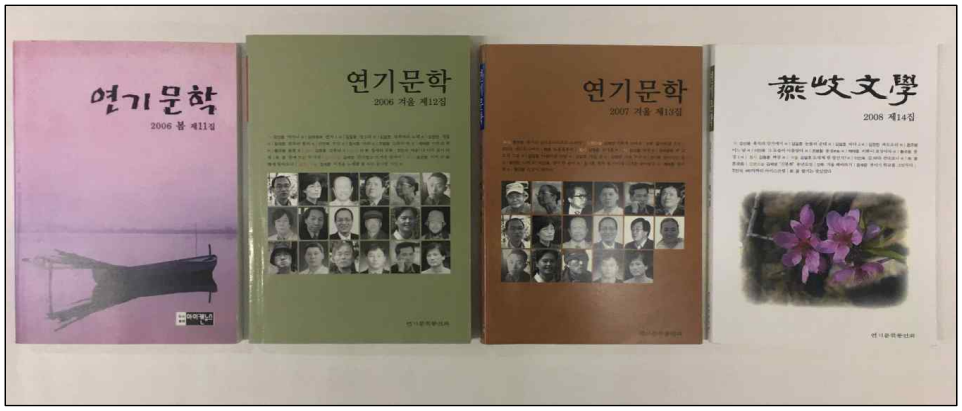
○ 백수문학에서 갈라져 나왔을 때, 『백수문학』을 중복 발행하였으나, 재판을 통한 법의 제재로 더는 동명의 제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연기문학』으로 변경하였음

- 이를 기점으로 백수문학과 별개인 제2의 문학단체로 거듭나게 됨



(제공: 최광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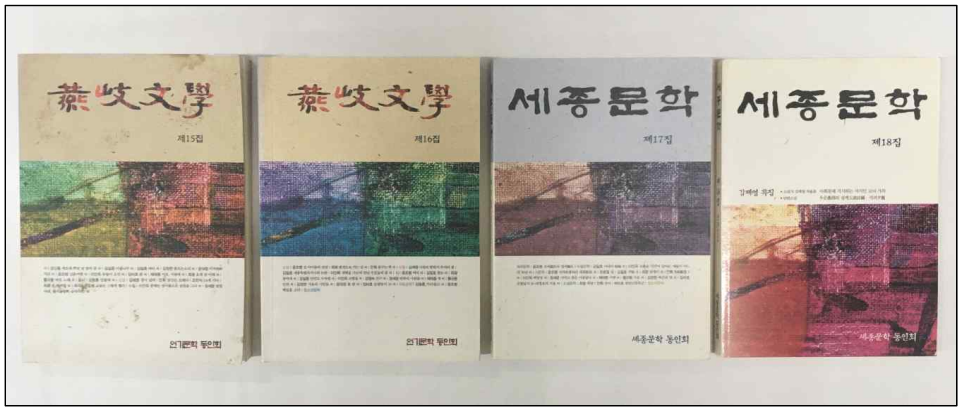
〈그림 3-9〉 연기문학 7집, 8집, 9집, 10집



(제공: 최광 작가)

〈그림 3-10〉 연기문학 11집, 12집, 13집, 14집

- ❍ 연기문학의 참여인물로는 백수문학의 창설 동인이자 초대 회장인 소설가 강금종을 필두로 김제영 소설가, 윤조병 극작가, 김동훈 아동문학가, 장시종 시인, 최광 소설가 등이 있음
- ❍ 연기문학동인회는 동인 활동을 통한 지역 정서는 물론 문학을 바탕으로 한 생명 운동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음
  -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을 넘어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인류의 본성을 바로잡는 문학단체로 발돋음하고자 하였으며, 문학 인구 확대와 후진 양성에 노력하기 위해 설립됨



(제공: 최광 작가)

〈그림 3-11〉 연기문학 15집, 16집, 17집, 18집

〈그림 3-12〉 (좌)연기문학 현판식(94.11.19), (우)배기덕 선생님 동시집 출판기념 및 회갑연을 축하하며

❍ 2011년, 세종시 도시 출범을 1년 앞두고 '세종문학'으로 명칭을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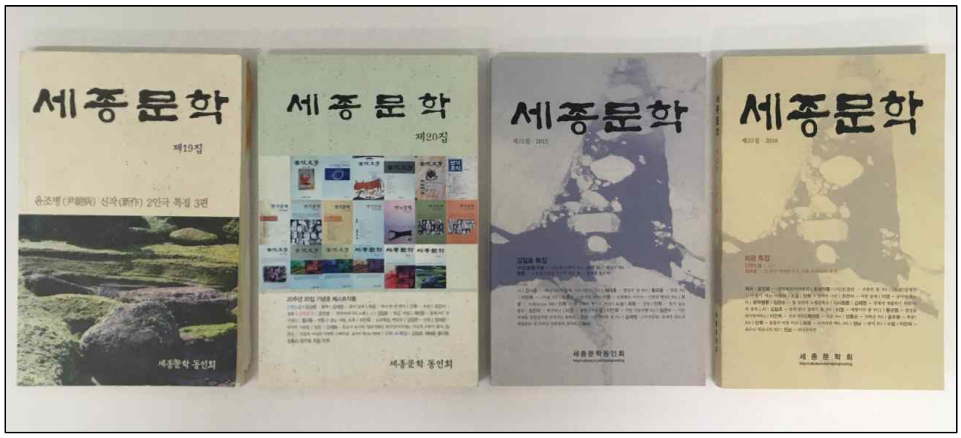
- 제호를 '세종문학'으로 바꾼 것은 기존 연기군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세종이라는 지역 명칭을 선점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임

(제공: 최광 작가)

〈그림 3-13〉 세종문학 17집, 18집, 19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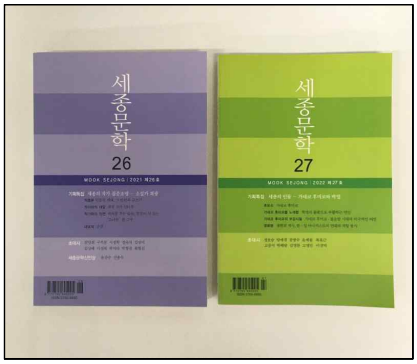
❍ 1998년『백수문학』편집장을 신입 회원으로 영입하면서 동인들 간 작품 활동이나 독서 토론, 시낭송회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던 기존의 활동 방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문단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됨

- 향토축제인 '도원문화제' 기간에 백수문학 회원과 한국문인협회 조치원지부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 백일장을 개최하였는데 백수문학 회장의 투병과 사망으로 인하여 2007년 도원문화제부터 2017년 세종시 출범 전까지는 연기문학에서 학생 백일장을 개최하게 되었음
- 2009년에 개최한 관내 청소년 문학 캠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제공: 최광 작가)

〈그림 3-14〉 세종문학 19집, 20집, 21집, 22집



(제공: 최광 작가)

〈그림 3-15〉 (좌)세종문학 23집, 24집, 25집, (우)26집, 27집

[표 3-4] 세종문학 역대회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름	장시종	최광	김일호	최광	최광	임관수	정용기
재임 기간	1994.1 ~	2000.1 ~	2006.4 ~	2012.1 ~	2015.3 ~	2017.2 ~	2020.1 ~

(3)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

□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의 창립과 여정

❍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는 2017년 12월 20일,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지회 승격 설치 및 초대지회장 인준을 취득하였음

❍ 2018년 3월 17일 회원수 50여 명으로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 창립 기념식 및 초대지회장 취임식을 개최함

❍ 한국문인협회 세종시지회는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오는 11월 중 『세종문단』이란 제호의 세종문협 기관지 창간호를 발간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1955년 창립, 1956년 창간호를 발간하고 올해로 창립 65주년이며 현재 제 93호를 발간한 백수문학과 백수문학을 기관지로 정관에 규정하고 1972년 창립한 한국문협조치원지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후 한국문협세종시지회로 승격하게 된 창립의 모태가 됨

❍ 한국문인협회조치원지부 역대 지부장으로는 소설가 백용운, 수필가 류의진, 시인 장시종이 있으며 문단발전에 크게 기여함

❍ 한국문인협회세종시지회는 현재 외지 전입 문인과 신예 문인을 영입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여 현재는 60여 명의 소속회원이 창작활동을 통한 세종시민 정신 함양과 함께 세종시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4) 세종시인협회

□ 세종시인협회의 창립과 여정

❍ 세종시인협회는 2015년 11월 10일 '세종시인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으며, 이듬해 2016년 8월 8일 '세종시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22년 4월 5일 '세종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함

(제공: 장석춘 작가)

〈그림 3-16〉 세종시인협회 동인지 (좌)1집, (중)2집, (우)3집

❍ 동인지는 창간호 2016년 11월 시집 『모시울 가는 길』의 발간을 시작으로 총 7집을 발간함(2022년 10월 기준)

- 제2집 『바람의 꽃(2017.09)』을 발간
- 제3집 『마음 닿을 수 있는 거리(2018.10)』를 발간
- 제4집 『삶의 크기 재기(2019.10)』를 발간
- 제5집 『새내는 흐른다(2020.11)』를 발간
- 제6집 『가을꽃은 슬프다(2021.10)』를 발간
- 제7집 『세종詩香(2022.10)』을 발간

〈그림 3-17〉 세종시인협회 동인지 (좌)4집, (중)5집, (우)6집

○ 세종시인협회는 문학적 기반위에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 시민들의 문학적 욕구를 수용해 정착기의 이질적 갈등요소들을 시로 승화시키는 역할[29]을 수행하고 있음

○ 세종시인협회는 동인지 발간뿐만 아니라, 시낭송회의 개최를 통해 시민과 교류하고 있었으며, 지역과 연계한 행사를 통해 지역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었음

- 2019년 10월 31일 시낭송회 개최(조치원문화정원)
- 2020년 11월 1일~11월 7일 시화전 개최(조치원문화정원)
- 2021년 11월 7일 세종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가족결연식 시낭송회 공동참여(아람달)
- 2021년 11월 17일 '문학, 왕성길에 스미다' 행사 공동참여(조치원읍 새내12길)

29) 세종의소리 2020.11.08.일자. "세종시인협회 '제5집 시집 출판'...맑은 영혼 충만의 시간 가져"

출처 : 세종의소리

〈그림 3-18〉 세종시인협회가 주관한 시화 전시회

❍ 특히 2022년 6월에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세종시 명소 10곳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큰 주목을 받았음

- 세종시인협회는 세종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세종, 詩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명소 10곳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음
- 명소 10곳과 참여 작가는 아래와 같음

▲고복자연공원(박진희) / ▲금강보행교(황우진)
▲비암사(이선행) / ▲세종수목원(김모송)
▲세종호수공원(신현자) / ▲영평사(이종숙)
▲오봉산(안우정) / ▲운주산성(김남주)
▲전의초수(장석춘) / ▲조천변 벚꽃길(한상길)

- ‘세종, 詩에 반하다’는 6월 27일 세종시인협회의 유튜브 공식 채널인 ‘세종시샘TV'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명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이미지 구현을 기대할 수 있음

출처 : 세종의소리

〈그림 3-19〉 세종시인협회가 제작한 영상 ‘세종, 詩에 반하다’ 화면

○ 현재 회원은 29명임

[표 3-5] 세종시인협회 역대회장

	1대	2대	3대	4대
이름	김일호	김일호	여규용	장석춘
재임 기간	2016~2017	2018~2019	2020~2021	2022~2023

(5) 세종마루시낭독회

□ 세종마루시낭독회의 창립과 여정

○ 세종마루시낭독회는 세종시 지역문인이 중심으로 2017년 4월 14일 창립하였으며, 이은봉 관장(대전문학관)이 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세종마루시낭독회의 문예지 『세종시마루』 창간

- 문화와 예술의 입장에서 '세종시(市)의 마루'라는 뜻과 '세종지역 시(詩)의 마루'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음
- 『세종시마루』는 문학작품외에도 지역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인물과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한 원고를 함께 다루고 있음

○ 빠른 인구수 증가와 함께 신도시로서 적응해나가고 있는 세종시의 원주민과 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적, 예술적 욕구를 수렴을 목적으로 함

○ 세종특별시 지역의 문화, 역사, 언어, 민속, 환경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담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을 창작, 보급하는 일에 주력하고자 함

○ 시문학의 대중화를 통해 시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시민 독자들의 바른 시문학 향수를 위한 노력을 펼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매월 시인들의 창작시를 문예지에 발표하기 전 회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자리인 낭독회 개최

〈그림 3-20〉 동인지 세종시마루(1권에서 4권까지)

□ **활동내용**

❍ 세종마루시낭독회는 2017년 2월 창립과 함께 1회 낭독회를 개최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였음

-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7회의 시낭독회와 동인지 『세종시마루』를 8집까지 발간하였음

〈그림 3-21〉 동인지 세종시마루(5권부터 8권까지)

(6) 시에문학회

□ **시에문학회 창립과 여정**

❍ '시에'는 '시와 에세이'의 줄임말로서, 2008년 영동에서 창단하였으며, 2018년 세종시 조치원에 사무실을 개관함으로써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 『시에타카』는 반딧불이 발하는 불빛, 그 불빛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작은 희망과 같이 겸손한 연대를 통한 문학공동체를 지향하며 지금까지 총 27집까지 발간함

- 시대를 통찰하는 '말'의 시선으로 삶의 윤리를 찾고 사회적 관계망에 충실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성과를 추구

(7) 금강의 소설가들

□ 금강의 소설가들 창립과 여정

○ 2019년 창립 이후 2020년 창간호, 2021년 제2집 발간

○ 금강유역의 독특성과 작가 개별적인 창의성을 근간으로 침체된 우리지역의 소설을 확산·발전시키고 지역의 미발굴 작가들과 적극 교류하여 한국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이바지하는 데 목적

□ 활동내용

○ 연 1회 연간지 『금강의 소설가들』 발행

○ 1인 1편 단편소설 참여

〈그림 3-22〉 (좌)금강의 소설가들 창간호와 (우)제2집

2) 세종지역 문학인의 개별 활동

〈그림 3-23〉 세종지역 작가의 장편소설
(좌)강태근, 『이제 일어나서 가자(1)』, 『이제 일어나서 가자(2)』,
(중)강태근, 『숨은 꽃들의 귀환』,
(우)최 광, 『DMZ, 도그하울링』

○ 세종시 문단에서는 지역 출신 또는 활동을 통해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문학인들을 많이 배출하였음

○ 현재에도 세종시 출신의 문학인들은 다양한 장르 영역에서 선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시 장르에서는 최승자, 유태희, 김백겸, 이은봉 등이, 소설 장르에서는 강태근, 최광 등이, 희곡 장르에서는 윤조병, 평론 분야에서는 최종철, 문학 연구자로서 사재동 등을 꼽을 수 있음

○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문학인들은 제외하고자 하며, 작고(作故) 문학인 10명을 선정하여 활동내용을 고찰하고자 함

〈그림 3-24〉 (좌)진영대 시집, (중)김영호 시집, (우)성배순 시집

〈그림 3-25〉 (좌)유태희 시집, (중)김상우 시집, (우)장미숙 시집

(1) 박노춘(朴魯春, 1912.9.4~)

○ 시인, 국문학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燕岐) 출생. 자는 자인(子仁), 호는 노강(蘆江).

- 1933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40년 도쿄(東京)에 있는 호세이 대학(法政大學) 고등과에 들어가 일본어와 한문을 공부

- 1942년 졸업, 1966년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정년퇴직

❍ 작품 활동

- 1940년 1학년 겨울방학 때 귀국해 자비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슬픔을 노래한 시집 『여정(旅程)』을 펴냈다.
- 1946년에 귀국해 성신여자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1946년 시 「핏방울」, 「학병」(1946.1), 「불여귀(不如歸)」(우리문학. 1946. 2) 등을 발표한 뒤,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고 국문학 연구에만 열중함

❍ 대표 작품

- 시: 「핏방울」(『학병』, 1946.1), 「불여귀(不如歸)」(『우리문학』, 1946.)
- 시집: 『여정(旅程)』(창문사, 1940). 평론: 「기류시조문학잡고(妓流時調文學雜稿)」(『자유문학』, 1958.12~1959.1), 「고시조 작자의 신빙성 문제」(『사상계』, 1961. 10). 저서: 『한국 연극 50년 약사』, 『자료 한국문학사』, 『주해 가사문학전집』, 『한문숙어사전』, 『고시가주해(古詩歌註解)』등이 있음

(2) 구경서(具慶書, 1921.4.15~2000.8.31)

❍ 1921년 4월 15일 전의면에서 출생한 원로문인 중 한 사람으로, 1948년 동국대학교 국문과 졸업함

❍ 작품 활동

- 1945년 10월 김윤성, 정한모, 조남사 등과 종합문예동인지인 백맥(1946. 1. 9. 창간)을 주재해 단편소설 「곡(曲)」, 평론 「프롤레타리아의 예술론」, 소품으로 「활자열정론(活字熱情論)」 등을 발표하며 문학활동을 시작함
- 동인활동을 통해 등단한 그는 소설과 비평활동에 걸쳐 있던 문필활동을 접고 6.25 전쟁 이후 시에만 전념함

❍ 대표 작품

- 첫 시집 『폭음(爆音)』(상임출판사, 1951) 이후 시집 『염전지대』(1966),

『전원교향곡』(1972), 『투계』(1978), 『코스모스 앞에서』(1981), 『하남을 꿈꾸다』(2009)를 간행하였으며, 이들 시집에서는 예술지상주의적 세계관과 언어를 담고 있음

(3) 장욱순(張旭淳, 1934.8.15~)

❍ 아동문학가. 연기군 동면(東面) 예양리(禮養里) 출생

❍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를 지냄

❍ 작품 활동

- 1957년 〈평화신문〉에 동화 「빨간 상자」가 당선되어 데뷔하여, 100여 편의 동화, 동시, 소년소설 등을 발표함
- 1963년 상경해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등을 전전하다가 〈새한신문〉 편집국장 등 역임
- 월간 〈청풍〉 편집인. 1970년 제 3회 세종아동문학상 수상
- 초기 작품은 강력한 사회윤리의 규범 속에 얽매여 있었으나, 후기에는 현실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판타지를 그리고 있음

❍ 대표 작품

- 작품으로 「들장미」(〈연합신문〉, 1958), 「미운 동그라미」(『횃불』, 1969. 1), 「달 따는 소년들」(『횃불』, 1970. 1), 「전쟁놀이」(『월간문학』, 1972. 4), 「날아간 두루미」, 「피리 부는 임금님」, 동화집으로 『들장미소녀』(태양사, 1991) 등이 있음

(4) 강금종(姜金鍾, 1917.12.27~1991.7.5)

❍ 백수문학 초대회장. 독립운동가 소설가. 제주도 제주시(濟州市) 삼양동(三陽洞) 출생. 호 문소(文巢), 소범(素凡).

❍ 니혼대학(日本大學) 법과 2년 중토. 일본 대판전문학교의 야간부에 재학 중인 1940년 4월에 김봉각(金奉珏), 김병목(金丙穆), 고봉조(高奉朝) 등과 함께 재대판 조선인학생의 단결을 도모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 동년 5월 초순, 대판부 소재 김봉각에 모인 이들은 독립운동에 관한 근본방침을 의논하고 먼저 조선인 대중을 상대로 민족의식을 계몽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실천단체로서 '흥아연구회'라는 독서조직을 결성했다.

- '흥아연구회'는 조선독립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목적한 항일결사였는데 동년 5월 중순에 그 명칭을 '계림동지회(鷄林同志會)'로 개칭하였음
- 이들은 정치, 사상, 문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전문연구를 통해 당시의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연구발표회를 통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쌓았으며, 이때 그는 사상이론연구부를 책임 맡아 활약하였음
- 그러던 중 1941년 2월 25일 동 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되어 피체되었으며, 그는 1942년 10월에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1944년 4월 2일 출옥 시까지 옥고를 치뤘음
- 출옥 후 누나가 살고 있는 사할린으로 가서 임남철과 결혼했다.
- 1945년 해방되자 사할린에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귀국했으며, 부인이 연기군 서면 출신임을 연고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음

❍ 작품 활동

- 1948년 「어린 천사」를 발표했고, 1955년 대전방송국 작품공모에서 「아내의 입장」이 당선됨
- 1956년 「난류(暖流)」를 발표했으며, 1959년 충북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아저씨의 선물」이 당선됨
- 1963년 『자유문학』에 「상흔(傷痕)」을 발표했고, 1966년 「미움의 세월」, 1969년 「흘러간 이웃들」, 1972년 「먼 여로(旅路)」 등을 내놓았는데, 주로 서민층의 생태를 추구하는 작품을 주로 발표했음
- 조치원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해 많은 작품을 썼고, 한국문인협회 충남지부 부지부장 한국소설가협회 국제 PEN 클럽 한국본부에서 활동했음

- 또한 백수문학회 초대회장, 대한노인회 연기군 부설 노인학교장 등을 지냈다. 1968년 충남문화상,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등을 수상하였음

(5) 안회남(安懷南, ?)

❍ 소설가, 평론가. 본명은 안필승(安必承), 서울 출생. 1924년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에 입학했으나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사망으로 자퇴

❍ 개화기 신소설 작가 안국선(安國善)[30]의 아들

❍ 등단 이후 『개벽(開闢)』지의 사원으로 입사 후, 잡지 편집과 단편 소설·평론 발표 활동

❍ 1944년 9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북구주 탄광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귀국

-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충청남도 연기에서 거주

❍ 1948년 월북. 1960년대에 숙청된 것으로 짐작되며, 북한에 유족이 남아있음

❍ 작품 활동

- 193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작품 「발(髮)」로 등단
- 해방이전까지 예술주의 경향을 지닌 신변소설 작가로 활동했으나 해방이후 조선문학가동맹의 소설부 위원장 겸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함
- 안회남의 전기 작품들은 주로 가정과 신변을 주로 다뤘으며 「연기(煙氣)」(1933)와 「명상(瞑想)」등의 작품을 들 수 있음
- 후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주변의 일을 다룸. 「소년과 기생」(1937), 「온실(溫室)」(1939) 등

30)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 저자

- 탄광에서 해방을 맞이한 안회남은 강제징용체험을 소재로 징용연작 발표하며 「폭풍(暴風)]의 역사」(1947), 「농민의 비애(悲哀)」(1948) 등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음

(6) 백용운(白龍雲, 1929.10.24~2007.10.28)

❍ 소설가. 평북 구성군(龜城郡) 구성면 하단동(下端洞) 출생. 만주 봉천성 신민(新民) 제2중학 졸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새농민』을 편집하였음

❍ 작품활동

- 1961년 『자유문학』에 단편 「매력」이 추천됨
- 그 후 중편 「벽에 밟힌 사람들」(1961, 1962), 「인형장례(人形葬禮)」(1962), 「지상(地上)」(1971) 등 주로 서민층 이하의 소시민이 겪고 있는 가난한 생활을 다룬 작품을 즐겨 써 왔음
- 조치원을 중심으로 모인 〈백수(白樹)문학동인회〉의 회원으로 활약하였음
- 지역개발대상(문학)(1975), 한중작가상(1987), 충남도문화상(1995), 한국농민문학상(1997) 등을 수상하였음

(7) 홍재헌(洪在憲, 1927~)

❍ 1927년 연기군 서면 쌍전리에서 출생. 대전 공업고 기계과를 졸업한 뒤 초등교원 양성소를 수료하였으며, 교직경력이 모두 46년 3개월임

❍ 작품 활동

- 1964년 1월 『새교실』 수필부문에 추천되었고, 『동양문학』 수필부문 신인상에 당선됨
- 조치원 『백수문학』의 동인(1995년)이며, 〈대전충남수필문학회〉를 창립해 회장을 역임했고, 대전, 충남 가톨릭문우회를 창립해 회장을 역임하였음

❍ 대표 작품

- 수필집으로 『교사의 시선』(1966), 『이유있는 항변』(1977), 『기뻐하며 사랑하며』(1987), 『멀고도 먼 길』(1999) 등이 있음

(8) 김제영(金濟英, 1928.7.12~2018.12.4)

❍ 제주도 출생. 1946년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졸업 후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을 맡았던 죽산 조봉암의 비서직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미술칼럼니스트임

❍ 연기군 조치원읍에 거주하면서 진보작가로 작품활동을 했음

❍ 작품 활동

- 196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석려」가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민국일보 문화부 기자, 무용한국 편집고문, 월간음악 객원 편집인, 미술21 편집고문, 미술세계 객원 편집인 등 왕성한 활동을 했고, 『아트코리아』와 『음악저널』의 고정필진으로 활약하였음

❍ 대표 작품

- 소설집으로 『거지발싸개 같은 것』(1981),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1990) 등이 있음

(9) 윤조병(尹朝炳, 1939.5.12~2017.10.11)

❍ 극작가. 연기군 조치원읍 출생.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중퇴, 한국문인협회 충남지부 희곡분과 이사를 역임하였음

❍ 윤조병은 유치진, 차범석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계승자로 평가받고 있음

❍ 대표 작품

- 그의 작품집으로는 『농토』(1987), 『모닥불 아침 이슬』(1987) 등이 있다. 1978년 현대 문학상, 1981년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 1985년 대한민국 연극제 희곡상, 1990년 전국연극제 대상을 수상하였음

(10) 장시종(張時宗, 1949.7.25~2019.5.16)

❍ 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출생.

❍ 장시종 시인은 지역에서 『백수문학』과 『연기문학』에서 지역 문학발전에 앞장서 왔고, 한국문인협회 연기지부장으로도 활동 하였음

❍ 작품 활동

- 1969년 「입춘」, 「순(筍)」, 「바람Y」 등의 작품으로 『현대시학』을 통해 구상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하였음

❍ 대표 작품

- 시집으로는 『목발의 바다』, 『갈대는 죽어서도 흔들리려 한다』, 『지구가 눈물어린 별이 되기까지』 등이 있음

(11) 육철식(1932~2021)

❍ 시인.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출생

❍ 청원공립초급중학교에서 남로당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던 김낙연을 만나 1948년에 월북함. 북한의 '강동정치학원'을 최연소로 졸업하여 6.25에 참전하였으나 체포되면서 전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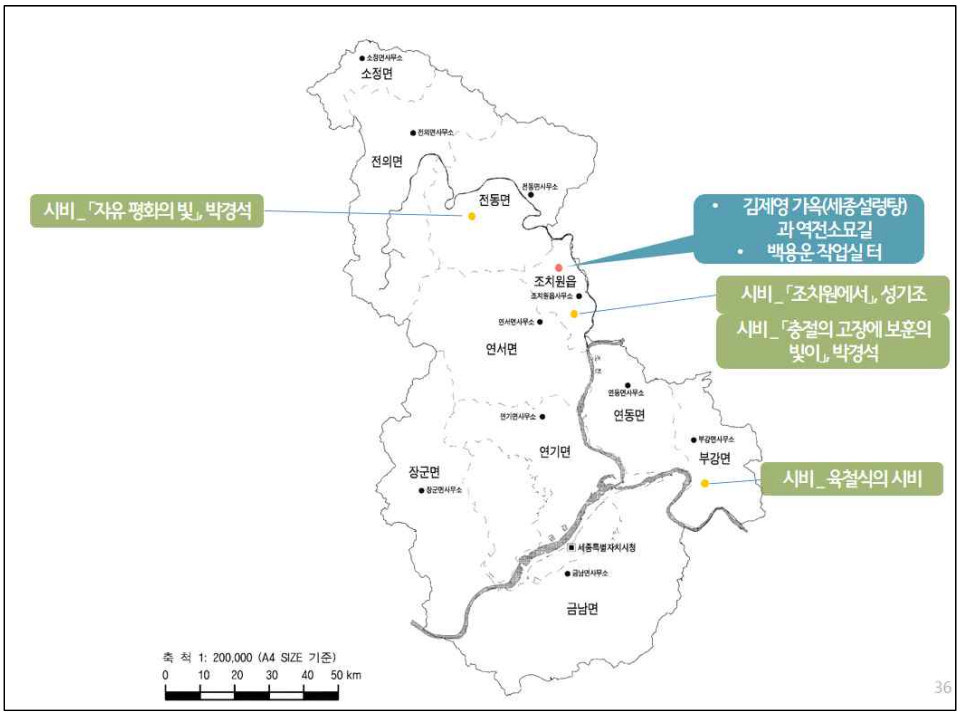
❍ 대표 작품

- 강동정치활동과 6.25 전쟁 참전하여 빨치산으로 활동한 저자의 자전적 수기를 담은 『빨치산』(1988)
- 1991년 『봄을 기다리는 낙엽』 시집, 1998년 빨치산의 증보판인 『강동정치학원』(1998)이 있음

3절 세종지역 문학유적과 작품 속 지역 공간[31)]

1. 세종지역 문학유적

○ 과거의 세종지역에서부터 현재 세종시까지 문학과 관련한 유적은 시비(詩碑), 생가, 생가터 등의 형태로 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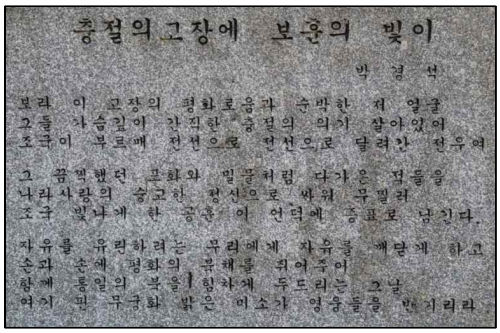
〈그림 3-26〉 세종지역 문학공간 현황

31) 과거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을 여기에서 언급한 8명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독락정에 배향된 임춘(林椿), 합호서원에 배향된 안향(安珦), 조선 중기 활동한 성제원(成悌元), 독립운동가 장재규(張在圭), 맹의섭(孟義燮), 가네코 후미코 등도 훌륭한 작품을 남겼지만, 이 연구에서는 8명의 선비 중심으로 전근대 문학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함

1) 시비(詩碑)

(1) 박경석의 '충절의 고장에 보훈의 빛이' 비석

○ 박경석의 시비 '충절의 고장에 보훈의 빛이'의 비석은 충령탑 내 '보훈의 빛'탑 하단에 새겨져 있음


충절의고장에 보훈의 빛이

박 경 석

보라 이 고장의 평화로움과 순박한 저 얼굴
그들 자손길이 간직한 충절의 의기 살아있어
조국이 부르매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려간 선우여

그 뜨겁했던 고함와 밀물처럼 다가온 적들을
나라사랑의 숭고한 얼신으로 바워 무찔러
조국 빛나게 한 공훈 이 언덕에 증표로 남긴다.

자유를 유린하려는 무리에게 자유를 깨닫게 하고
손과 손에 평화의 유채를 쥐어주어
창해 통일의 북을 힘차게 두드리는 그날
여기 핀 무궁화 밝은 미소가 영웅들을 반기리라

〈그림 3-27〉 (좌)충령탑 내 보훈의 빛 탑과 (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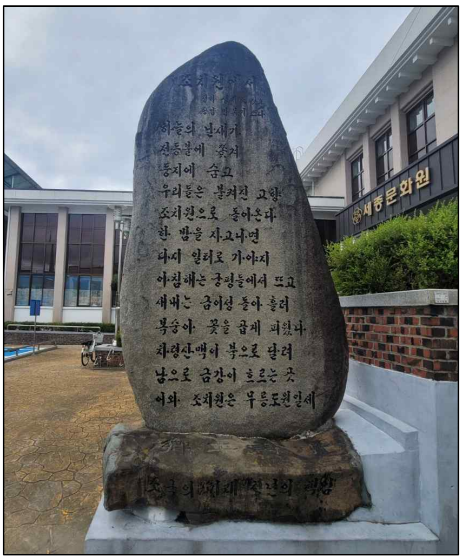
(2) 박경석의 '자유 평화의 빛' 비석

○ 박경석의 시비 '자유평화의 빛' 비석은 전동면 청람리 개미고개에 있는 위령비 내에 새겨져 있음

〈그림 3-28〉 개미고개 내 자유평화의 빛 비석

(3) 성기조의 '조치원에서' 비석

❍ 세종문화원 전정에는 성기조 시인의 '조치원에서'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음



〈그림 3-29〉 세종문화원 전정에 있는 성기조 시인의 시비

(4) 육철식 시비

❍ 세종시 부강면 노고봉에는 빨치산 출신 문학인 육철식이 직접 자비로 세운 비석이 있음

〈그림 3-30〉 노고봉에 있는 육철식 시인의 비석

(5) 이은봉 시비

○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9단지 정문에는 현재 대전문학관 관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은봉 시인의 '다독다독'시비가 세워져 있음

〈그림 3-31〉 이은봉 시비

2) 생가(집)와 생가(작업실)터

(1) 소설가 김제영의 집

○ 『역전소묘』로 유명한 소설가 김제영의 집은 현재 조치원역 주변에 있는 '세종설렁탕'이 위치하는 곳임

○ 김제영의 집은 2층 저택의 형태로 현재에도 그 외관이 그대로 전하고 있으며, 설렁탕 집 내부 화장실 주변에는 김제영의 책장을 아직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32〉 과거 김제영 소설가 집이었던 '세종설렁탕'

(2) 소설가 백용운의 작업실

○ 2017년 백용운 작가의 작업실을 백수문학 동인들이 발견하였음

- 서너평 크기의 작업실은 천장 서까래가 돌출되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1989년 4월 상량(上樑)문이 쓰여져 있었음
- 벽은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깔끔했으며 외벽은 시멘트로 칠해진 평범한 양옥집 문간방의 형태임

○ 하지만 2022년 7월경 철거되었음

2.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세종지역

1) 고문헌·향토집을 통해 본 세종지역

○ 고문헌·향토집에서는 세종지역의 조치원, 전의 지역을 비롯해 연기지역의 팔경 등 다양한 지역의 공간이 문학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음

[표 3-6] 세종지역의 공간을 다룬 문학작품(고문헌, 향토집)

지역	작품명	작가
조치원	오봉락조(五鳳落照)	송암 장규환(松庵 張奎煥)
	오봉락조(五鳳落照)	이락당 유치도(二樂堂 兪致道)
	침산추월(砧山秋月)	이선재(李璿載)
	침산추월(砧山秋月)	송은 장달식(松隱 張達植)
	침산추월(砧山秋月)	우송 장응철(友松 張應喆)
	삼월삼일에 번암에서 노닐다(三月三日 遊磻巖)	육일당 최진원
	산방에서(山房)	육일당 최진원
	제비의 둥지를 두고(薦巢)	환재 최지성
	천세 또 천세의 장수를 기원함(謹上千千歲壽)	환재 최지성
	오봉산(五峰山)	청암(淸庵) 김윤환(金潤煥)

지역	작품명	작가
원수산	원수산	윤기
	연희루(燕喜樓)	인재(寅齋) 신개(申槪)
연기 전역	당수청람(唐岫晴嵐)	간송(磵松) 장홍진(張弘鎭)
	당수청람(唐岫晴嵐)	성주노(成周老)
	당수청람(唐岫晴嵐)	우재(友齋) 장기정(張基定)
	금강귀범(錦江歸帆)	화석 김영채(華石 金永采)
	금강귀범(錦江歸帆)	용은(龍隱) 임병수(林炳琇)
	금강귀범(錦江歸帆)	난계(蘭溪) 장일환(張日煥)
	동진어화(東津漁火)	모계 장세진(張世鎭)
	동진어화(東津漁火)	당운(唐雲) 하천해(河天海)
	동진어화(東津漁火)	기운 장기항(張基恒)
	수입금강명(水入錦江明)	서거정(徐居正)
	연기팔경(燕岐八景)	회산(晦山) 유인학(柳寅鶴)
	연기팔경(燕岐八景)	탄수(灘叟) 임영철(林營喆)
	연기지방을 지나면서(燕岐途中作)	정약용(丁若鏞)
	팔경시(八景詩)	남파(南坡) 임헌태(林憲泰)
	팔경시(八景詩)	금사(錦史) 임병두(林炳斗)
	제언(提言)	이병연(李秉延)
전의	전의(全義)	서거정(徐居正)
	전의제시(全義題詩)	서거정(徐居正)
반곡리	태양십이경	진세현
독락정	독락정(獨樂亭)	서거정(徐居正)
	독락정(獨樂亭)	임중(林重)
	독락팔영(獨樂八詠)	최립(崔岦)[32]
	독락정별기(獨樂亭別記)	임재무

32) 이이의 문인으로, 1561년 문과에 장원하였으며 이후 공주목사, 공주부윤을 지낸 뒤 승문원 제조가 되었음

2) 현대 시를 통해 본 세종지역

○ 세종지역을 다룬 현대 시 작품으로는 성배순, 장석춘, 기형도, 박목월 등의 작품이 전하고 있음

○ 이들은 삶의 무대인 조치원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했으며, 이외에도 운주산, 반곡리 등을 배경으로 작품으로 남김

[표 3-7] 세종지역의 공간을 다룬 문학작품(현대시)

지역	작품명	작가
조치원	조치원 역에서	성배순
	신흥리 큰샘	성배순
	오봉산 타령	성배순
	조치원역 광장에서	장석춘
	조치원에서	성기조
	나무	박목월
	조치원	기형도
	조치원역	오철수
반곡리	반곡리 이장	김상우
운주산	그래, 운주산	장석춘
대평리	대평리에서 -유미에게	김상우

2) 세종시 문학작품의 지향점

○ 지금까지 논의된 세종시 문학의 흐름과 여정, 그리고 작품을 통해 지역문학의 지향점을 고찰하고자 함

○ '여성'과 관련한 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음

- 소설가 김제영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박용희, 성배순, 함순례 등의 여성작가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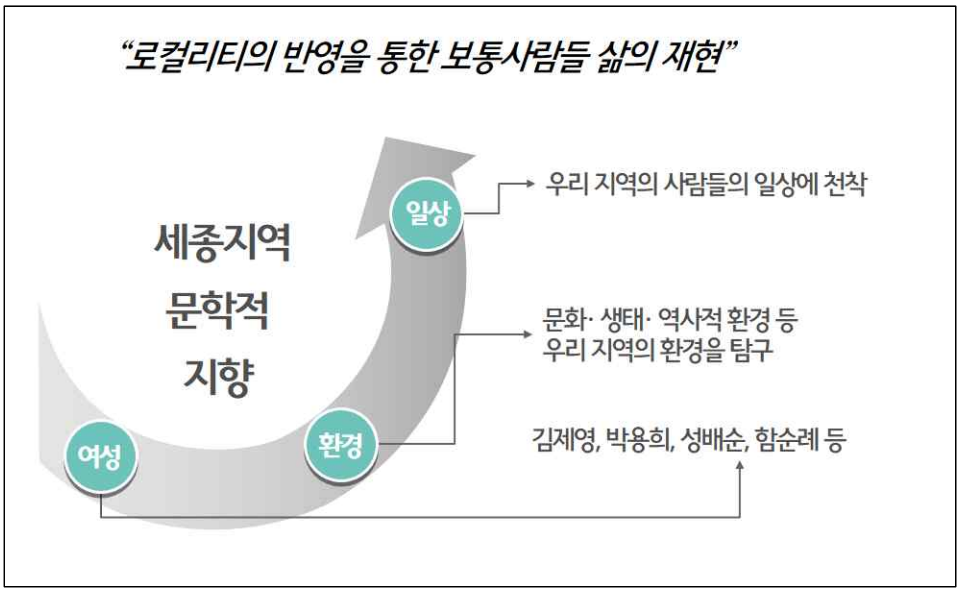
○ '환경'을 고민하고 탐구한 작품이 많음

- 지역의 문화·생태·환경 등 우리 세종시가 처한 현실을 녹여낸 작품이 많음

❍ ‘일상’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문학적 표현을 통한 재현에 중점을 둠

-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 일상에 천착하여 이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음

❍ 따라서 세종시의 문학적 흐름과 여정을 통해 도출하는 가치지향을 “로컬리티의 반영을 통한 보통 사람들 삶의 재현”이라고 표현 하고자 함



〈그림 3-33〉 세종지역 문학작품을 통해 본 문학적 지향

DSI

문학도시로서 세종시의 가능성 모색

1절 세종시 문학진흥을 위한 노력
2절 비전과 기본방향
3절 추진전략과 콘텐츠 구상

4장

4장 문학도시로서 세종시의 가능성 모색

1절 세종시 문학진흥을 위한 노력

1. 조례제정

❍ 세종시 문학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체계를 구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조례'를 2021년 7월 제정됨

❍ 조례안 제출자는 박용희 의원 외 9명이며, 2020년 10월 5일 제출하여, 10월 6일 회부됨

❍ 이 조례는 세종시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의 증진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총 16조로 구성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문학관 등록 여부 심의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신고한 문학 분야 정기간행물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문학 작가 또는 대학의 문학 전공 교수(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문학인, 주민대표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문학 진흥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기관, 학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2.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추진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 분야 정기간행물 발행
5. 그 밖에 시장이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문학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위원회 구성

❍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조례 제5조(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운영)에 의해 세종시 문학진흥을 위한 자문·논의 기구인 세종시 문학 진흥 위원회를 구성하였음(2021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9일 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문학진흥 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태근 소설가가 위촉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일호 현 백수문학 회장이 위촉되었음
- 지역문학인 장석춘 시인, 김세인 소설가를 추가 위원으로 선정하였음
- 세종문학관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현 위원회에서 5명이 추천 받음

❍ 2022년 3월 28일 2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세종시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논의

□ 근거 및 추진목적

○ (근거) 문학진흥법 제5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조례 제4조

○ (목적) 문학진흥 기본계획('18~'22, 문체부)에 따라 시 행정의 체계적 대응·실행력 담보 및 지역 문학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 여건 및 추진방향

○ 지역 문학단체는 백수문학·세종마루시낭독회 등 정도(6개단체 260여명) 활동 중, 예술활동 개인수입은 417만원에 불과·독서를 위한 문학소비는 계속 위축 등

○ 문학향유 기회 확대, 문학창작 지원 지속, 문학 인프라 확충 등 3대전략 추진

□ 비전 및 정책목표

○ 비전: 시민과 지역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는 풍요로운 삶의 실현

○ 정책목표 :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 확대, 문학인의 문학창작 지원 지속, 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

□ 추진과제 현황 : 3대 전략 24개 과제 / 664,850천원

'22년 현황	계	추진전략 1 (문학향유 기회 확대)	추진전략 2 (문학창작 지원 지속)	추진전략 3 (문학인프라 확충)
예산(천원)	664,850	551,850	113,000	-
세부과제(개)	24	20	2	2

추진전략	문학향유 기회 확대 (20개 과제)	과제 1-1. 한 도시 한 책 읽기 범시민 독서운동 추진 과제 1-2.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운영 과제 1-3. 2022년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문학창작 지원 지속 (2개 과제)	과제 2-1. 문학 전문예술·청년예술 창작지원사업 과제 2-2. 문학 예술인 복지 증진
	문학인프라 확충 (2개 과제)	과제 3-1. 세종 공공문학관 조성 추진 과제 3-2. 문학진흥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3. 문학관 조성을 위한 노력

1) 세종특별자치시 문학관 조성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문학관 조성을 위한 별도 자문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

❍ 기존 문학진흥위원회 위원 5명과 함께 건축전문가, 문화정책 전문가, 지역 협의체 간부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킴

❍ 2022년 3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하였음

- (1차 회의) 위원 위촉 등 오리엔테이션
- (2차 회의) 문학관 주변 입지, 설립방식, 조성위치에 대한 논의 진행
- (3차 회의) 문학관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 공유 등

2) 문학관 조성의 움직임과 작은 실천

□ 이어령 문학관 조성의 움직임(2013년)[33]

❍ 2013년 1월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문학관 설립을 추진했던 적이 있음

- 당대 최고 석학인 이 전장관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걸 맞는 문학관을 건립, 문학을 통한 시대상을 보여주자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었음

❍ 세종시와 관련, 생명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하면서 1960년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수필집 '흙속에 저 바람 속에'를 모델로 자신의 문학을 통해 시대적인 변화를 엿 볼 수 있는 문학관 설립을 주변에서 추진하고 있음

- 수필집 '흙속에 저 바람 속에'는 올해 출판 50주년을 맞고 있어 일반적인 문학관보다는 '흙속에...'를 주제로 한 테마 문학관 설립 계획을 마련, 세종시 문화 담당 관계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이어령 전 장관의 아산시와 문학관을 선점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도 있었음[34]

- 충남도와 아산시가 이어령 문학관 건립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연되자 세종시가 같은 이름으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 아산시는 관련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이어령 문학관 건립 사업은 장기 지연되고 있었으며, 특히 문학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아산시로서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음

33) 세종의소리 2013년 01월 24일자. 세종시에 이어령 문학관 들어선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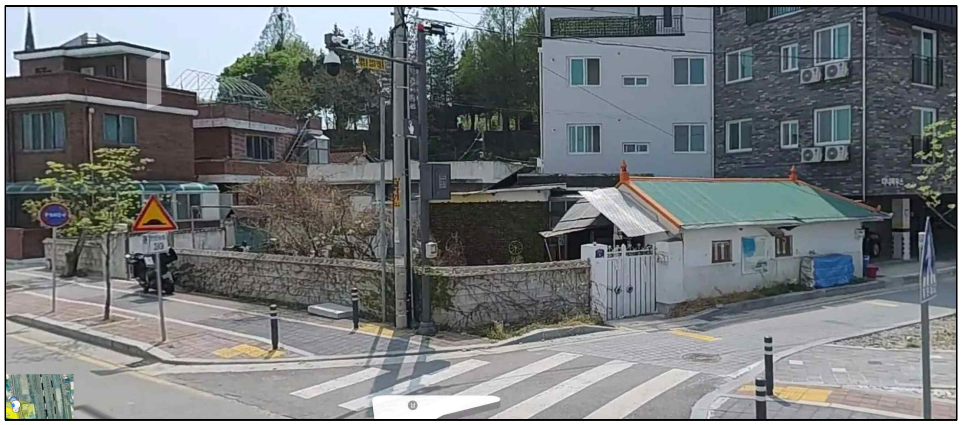
34) 금강일보 2013년 02월 13일자, 아산-세종, 이어령문학관 선점 경쟁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52

❍ 결론적으로는 이어령 문학관의 세종시 설립·유치는 수포로 돌아갔으며, 이후에도 윤동주·황석영 등 문학관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문학 창작공간으로서 활용예정이었던 백용운 생가(2017년)

❍ 백수문학의 창립 멤버이자 가장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했던 故백용운 회장의 작업실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음

- 조치원읍 침산리 조치원역 뒷길에서 확인되었으며, 653 예술상회 이종현 대표가 우연히 발견하여 후학들에게 알려지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그림 4-1〉 백용운 회장 작업실 (현재는 철거되었음)

❍ 백 작가는 고향 만주에서 피난오던 1950년부터 약 10여년 간 살았고 이후 뒤쪽 약 30m떨어진 곳으로 이사, 2007년 작고할 때까지 평생을 조치원읍을 지켜왔음

- 서 너평 크기의 작업실은 천정 석 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자연미를 더해주었고 1989년 4월 상량(上樑)문이 쓰여져 있었으며, 벽은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깔끔했고, 외벽은 시멘트로 칠해진 평범한 양옥집 문간방의 형태로 남아있었음

〈그림 4-2〉 백용운 작업실 알림판

○ 발견 당시에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백수문학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동인지와 관련한 소장품 전시, 학술회의와 백일장, 시낭송회, 그림 전시 등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계획하였음

○ 하지만 2022년 6월경에 집주인이 철거를 하여, 현재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음

□ 김제영 문학관 설립의 움직임(2019년)과 문화골목 만들기

○ 2018년 조치원 지역 소시민의 삶을 노래한 『역전소묘』의 소설가 김제영이 작고하였으며, 문인들을 중심으로 김제영 문학관 건립의 움직임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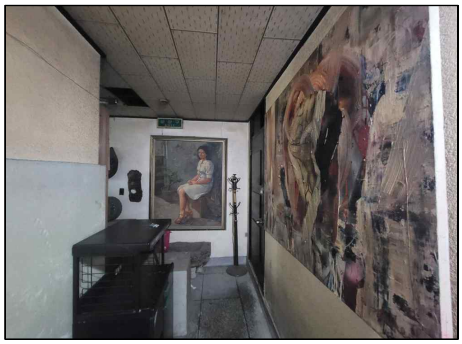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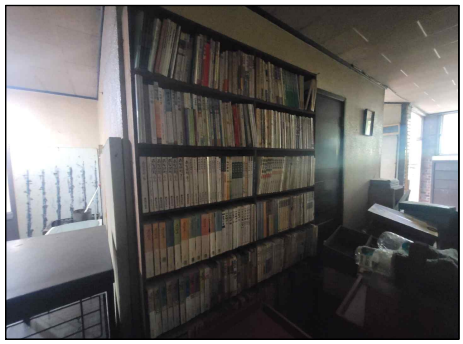
- 김제영은 현실비판 경향이 강하고, 비판의 경지를 넘어 반공 이데올로기 비판의 경지까지 도달함

○ 1978년 '한국 명작총선'에 발표한 소설인 『역전소묘』는 한국전쟁 이후 조치원역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으로, 역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당대 하층민들의 삶을 그려냄

- 승객을 상대로 일하는 호객꾼과 지게꾼, 구두닦이가 소시민 계층으로 등장하며, 건달 각다귀는 역무원들과 부정한 거래를 통해 횡포를 일삼고, 이권을 독차지하는 인물로 그려짐

- 석탄을 줍다 열차에 치어 갈기갈기 몸이 찢겨져 죽은 아내를 둔 황달객, 고아원 출신의 주인공 김성환 등 삶의 애환을 가진 인물도 비중있게 다룸

❍ 김제영 소설가가 작고(당시 90세, 2017년 12월 4일)한 후 지역 문인들은 김제영 문학관 추진위원회를 구성(2018년 8월 5일)하였으며, 소설가 최광작가가 상임대표를 맡았음

〈그림 4-3〉 세종설렁탕 내부 화장실 주변 창고

4) 예산지원

□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

❍ 세종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인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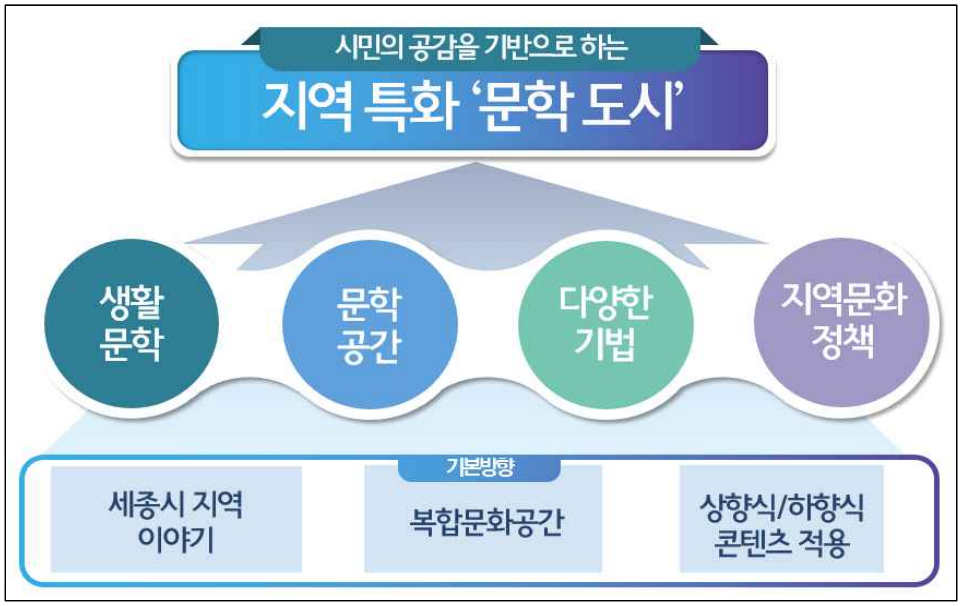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창작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예산 500,000천원의 예산임
- 문학의 경우 2022년 16건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원액 70,000천원임

[표 4-1] 세종시문화재단 지원금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	8	8	9	8	8	14
단체	2	3	4	5	5	4
총액	28,000,000	38,000,000	50,600,000	71,000,000	72,000,000	83,000,000

2절 비전과 기본방향

1. 비전과 목표



〈그림 4-4〉 비전·목표

❍ 이 연구에서 문학도시로서 세종시가 가져야 할 비전으로 '시민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 '문학도시']'로 설정하고자 함

-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성공 요인은 바로 시민들의 공감이라고 할 정도로 '공감성'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음
- 세종시는 주변 충남·대전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문학인과 자원이 만들어 낸 특별한 이야기가 산재하고 있는 곳임
- 하지만 세종시가 함의하는 지역의 주옥같은 문학 이야기를 많은 시민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세종시의 특수한 환경을 기반으로 만드는 다양한 문학이야기를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지역특화 '문학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함

2. 기본방향

1) 세종시 지역의 문학이야기 발굴과 연계를 통한 활용

○ 과거 세종지역부터 현재 세종시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도시로서 만들어 나가야 함

○ 이 연구에서도 밝혔듯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세종지역에는 다양한 문학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곳임

- 전근대 성삼문·박팽년·김종서의 충심과 유학자로서 소명의식을 다했던 이유태·임성주 등의 훌륭한 문학작품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음
- 현대는 조치원 지역의 백수문학을 중심으로 지역 문학의 꽃이 피었던 시기였으며, 강금종·백용운·김제영·윤조병 등 훌륭한 문학인들이 배출된 시기임
- 이들의 작품은 조치원 지역의 소시민적 삶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김제영의 『역전소묘』는 서민의 고달픈 삶을 사실적으로 전달했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원수산, 전월산, 괴화산, 운주산, 금강 등 세종지역의 다양한 자연경관에는 지역에 특화한 구전설화와 문화유산이 전하고 있어,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할 때 특수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학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적 소재로서 세종시 문학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실한 활용을 통해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세종지역에 나타나는 문학 자원의 시민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 문화자원과의 효율적이며 창조적인 연계방안 수립이 필요함

○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방안 수립을 통해 시민들은 문학자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안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특히 세종지역 현대문학은 조치원 지역의 조치원역, 전통시장 등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창조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된다면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

2)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학거점 공간

❍ 문학 거점공간으로서 문학관의 설립은 필요하며, 세종시에 조성될 문학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라키비움 형태의 문학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Archive), 뮤지엄(Museum) 형태를 이르는 말로, 문헌 및 구술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과 기록·교육·체험·전시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함

❍ 세종시에 조성될 문학 거점 공간은 지역 작가들의 창작과 편의 공간, 작품 전시 및 체험 공간, 교육 공간, 수장고 등 자료 보관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음

3) 상향식/하향식의 콘텐츠 적용

❍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학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미디어의 체화를 통해 다채로운 형태의 콘텐츠 생산을 제안함

❍ 문화콘텐츠가 “문화적 소재의 가공을 통해 매체에 체화한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체화되는 매체(미디어)에 따라 구현되는 콘텐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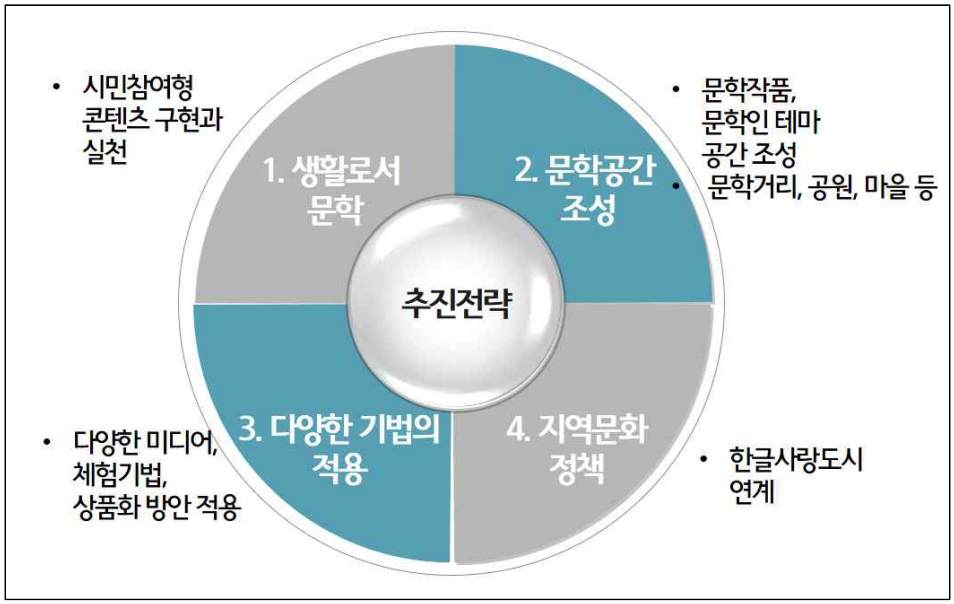
❍ 특히 콘텐츠가 구현되는 방향에 따라 다채로운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음

- (하향식 콘텐츠) : 문학의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방식으로, 명문장을 넣은 굿즈, 포토존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상향식 콘텐츠) :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학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시를 쓰는 활동(또는 필사도 포함될 수 있음), 백일장, 공모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따라서 미디어의 다양화를 통해 구현되는 콘텐츠의 활용과 변주를 문학도시를 이룩하는 데 기본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

3절 추진전략과 콘텐츠 구상

1. 추진전략



〈그림 4-5〉 추진전략

○ 이 연구의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생활로서 문학, ②문학공간 조성, ③다양한 기법의 적용, ④지역문화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함

2. 콘텐츠 구상

1) 생활로서 문학 : 시민참여형 콘텐츠의 구현과 실천

(1) '문학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학축제 콘텐츠

□ 공모전(백일장) 대회_ 올해의 '시민 문학인' 선정

○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서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함

○ 청소년, 성인, 중·장년층, 노년층 등 타겟팅을 설정한 이후, 주제에 맞는 백일장 대회를 진행하고자 함

○ 지역특화 주제 부문을 구성하여 세종시 지역 이야기를 활용하는 부문을 따로 둠

○ 입상자에게는 부상과 더불어 문학인으로서 등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올해의 '문학인' 선정

○ 세종 지역문학인을 대상으로 공공적·예술적·기술적 가치의 발휘를 통해 세종시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문학작품과 문학인을 선정하는 '올해의 문학'상을 제안함

○ 세종시 올해의 문학인(상)을 제정하여 문학인들에게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지역문화콘텐츠의 문화적 소재로서 기대할 수 있음

□ 문학 토크콘서트

○ 올해의 문학인, 올해의 시민 문학인과 연계하여 상을 수상한 문학인, 시민을 초청하여 축제에 참여한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을 제안함

- 올해의 (시민)문학인으로부터듣는 원고 작성 과정, 동기 등 에피소드와 작품 출품 이후 소감 등
-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전하는 이야기 등

(2) 학술 공론장

○ 문학인,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학술 공론장을 운영하고자 함

○ 토크콘서트가 일상의 삶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면, 학술 공론장은 문화정책적인 측면과 학술적 측면에서 고도화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임

■ 문학 공간의 조성

(1) 문학관

○ 국내 문학관은 ①문학인 개인을 선양하거나, ②작품을 활용하여 테마화하거나, ③지자체를 대표하거나, ④생태환경과 자연을 내세우는 경우, ⑤그 외 기타 경우로 유형 분류할 수 있음

① 문학인 개인 선양 문학관

- 박두진문학관, 윤동주문학관, 김수영문학관과 같이 문학인 개인 선양을 위해 조성된 문학관
- 개인의 생애, 작품 내용과 대표 작품, 작가의 가치관과 철학 등 개인의 내용에 맞춘 문학관의 형태
- 운영은 문학인과 관련된 개인이 하는 경우, 기념사업회, 문화재단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문학관의 형태는 단독 건물로 구성된 경우, 마을 내 위치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표 4-2] 개인 선양 문학관 현황

연번	문학관명	설립	소재지	운영	문학관 형태
1	조병화문학관	1993	경기 안성	개인	단독
2	만해기념관	1981	경기 광주	개인	단독 (남한산성 내 위치)
3	박두진문학관	2018	경기 안성	지자체	단독
4	펄벅기념관	2006	경기 부천	펄벅 인터내셔널한국	단독
5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2009	경기 양평	지자체 ((사)황순원 기념사업회 위탁운영)	문학테마파크
6	노작 홍사용 문학관	2010	경기 화성	(사)홍사용 기념사업회	단독
7	기형도문학관	2017	경기 광명	지자체 (광명문화재단 위탁운영)	단독
8	송강문학관	1998	경기 고양	개인	문학관+시비공원 으로 구성 (송강마을 내 위치)
9	한무숙문학관	1993	서울 종로	(재)한무숙재단	단독
10	윤동주문학관	2012	서울 종로	지자체 (종로문화재단 위탁운영)	문학관+윤동주시 인의 언덕 으로 구성
11	김수영문학관	2013	서울 도봉	지자체	단독
12	셋이서문학관	2014	서울 은평	지자체	단독 (한옥마을 내 위치)
13	조태일시문학기념관	2003	전남 곡성	지자체	단독 (태안사 내 위치)
14	백호문학관	2013	전남 나주	지자체	단독
15	고산윤선도문학관	2016	전남 완도	지자체	단독
16	조종현조정래김초혜가 족문학관	2017	전남 고흥	지자체	단독
17	미당시문학관	2001	전북 고창	지자체	단독
18	채만식문학관	2001	전북 군산	지자체	단독
19	최명희문학관	2006	전북 전주	혼불기념사업회	단독 (한옥마을 내 위치)
20	석정문학관	2011	전북 부안	석정문학회	단독
21	가람문학관	2017	전북 익산	지자체	문학관+생가(수우 재)로 구성
22	김환태문학관	2012	전북 무주	지자체	단독
23	정지용문학관	2005	충북 옥천	지자체	단독
24	오장환문학관	2006	충북 보은	지자체	단독
25	포석조명희문학관	2015	충북 진천	지자체	단독

연번	문학관명	설립	소재지	운영	문학관 형태
26	독서왕 김득신문학관	2019	충북 증평	지자체	단독
27	신동엽문학관	2013	충남 부여	㈜신동엽기념사업회	문학관+생가로 구성
28	심훈기념관	2014	충남 당진	지자체	단독
29	김흥신문학관	2019	충남 논산	흥상문화재단	단독
30	박경리문학공원	2010	강원 원주	지자체	박경리 문학의 집+북카페+박경리 옛 사저로 구성
31	김유정문학촌	2002	강원 춘천	지자체 (춘천문화재단 위탁운영)	김유정생가+김유정기념전시관+김유정 이야기집으로 구성
32	이효석문화예술촌	2002	강원 평창	지자체	이효석문학관+효석달빛언덕 으로 구성
33	만해마을	2003	강원 인제	(동국대) 학교	만해문학박물관+님의침묵광장+수련시설+북카페 등으로 구성
34	난고김삿갓문학관	2003	강원 영월	지자체	문학관+김삿갓문학공원+김삿갓묘역으로 구성
35	매월당김시습기념관	2007	강원 강릉	지자체	단독
36	김동명문학관	2013	강원 강릉	지자체	문학관+생가+시인의 언덕 으로 구성
37	월하이태극문학관	2010	강원 화천	지자체	단독
38	이외수문학관	2012	강원 화천	지자체	문학관+모월당(한옥)+감성테마문학공원 으로 구성
39	박인환문학관	2012	강원 인제	지자체 (인제군문화재단 위탁운영)	문학관+시인 박인환의 거리로 구성
40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	2012	강원 양구	지자체	단독
41	구상문학관	2002	경북 칠곡	지자체	문학관+생가(관수재)로 구성
42	이육사문학관	2004	경북 안동	지자체 (이육사추모사업회 위탁운영)	문학관+연수원+생가(육우당)+육사묘소길+시비공원으로 구성
43	권정생어린이문학관 (권정생동화나라)	2014	경북 안동	지자체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위탁운영)	단독 (옛 일직남부초등학교)
44	김연대문학점심관	2014	경북 안동	개인	단독
45	동리·목월문학관	2006	경북 경주	지자체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위탁운영)	문학관+(박목월)생가로 구성

연번	문학관명	설립	소재지	운영	문학관 형태
46	지훈문학관	2007	경북 영양	지자체	문학관+시비 공원으로 구성
47	백수문학관	2008	경북 김천	지자체	단독 (직지문화공원 내 위치)
48	흑구문학관	2012	경북 포항	지자체	단독
49	노계문학관	2018	경북 영천	지자체	도계서원+문학관 +소공원+노계묘 소로 구성
50	최치원문학관	2019	경북 의성	지자체	문학관+고운차실 +고운문학공원으 로 구성
51	청마문학관	2000	경남 통영	지자체	문학관+생가로 구성
52	박경리기념관	2010	경남 통영	지자체	박경리기념관+박경리 공원으로 구성
53	박재삼문학관	2008	경남 사천	지자체	단독 (노산공원 내 위치)
54	이원수문학관	2003	경남 창원	(사)고향의 봄 기념사업회	단독 (고향의 봄 도서관 지하1층 위치)
55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2005	경남 창원	(사)시사랑문화인협의 회	문학관+생가로 구성
56	(구 평사리문학관) 박경리문학관	2004	경남 하동	지자체	문학관+문학앤생 명관+최참판댁+ 박경리토지길로 구성
57	이병주문학관	2008	경남 하동	(사)이병주기념사업회	문학관+이병주(문학)공원으로 구성
58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2011	경남 합천	지자체	문학관+생가 2동으로 구성
59	윤대성 극문학관	2015	경남 밀양	지자체	단독 (밀양연극촌 내 위치)
60	이주홍문학관	2002	부산 동래	이주홍문학재단	단독
61	요산문학관	2006	부산 금정	(사)요산기념 사업회	문학관+생가로 구성
62	이태원문학관	2020	대구 북구	지자체 (행복북구문화재단 위탁운영)	문학관+이태원 길로 구성
63	오영수문학관	2014	울산 울주	지자체 (울주문화재단 위탁운영)	문학관+야외공연시설 (무대)로 구성
64	남훈문학관	2013	제주 우도	개인	단독

② 작품 테마 문학관

- 문학작품을 테마화 하여 문학관을 조성하는 경우
- 문학작품 내 구현된 장소, 배경 등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작품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 국내의 경우 조정래의 태백산맥 문학관·아리랑 문학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나태주의 공주풀꽃문학관, 박경리의 토지문학관, 김주영의 객주문학관, 문경아리랑시조문학관이 있음

[표 4-3] 개인 선양 문학관 현황

연번	문학관명	설립	소재지	운영	문학관 형태
1	태백산맥문학관	2008	전남 보성	지자체	단독
2	아리랑문학관	2003	전북 김제	지자체	단독
3	혼불문학관	2004	전북 남원	지자체	단독
4	공주풀꽃문학관	2014	충남 공주	지자체	단독
5	토지문화관	1999	강원 원주	토지문화재단	토지문화관+문화예술창작공간+박경리 작가 사저로 구성
6	객주문학관	2014	경북 청송	지자체	문학관+창작숙소+연수시설
7	문경아리랑시조문학관	2018	경북 문경	개인	단독

③ 지자체별 지역 문학관

- 광역·기초 단위의 지자체별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관 형태로서, 지역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임
- 지역성을 띠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

[표 4-4] 지역 문학관

연번	문학관명	설립	소재지	운영	문학관 형태
1	강화문학관	2010	인천 강화	지자체	단독
2	목포문학관	2007	전남 목포	지자체	단독
3	순천문학관	2010	전남 순천	지자체	단독
4	전북문학관	2012	전북 전주	지자체	단독
5	광주국제문학관	2013	광주 북구	개인	단독
6	제주문학관	2021	제주	지자체	단독
7	제주문학의 집	2010	제주	제주문학의 집 운영위원회	단독
8	충주문학관	2007	충북 충주	지자체	단독
9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분관) 진천문학관	2014	충북 진천	지자체	단독
10	대전문학관	2012	대전 동구	지자체 (대전문화재단 위탁운영)	단독
11	충남문학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	2001	충남 예산	개인	단독
12	보령문학관	2013	충남 보령	지자체	단독 (보령문화의전당 내 위치)
13	홍성문학관	2016	충남 홍성	개인	단독
14	(구 진달래문학관) 당진문학관	2012	충남 당진	개인	단독
15	경남문학관	2001	경남 창원	지자체 (경남문인협회위탁운영)	단독
16	(구 마산문학관) 창원시립마산문학관	2005	경남 창원	지자체	단독
17	남해유배문학관	2010	경남 남해	지자체	문학관+야외공원(유배의 길, 유배초옥)으로 구성
18	대구문학관	2014	대구 중구	지자체 (대구작가콜로퀴엄 위탁운영)	문학관(건물 3·4층)+문학로드로 구성
19	문경문학관	2018	경북 문경	개인	문학관+별관(이산홀)로 구성 (감용사 입구에 위치)

④ 생태환경, 자연을 주제로 하는 문학관

- 강, 산 등 생태환경과 자연을 주제로 하는 문학관
- 생태환경과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문학관

[표 4-5] 생태환경, 자연을 주제로 하는 문학관

연번	문학관명	설립	소재지	운영	문학관 형태
1	청류재 수목 문학관	1993	경기 안성	개인	단독
2	천관문학관	2008	전남 장흥	지자체	문학관+문학공원으로 구성
3	지리산문학관 (지리산문학박물관)	2009	경남 함양	㈜인산학연구원	단독
4	우포시조문학관	2016	경남 창녕	㈜푸른우포사람들	단독
5	낙동강문학관	2021	경북 상주	지자체	단독

(2) 문학거리와 문학공원

○ 국내 문학거리도 문학관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테마화 하는 경우, 문학인을 테마화 하는 거리로 나눌 수 있음

- 대부분 문학거리는 거리 내 문학관을 포함하고 있어, 문학과 문학인을 테마화하는 공간형 콘텐츠로서 기능하고 있음

○ 세종시는 일상 속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권역에서는 곳곳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문학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문학 아카이브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몰고 온 변화 바람이 인문학 분야에서도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음

- 자료의 축적과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술 분야는 다름 아닌 디지털 아카이빙(archiving) 기술임

- 과거에는 도서관 또는 박물관 같은 시설물 안에 문서고(文書庫)를 차곡차곡 작업이 인문학 연구의 초석으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인 분류 체계 아래 보존할 수 있게됨
- 이미 하드디스크와 서버 정도는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현대인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킹 기술로 인해 꿈에 그리던 구텐베르크 은하계와 정보의 우주를 손바닥 안에 간단하게 보유할 수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아카이브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

- 디지털 아카이브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웹을 기반으로 한, 오픈 엑세스 형태로 개방돼야 함
- 문학사 아카이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자료의 확보에 주력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함
- 메타 데이터의 표준화, 적절한 소프트웨어 선택, 온톨로지 구축과 빅데이터 운용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개발 등 디지털 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비용 문제까지 고려해야 함

❍ 세종지역의 문학 아카이브는 현실적으로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1단계) 세종시청 4층 한글책문화센터의 활용
- (2단계) 세종시립도서관과의 연계와 활용
- (3단계) 문학관 조성을 통한 아카이브 공간 구축

(4) 공간형 콘텐츠의 연계 방안을 통한 관광 프로그램 구현

○ 문학관, 문학거리, 지역문화자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수립을 통한 관광 프로그램 구현이 필요

○ 관광프로그램 사례

[표 4-6] 관광 프로그램

작가 (지역)	관광 프로그램 (코스)
박경리 (하동)	한산사 출발 → 고소성(0.7㎞) →한산사(0.7㎞) → 최참판댁(1.1㎞) →매암차문화박물관(2.3㎞) →조씨고가(1.4㎞) →문암송(4.3㎞) → 악양들판(1.4㎞)... 총 11.9㎞, 4시간 30분 소요
유치환 (통영)	청마문학관 → 김춘추생가 → 남망산 조각공원 → 이중섭 기거했던 곳 → 김상옥생가 → 청마거리 → 박경리생가 → 윤이상거리
채만식 (군산)	군산출발 → 월명공원 → 옛 군산세관(호남관세전시관) → 중식 → 구, 조선은행 → 진포해양테마공원 → 채만식 문학관 → 금강호 관광지 (금강철새조망대) → 최호장군 유지 → 구마모토농장 ([귀시마타니 금고, 5층 석탑)
이효석 (강원)	(1일) 청태산자연휴양림 목공예 체험 → 점심식사 → 황토 염색체험 → 숲해설 듣기 → 휴양림 둘러보기 → 숲체원으로 이동 후 짐 정리 → 저녁식사 휴식 및 취침 (2일) 숲체원 산책 →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구경하기 → 봉평 이동 후 점심식사 → 허브나라농원 관람 → 봉평 이효석 따라 잡기, 이효석 문학관,이효석 생가터(生家垈) → 귀가
최명희 (지리산)	(1일) 서울-남원(용산-익산-남원, KTX-무궁화 환승) → 춘향가(관광단지 내) → 춘향테마파크 돌아보기 (2일) 지리산 1구간 주천~운봉(시간당 2.5km 천천히 걷기) → 흥부골자연휴양림 둘러보기 (3일) 지리산 2구간 운봉~인월(짧고 평탄한 길) (4일) 관광단지 내 솔바람길, 요천변 산책 → 광한루원 (5일) 지리산 3구간 인월~금계(가장 긴 길) (6일) 옛 남원역 버스 정류장에서 523번 버스 → 서도역 앞 → 혼불문학관 (노봉마을) → 남원이동 (7일) 만복사지 → 남원-서울 (남원-익산-서울)

3) 다양한 기법의 적용을 통한 콘텐츠 구현

(1)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

○ 문학의 활용을 통해 구현될 콘텐츠로는 미디어로서 공연예술, ICT 등 실감형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공연예술'은 연극,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을 의미하며, 문학을 소재로 하는 공연예술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음
- 'ICT'는 문학 관련 공간에 조성할 미디어파사드 또는 실감형 콘텐츠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의미함

4) 지역문화정책과 연계

(1) 한글사랑도시로서 문화정책을 활용할 필요

○ 세종시에서는 '한글'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콘텐츠를 새롭게 창조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지역문화콘텐츠로서 '한글'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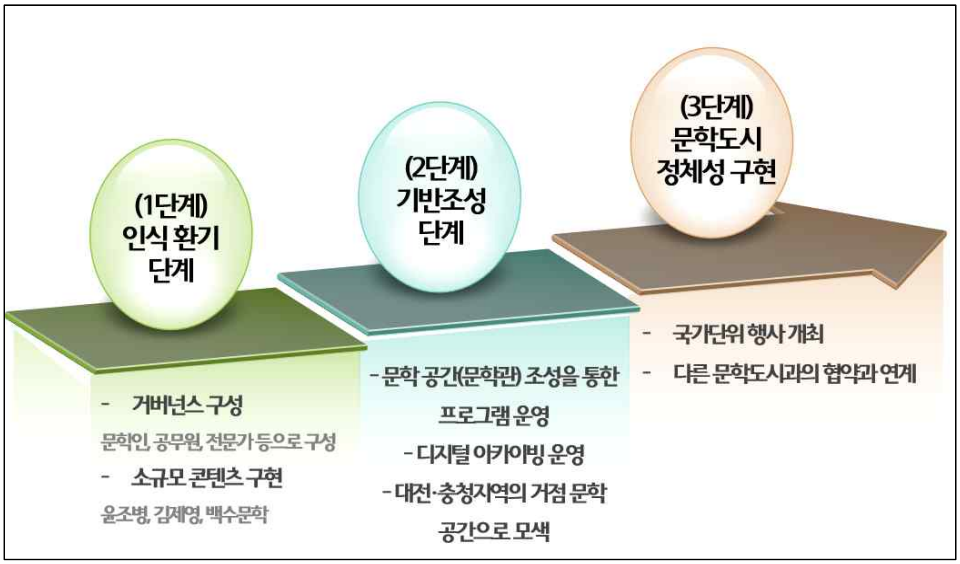
-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 안정을 추구하였고, 세종시 행정부서로서 한글진흥담당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음

○ 한글의 심미적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테마거리로서 한글사랑거리 등 공간형 콘텐츠와 정책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한글날 경축식 행사 등 축제콘텐츠의 구현을 통해 한글도시라는 지역문화콘텐츠를 시민들과 같이 향유하고, 확산하는 시기를 가졌음

○ 더욱이 민선 4기에서는 교육지원과 아래의 한글진흥계를 미래전략본부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한글을 활용한 거점공간인 '한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이를 공약사항에 삽입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킴

○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정책으로서 문학과 한글의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화를 꾀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단계별 로드맵



〈그림 4-6〉 단계별 로드맵

○ 세종시가 문학도시로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위의 그림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1단계) 인식 환기 단계

○ 문학도시로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학인,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성을 제안함

○ 극작가 윤조병, 소설가 김제영, 백수문학의 이야기를 활용한 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콘텐츠를 제안함

■ (2단계) 기반조성 단계

○ 지역 문학 거점공간으로서 문학관의 조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아카이빙의 운영과 활용을 통해 지역문학가들의 작품을 보존하고, 손쉬운 접근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이 단계에서는 조치원, 세종지역을 벗어나 대전과 충청지역의 대표 문학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3단계) 문학도시 정체성 구현

○ 행정수도 권위에 적합한 국가단위의 문학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학도시로서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대표 문학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문학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DSI

결 론

1절 연구결과의 종합

2절 정책 건의

5장

5장 결론

1절 연구결과의 종합

1. 문화콘텐츠 시대에서의 문학의 가치

❍ 도시화와 문화소비의 형태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도시문화 담론이 형성되었음

❍ 국내에서는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류의 등장, 인문학의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이 문화콘텐츠의 등장을 촉진시켰음

-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콘텐츠라는 용어가 공식화됨

❍ 문화콘텐츠가 융합·실용 학문적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 정립이 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태지호(2014)의 “문화적 소재가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이라는 정의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문학은 언어예술이자,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문화콘텐츠 시대에서는 문화적 소재로서 뛰어난 가치가 있으며, 콘텐츠로 활용했을 때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문학을 활용하여 공간형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

- (내재적 관점) 문학 작품 텍스트 서사의 흐름을 통해 거리,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 (외재적 관점) 작가가 가지는 가치관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구현되는 경우

2.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과 흔적

■ 전근대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 : 충정에서부터 유학자로서 소명까지

❍ 전근대 세종지역의 문학 흐름은 조선초기와 중·후기로 나눌 수 있음

- 성삼문·박팽년·김종서를 중심으로 조선 초기의 문학 흐름은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비판하고, 단종에 대한 충정을 노래하였으며, 김종서는 장군으로서 호탕함을 노래하였음
- 조선 중·후기 문학 흐름은 사림이라고 불리는 이유태·임성주 등 유학자들에 의해 정립되며, 이들은 유학자로서의 소명과 획일화된 학문을 대하는 안타까움 등을 노래함

■ 전근대 세종지역 문학의 흐름 : 백수문학 등 동인문학회의 활동과 개별문학인들의 활동

❍ 현대 문학의 흐름은 동인지 문학과 개별문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인지 문학은 백수문학, 세종문학(연기문학), 세종시인협회, 세종마루시낭독회, 시에 등의 활동과 실천에 의해 정립됨

❍ '백수문학은 1955년 창립되어,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세종문학의 본류라 할만하며, 여기에서 연기문학(세종문학)·엽서문학 등이 분파되어 나옴

- 2022년 11월 동인지 100집의 발간을 앞두고 있어, 이는 조치원이라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동인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국문단사에도 유례없을 정도로 가치가 매우 큼

❍ '세종문학(연기문학)'은 1992년 백수문학에서 분파되어 나왔으며, 윤조병·장시종·이대영·김제영 등 신진 문인들을 배출하였고, 2011년 세종문학으로 명칭을 변경함

- 세종문학은 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고, 동인지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지금까지 동인지 27집까지 발행되었음

❍ ‘세종시인협회’는 2015년 ‘세종시인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였으며, 두 차례의 명칭변경을 통해 현재 ‘세종시인협회’에 이르며, 현재까지 동인지 총 7집을 발행함

- 최근 세종시 지역 명소 10곳을 선정하여 시와 함께 영상을 제작한 콘텐츠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세종마루시낭독회’는 2017년 창립하여, 시 낭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문예지 『세종시마루』를 창간하였음

- 세종시(市)의 마루, 세종지역 시(詩)의 마루라는 의미를 가진 동인은 세종시 구도심·신도심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의 수렴을 목적으로 조직됨

❍ ‘시에’는 시에는 2008년 영동지역에서 창립되었으며, 『시에티카』 동인지를 발간하였으며, 세종시에는 2018년 12월 조치원읍에 사무실을 개소하였음

- 시대를 통찰하는 '말'의 시선으로 삶의 윤리를 찾고 사회적 관계망에 충실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성과를 비전으로 활동함

❍ 세종지역에서는 많은 개인 문학인들을 배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작고 문학인인 박노춘·구경서·장옥순·강금종·안회남·백용운·홍재헌·김제영·윤조병·장시종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였음

■ 세종지역 문학공간 현황

❍ 현재 세종지역에서 조성된 문학 유적은 시비(詩碑), 생가, 생가터 등의 형태로 전하고 있음

❍ 세종시의 시비는 총 4기가 전하고 있음

- 박경석의 시비 ‘충절의 고장에 보훈의 빛이’/조치원 충녕탑의 전정
- 박경석의 ‘자유 평화의 빛’ /전동면 개미고개
- 성기조의 ‘조치원에서’ / 세종문화원 전정
- 육철식 시비 / 부강면 노고봉

❍ 생가(집)와 생가터(작업실)

- 소설가 김제영의 집이 현재 조치원 역 앞 세종설렁탕
- 침산리 백용운 작업실 터

■ **세종지역 문학의 지향점**

❍ 세종지역 문학의 키워드를 ‘여성’, ‘환경’, ‘일상’으로 설정하여, 문학의 지향점을 “로컬리티 반영을 통한 보통사람들 삶의 재현”으로 설정함

3. 세종시 문학진흥을 위한 노력

❍ 세종시에서는 문학진흥과 향유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조례를 통해 문학진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를 통해 문학관 조성 자문위원회가 구성됨

❍ 세종시에서는 문학관 조성을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음

- 2013년 故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문학관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백수문학의 백용운 회장의 작업실 발견하여 문학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힘
- 2018년 김제영 소설가가 작고 한 뒤, 김제영 문학관을 설립하자는 문학인들의 실천이 있었음

❍ 세종시문화재단에서는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동인과 개인 문학인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음

4. 문학도시로서 세종시의 가능성 모색

❍ 세종시는 문학도시로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비전으로 “시민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화 ‘문학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세종시 지역이야기의 적실한 발굴과 활용, ②문학 거점 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 ③상향식/하향식 콘텐츠의 적용으로 설정함

○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시민참여형 문학 형태로서 '생활문학',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 '문학 공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론인 '다양한 기법', '지역문화 정책'으로서 한글사랑도시와 연계할 수 있음

- 생활문학 전략을 통한 콘텐츠 : 공모전(백일장) 대회를 통한 시민 문학인 선정, 올해의 문학인 선정, 문학 토크 콘서트, 학술 공론장
- 문학공간 조성 전략을 통한 콘텐츠 : 문학관, 문학거리와 문학공간, 문학 아카이브, 공간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 구현
- 다양한 기법 전략을 통한 콘텐츠 : 공연예술, ICT 등 매체의 활용
- 지역문화 정책 연계를 통한 콘텐츠 : 한글사랑도시로서 문화정책을 활용

5. 문학도시 구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 (1단계) 인식 환기 단계

○ 문학도시로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학인,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성을 제안하며, 윤조병·김제영·백수문학의 이야기를 활용한 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콘텐츠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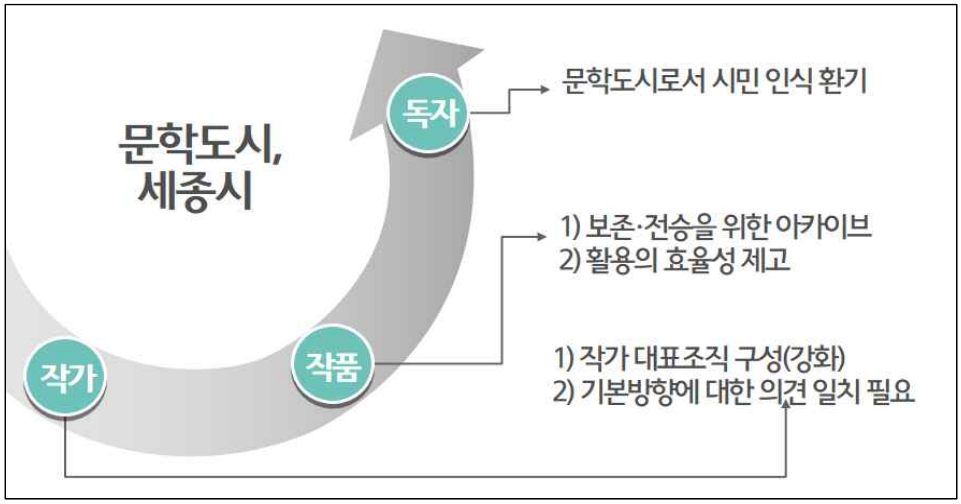
■ (2단계) 기반조성 단계

○ 지역 문학 거점공간으로서 문학관의 조성이 필요하며, 디지털 아카이빙의 운영과 활용을 통해 지역문학가들의 작품의 효율적 보존·활용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문학도시 정체성 구현

○ 행정수도 권위에 적합한 국가단위의 문학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학도시로서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대표 문학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문학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절 정책 건의



〈그림 5-1〉 정책제안 구상도

1. 작가 관점에서의 접근

■ **작가 대표조직 구성 또는 강화**

❍ 현재 세종시는 백수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인협회 세종지회가 1972년 조직되어 있으나, 이의 가치관과 철학에 대응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대전과 충남지역에는 '작가회의'와 같은 조직이 있으나, 현재 세종시에는 이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실제로 작가들의 면담에서는 '작가회의' 조직과 같은 대표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났음

❍ 따라서 진보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회의'와 같은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정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세종시의 문학을 위한 대표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구성되는 조직은 미래세대들이 더욱 문학인으로서 양성되기 위한 문턱을 낮춰, 많은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콘텐츠 조성 등에 대한 작가들의 의견 일치 필요**

○ 현재 세종시는 문학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실제로도 예산 추경을 세우는 등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문학관 또는 문학관련 콘텐츠 구현에 있어서 작가들의 의견이 현재는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우선 작가들의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가령 문학관의 조성에 있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 조성을 할 수 있으며, 특정한 문학동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관을 조성할 수도 있고, 개인 문학관 또는 작품을 주제화하여 문학관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작가들의 의견 일치가 선행되어야 함

2. 작품 관점에서의 접근

■ **작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아카이브 구현 필요**

○ 현재 각 문학동인에서는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보존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카이브를 조성함으로써 우선적인 보존·전승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누구나 손쉬운 접근을 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한글책문화센터,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지역문학작품' 코너 마련**

○ 세종시는 2021년 시청사 4층에 출판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한글책문화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도서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더욱이 세종시립도서관도 개소하였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에는 한글책문화센터, 세종시립도서관에 지역문학인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지 않아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먼저 이 기관에서 '지역문학'작품 코너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 작가들과의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독자 관점에서의 접근

■ 문학도시라는 시민 인식 환기가 필요

❍ 사실 세종시가 함의하는 다채로운 문학이야기와 자원에 대한 시민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며, 소규모 콘텐츠와 같은 지속적인 시민 교류 활동을 통해 문학도시로서 시민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간복균(2007),「문학공간 연구를 위한 현장 답사의 방법과 실제—문학공간 동구천을 중심으로」, 우리문학회,『우리문학연구』21, pp.251~252.

강민희(2015),「문학공간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권정생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제71호, 597~620쪽.

김기덕 외(2006),「문화·콘텐츠·인문학」,『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김보성·이웅규(2014),「해양문학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개발방안」,『한국도서연구』제26권 제1호, 25~48쪽.

김상욱(2017),「4차산업시대의 문화콘텐츠산업」, 크린비디자인.

김석회(1998),「성호 이익의 〈入儉設〉과 생활문학의 관련양상」,『국어교육』97, 263쪽.

김선주(2019), 「문학 공간과 로컬리즘의 양상」, 『인문사회 21』 제10권 3호, 203~217쪽.

김인경(2018),「문학의 공간 콘텐츠와 문화도시의 재생 :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중심으로」,『돈암어문학』제34호, 179~194쪽.

김인경·염경순(2020),「문화도시 재생을 위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평택의 인문도시화와 박석수 문학」,『인문사회 21』제11권 2호, 1805~1816쪽.

김종우(2014),「복합문화공간으로의 문학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문화정책논총』제28권 1호, 253~277쪽.

류준열(2013),「문학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지역개발 -돈키호테의 길 사례로-」,『한국사진지리학회지』제23권 제1호, 141~152쪽.

박희두(2022),「일몽 이규상(一夢 李奎象)과 태성장구곡가(台星庄九曲歌)」,『제8회 세종시향토사대회 세종시기록문화조명』, 115~127쪽. ,

변찬복(2016),「〈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공간의 관광콘텐츠화에 관한 연구」,『호텔경영학연구』제25권 5호, 171~186쪽.

이경숙·권기창(2021),「문학콘텐츠를 활용한 운산역 장소브랜딩 연구」,『인문사회 21』제12권 5호, 3017~3026쪽.

이상주, 李奎象의『태성장구곡가(台星庄九曲歌)』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61권 0호, 2016. 119~155쪽.

이승우 외,「대구 상화로 '길'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간브랜드 기획」, (재)세종문화재연구원 내부자료.

이승우(2007),「중국 개항장 문학공간의 의미—톈진(天津)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회,『동아인문학』47, pp.251~252.

이승우(2019),「중국 개항장 문학공간의 의미—톈진(天津)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회,『동아인문학』47, p.422.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14쪽.
일레인 볼드윈 외(조애리 외 역), 『문화코드』, 2014.
임화수·김구·남윤섭, 「문학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0호, 139~170쪽.
정선희(2014), 「문화콘텐츠 원천소재로서의 고전서사문학: 삼국유사와 한문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60호, 191~215쪽.
정창권(2009),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주현진(2016), 「문학 문화콘텐츠의 원형, 낭독」, 『국제언어문학』 제45호, 25~42쪽.
태지호(2014), 『공간형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해총서.
한명희(2013),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길과 스토리텔링」, 『국제언어문학』 제28호, 273~293쪽.
한원균(2004), 「문학과 공간, 그 이론적 모색」, 『한국문예창작』 3(2), pp33~46.
세종의소리, 20.11.08.일자. “세종시인협회 ‘제5집 시집 출판’…맑은 영혼 충만의 시간 가져”.
세종의소리, 2013년 01월 24일자. 세종시에 이어령 문학관 들어선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
금강일보, 2013년 02월 13일자, 아산-세종, 이어령문학관 선점 경쟁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52

부록

1절 세종시 활동 작가들 저서 발간 현황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강병철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엄마의 장롱	푸른나무	2002	소설		공주	
강병철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닭니	푸른나무	2003	소설		공주	
강병철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꽃피는 부지깽이	온누리	2005	소설		공주	
강병철	남	금강 소설가 모임		토메이토와 포테이토	작은 숲	2010	소설		공주	
강병철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초빼인은 둑었다	천년의 시작	2014	소설		공주	
강병철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나팔꽃	도서출판 삶창	2019	소설		공주	
강태근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국방부 주최 현상소설 당선	숨은 꽃들의 귀환		2020				
강태근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국방부 주최 현상소설 당선	잃은 사람들의 만찬	문학나무	2012	장편 소설		세종	
강태근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국방부 주최 현상소설 당선	이제 일어나서 가자1,2	청어	2020	장편소설		세종	
강태근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국방부 주최 현상소설 당선	숨은 꽃들의 귀환	도화	2020	중편소설		세종	
강태근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국방부 주최 현상소설 당선	진부령 황태집에서	실천 문학사	2022	시인선		세종	
강형기	남	백수문학		포기하지 않는다	성원인쇄	2021	수필집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고영덕	남	백수문학, 세종시 문인협회	2020년 10월	구름이 아름답게 보이던 날	오늘의 문학사	2020	수필집		세종	
고영덕	남	백수문학, 세종시 문인협회	2020년 10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오늘의 문학사	2022	수필집		세종	
곽은주	여	백수문학, 세종 시인협회	2020 백수 문학	숲은 너에게 동화가 있느냐고 묻는다.	천년의 시작	2021	시집		세종	
김동훈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충남문인협회, 한밭아동문학회	아동문예 해동문학 문학사랑 한밭아동문학	반딧불 동네	오늘의 문학사	2002	시집		세종	
김동훈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충남문인협회, 한밭아동문학회	아동문예 해동문학 문학사랑 한밭아동문학	엄마와 재봉틀	오늘의 문학사	2013	시집		세종	
김모송	여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충남문인협회, 한밭아동문학회	2012 문학예술	가을꽃은 슬프다			시집		세종	공저
김모송	여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충남문인협회, 한밭아동문학회	2012 문학예술	시작			시집		세종	공저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비를 주제로 한 서정곡	문학사상	1987	시집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가슴에 앉힌 산 하나	새미	1992	시집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북소리	새로운 눈	2002	시집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비밀방	시선	2005	시집	아르코 문학나눔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비밀정원	천년의 시작	2008	시집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시적환상과 표현의 불꽃에 갇힌 시	푸른 사상	2010	산문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시를 읽는 천개의 스펙트럼	북인	2011	산문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시의 시뮬라크르와 실재라는 광원	지혜사랑	2012	산문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기호의 고고학	시인광장	2013	시집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거울아 거울아	천년의 시작	2017	시집	아르코 문학나눔	세종	
김백겸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3년 서울 신문	지질시간	파란	2020	시집	아르코 문학나눔	세종	
김복태	여	세종시마루, 한국시인 협회, 공주문인 협회	1997 〈문학 공간〉	초승달 나무	책만드는 집	2010	시집		세종	
김복태	여	세종시마루, 한국시인 협회, 공주문인 협회	1997 〈문학 공간〉	백 년의 토끼와 흰말과 고양이	천년의 시작				세종	
김석호	남	세종시마루		바람꽃 피는 초원	교단문학	2001	시집		세종	
김석호	남	세종시마루		문자 메시지 길을 잃다	교단문학	2004	시집		세종	공저
김석호	남	세종시마루		나무새의 날개	인간과 문학	2013	시집		세종	
김석호	남	세종시마루		별에게 쓴 편지	월간 순수문학	2021	시집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김세인	여	세종문학, 한국소설가 협회	1997년 《21세기 문학》	무녀리	작가	2008	소설집	한국문화 예술 진흥원 문예진흥 기금	세종	
김세인	여	세종문학, 한국소설가 협회	1997년 《21세기 문학》	동숙의 노래	작가	2016	소설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김세인	여	세종문학, 한국소설가 협회	1997년 《21세기 문학》	오, 탁구!	작가	2018	장편 소설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김세인	여	세종문학, 한국소설가 협회	1997년 《21세기 문학》	연기대첩의 주역, 김흔 장군	작가	2019	역사 동화	세종시 문화원 지원금	세종	
김세인	여	세종문학, 한국소설가 협회	1997년 《21세기 문학》	효자, 이정간	작가	2021	역사 동화	세종시 문화원 지원금	세종	
김애희	여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2010 문파 문학	물벼락	월간 문학	2013	시집		세종	
김영호	남	대전작가 회의, 세종시마루	1984년 『한국 문학의 현단계Ⅲ』		창비	1984	평론집		대전	
김영호	남	대전작가 회의, 세종시마루	1984년 『한국 문학의 현단계Ⅲ』	『선생님, 시 읽어 주세요』	창비	2011	시 해설집		대전	편저
김영호	남	대전작가 회의, 세종시마루	1984년 『한국 문학의 현단계Ⅲ』	『지금, 이곳에서의 문학』	봉구네 책방	2013	평론집	대전 문화재단 창작지원 금	대전	
김영호	남	대전작가 회의, 세종시마루	1984년 『한국 문학의 현단계Ⅲ』	『대전문학의 始源』	심지	2013	평론집		대전	공저
김영호	남	대전작가 회의, 세종시마루	1984년 『한국 문학의 현단계Ⅲ』	『넌 아름다운 나비야』	작은숲	2014	산문집		대전	공저
김영호	남	대전작가 회의, 세종시마루	1984년 『한국 문학의 현단계Ⅲ』	『일본탈출기』	봉구네 책방	2015	산문집	대전 문화재단 창작지원 금	대전	편저
김영호	남	대전작가 회의, 세종시마루	1984년 『한국 문학의 현단계Ⅲ』	『시스루 양말과 메리야스』	창비	2016	시선집		대전	편저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김일호	남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1991 문학세계	노을에 젖다	종려나무	2015			세종	
김홍정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금강(1~10권)	솔	2016 ~ 2020	소설		공주	
김홍정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그 겨울의 외출	오늘의 문학사	2014	소설			
김홍정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창천이야기	솔	2017	소설			
김홍정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의자왕 살해사건	솔	2018	소설			
김홍정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모주석은 이렇게 말하였다	도서출판 등	2022	소설			
모나로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2019 백수문학	내사랑 모나에게	뜰	2016	시집		세종	
문희순	여	백수문학	2001 오늘의 문학	바람의 노래	오늘의 문학사	2004	수필집		세종	
문희순	여	백수문학	2001 오늘의 문학	숲속의 새는 기쁘다	오늘의 문학사	2006	시집		세종	
문희순	여	백수문학	2001 오늘의 문학	완두콩	오늘의 문학사	2008	시집		세종	
문희순	여	백수문학	2001 오늘의 문학	9289	오늘의 문학사	2009	시집		세종	
문희순	여	백수문학	2001 오늘의 문학	하얀 숲	오늘의 문학사	2012	시집		세종	
문희순	여	백수문학	2001 오늘의 문학	할머니의 보석	오늘의 문학사	2013	동시집		세종	
문희순	여	백수문학	2001 오늘의 문학	화양연화	이든북	2019	수필집		세종	
박고은	여	백수문학,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2003 문학세계	그대를 만나면 좋아지는 이유	월간문학	2010	시집		경주	
박고은	여	백수문학,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2003 문학세계	한사랑을 그리며	세종 출판사	2021	시집		경주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박고은	여	백수문학,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2003 문학 세계	그대에게 보내는 꽃잎 편지	세종 출판사	2021	시집		경주	
박송이	여	한국작가회의, 세종시마루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2011 신춘문예 당선시집	문예 출판사	2011	시집	2011년 신춘문예 당선시집 모음	세종	공저
박송이	여	한국작가회의, 세종시마루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울 플레이스	청어람	2013	산문	13명의 에세이 모음집	세종	공저
박송이	여	한국작가회의, 세종시마루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조용한 심장	파란	2019	시집	대산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세종	
박송이	여	한국작가회의, 세종시마루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낙엽 뽀뽀	브로콜리 숲	2021	동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세종	
박송이	여	한국작가회의, 세종시마루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창작과 문화콘텐츠	한남대학교 출판부	2021	인문	시창작 글쓰기 교재	세종	공저
박찬구	남	백수문학, 한국문인협회, 한국문예	2006 자유문예	사랑과 영혼			시집		세종	
박희숙	여	백수문학	2009 한맥문화사	1집 푸릇한내음 꽃을 피우기 위한 몸짓	동양제책사	2010	시집		세종	
박희숙	여	백수문학	2009 한맥문화사	2집 비단물결	동양제책사	2011	수필집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배경숙	여	백수문학	2008년 아동 문예	바보 막돌이	아동 문예사	2015	동화 동극		세종	
배경숙	여	백수문학	2008년 아동 문예	날다 오!지훈	오늘의 문학사	2017	동화 동극		세종	
배경숙	여	백수문학	2008년 아동 문예	생라면 먹는 법	오늘의 문학사	2019	동화 동극		세종	
배경숙	여	백수문학	2008년 아동 문예	비 오는 날 지하창고에서	시아북	2021	동화 동극		세종	
배경숙	여	백수문학	2008년 아동 문예	운동장 밑에서 마주친 그녀석	시아북	2022	동화 동극		세종	
성배순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4년 《경인 일보》 신춘 문예	『어미의 붉은 꽃잎을 찢고』	시로여는세상	2008	시집	푸른 신인상 창작 지원금	세종	
성배순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4년 《경인 일보》 신춘 문예	『아무르 호랑이를 찾아서』	시로여는세상	2015	시집	충남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세종	
성배순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4년 《경인 일보》 신춘 문예	『세종·충남 詩香을 찾아서』	도서출판시아	2017	산문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세종	
성배순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4년 《경인 일보》 신춘 문예	『세종호수공원』	도서출판시아	2018	그림책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세종	
성배순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4년 《경인 일보》 신춘 문예	『250살시장에서 100살 과일을 찾아라』	협동조합청년팩토리	2019	그림책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세종	
성배순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4년 《경인 일보》 신춘 문예	『세상의 마루에서』	실천 문학사	2019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성배순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4년 《경인 일보》 신춘 문예	『한 알의 모래를 보탠다』	도서출판심지	2021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성봉수	남	백수문학,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방송, 세종시 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1990 백수 문학	너의 끈	책과 나무	2014	시집		세종	
성봉수	남	백수문학,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방송, 세종시 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1990 백수 문학	바람 그리기	책과 나무	2016	시집		세종	
성봉수	남	백수문학,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방송, 세종시 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1990 백수 문학	검은 해	책과 나무	2019	시집		세종	
손영미	여	금강 소설가 모임		누가 환유를	도서출판등	2021	소설		공주	
손영미	여	금강 소설가 모임		빛의 소멸	도서출판등	2022	소설		공주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한국 현대희곡의 구조	우리문화사	1991	희곡		세종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창과 거울	한림원	1996	평론집		세종	
송재일	남	송재일	1989년 신인문학 (평론)	논리적 글쓰기	한림원	1997	작문		세종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한국 현대시의 형성 미학	국학자료원	1999	시론		세종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공주대 출판부	2002	문학론		세종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한국 현대극의 탈식민성	공주대 출판부	2004	희곡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연극체험	공주대 출판부	2006	연극론		세종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소통의 글쓰기	박이정	2017	작문		세종	공저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대학생을 위한 발표와 토론	박이정	2017	화법		세종	공저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감성인문학	지혜	2018	인문학		세종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한 모금 사랑	북인시선	2020	시집		세종	
송재일	남	세종문학	1989년 신인문학 (평론)	충남민주화운동사	부운디자인	2021	일반		세종	
신현자	여	한국문협, 세종시인협회, 대전문인협회	2009년 한울문학 신인상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의 문학사	2016	시집	인터넷문학상, 서구문학상 수상	세종시	문학박사
신현자	여	한국문협, 세종시인협회, 대전문인협회	2009년 한울문학 신인상	『꽃잎이 진다고』	문경출판사	2020	시집	인터넷문학상, 서구문학상 수상	세종시	
심규식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네 말더듬이의 말더듬기	녹원 출판사	1991	소설		천안	
심규식	남	금강 소설가 모임		그곳에 이르는 먼 길	도서출판이서원	1995	소설		천안	
심규식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돌아와요 부산항에	도서출판이서원	1995	소설		천안	
심규식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사로잡힌 영혼	도서출판효성	1999	소설		천안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심규식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낭만의 에뜨랑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청어출판사	2019	소설		천안	
심규식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우리시대의 영감님	청어출판사	2020	소설		천안	
심규식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망이와 망소이(전5권)	청어출판사	2020	소설		천안	
양점식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2022 백수 문학	가슴에 걸어둔 달			시집		남해	
양점식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2022 백수 문학	농부시인			시집		남해	
여규용	남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2002 문예 사조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	오늘의 문학사	2011	시집		세종	
여규용	남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2002 문예 사조	별의 꿈	오늘의 문학사	2016	시집		세종	
여규용	남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2002 문예 사조	한 사람의 사람으로	오늘의 문학사	2019	시집		세종	
오충	남	세종시마루, 글로벌 시낭송	2018년 (한맥 문학)	물에서 건진 태양	천년의 시작	2021	시집		세종	
유준화	남	세종시마루, 충남시인협회	2003년 불교 문예	초저녁 빗소리 울안에 서성대는 밤	들꽃	2003	시집	자비출판	공주	
유준화	남	세종시마루, 충남시인협회	2003년 불교 문예	네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지혜	2017	시집	충남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공주	
유준화	남	세종시마루, 충남시인협회	2003년 불교 문예	어린왕자가 준 초록색 공	천년의 시작	2019	시집		공주	
유준화	남	세종시마루, 충남시인협회	2003년 불교 문예	바람꽃	책만드는 집	2021	시집	충남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공주	
유준화	남	세종시마루, 충남시인협회	2003년 불교문예	붉은 오로가가 펼쳐지는 새벽	천년의 시작	2021	시집	공주 문화재단 올해의 문학인	공주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윤상현	남	백수문학	2015 백수 문학	그대의 첫 발자국	도서출판향도	2015	시집		서울	
윤상현	남	백수문학	2015 백수 문학	꽃잎을 열어 놓겠습니다	도서출판향도	2015	시집		서울	
윤형근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년 《문예 중앙》 신인상	사냥꾼의 노래	열음사	1989	시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기금	대전	
윤형근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년 《문예 중앙》 신인상	나는 신대륙을 발견했다	중앙일보사	1990	시집		대전	
이병연	여	세종시마루	2016년 《시세계》 신인상	꽃이 보이는 날	지혜	2018	시집		세종	
이병연	여	세종시마루	2016년 《시세계》 신인상	적막은 새로운 길을 낸다	지혜	2020	시집		세종	
이 상	남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2019 시학과 시	풀노리	이화출판사	2022	시조집		세종	
이석구	남	세종문학	2019년 《상상의 힘》 신인상	초승달에 걸터 앉아	좋은땅	2020	시집		공주	
이석구	남	세종문학	2019년 《상상의 힘》 신인상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든북	2021	시집		공주	
이선행	여	세종시 문인협회, 세종시마루	2012년 《시선》 신인상	내게 할당된 사랑	시선	2012	시집		세종	
이선희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7년 시와경계	우린 서로 난간이다	종려나무	2014	시집	2014 세종도서 문학 나눔선정	세종	
이선희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7년 시와경계	소금의 밑바닥	도서출판지혜	2020	시집	2020년 아르코 문학나무 선정	세종	
이영준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2017 백수문학	대청호			시집		세종	
이영준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2017 백수문학	동짓달			시집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좋은 세상	실천문학사	1986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봄 여름 가을 겨울	창비	1989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절망은 어깨동무를 하고	신어림	1993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시와 리얼리즘	공동체	1993	평론집			편저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한국 현대시의 현실인식	국학자료원	1993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송강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공저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실사구시의 시학	새미	1994	평론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무엇이 너를 키우니	실천문학사	1996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진실의 시학	태학사	1998	평론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	2000	평론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걸레옷을 입은 구름	실천문학사	2013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봄바람, 은여우	도서출판b	2016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달과 돌	지만지	2016	시선집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분청사기 파편들에 대한 단상	책만드는집	2017	시조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풍경과 존재의 변증법	도서출판b	2017	시론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초식동물의 피	시와사람	2018	시선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시와 깨달음의 형식	시정시학	2018	평론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생활	실천문학사	2019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시의 깊이, 정신의 깊이	천년의시작	2020	평론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걸어다니는 별	천년의시작	2021	시집			
이은봉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84 창작과 비평 신작시집	초록잎새들	심지	2021	시선집			
이은숙	여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14년 서정문학 신인상	그여자, 캄캄한 달빛	심지	2022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이정수	여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2022 백수문학	아직도 내게 너의 안부를 물어올 때	이화출판	2022	시집		세종	
임비호	남	세종시 시인협회, 세종시마루	1997년 《연기문학》 작품활동	금강순례	심지	2018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장석춘	남	백수문학	2013 백수 문학	숯골지기	세종아이콘	2018	시집		세종	
정완희	남	세종시마루, 충남작가회의	2005년 작가마당 등단	어둠을 불사르는 사랑	시선사	2007	시집	자비출판	서천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정완희	남	세종시마루, 충남작가회의	2005년 작가마당 등단	장항선 열차를 타고	시선사	2020	시집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서천	
정완희	남	세종시마루, 충남작가회의	2005년 작가마당 등단	붉은 수숫대	실천문학사	2020	시집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충남문화재단지원	서천	
정용기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1년 《심상》 신인상	하현달을 보다	현대시	2003	시집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예진흥기금	세종	
정용기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1년 《심상》 신인상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문학답사	창비	2014	산문		세종	공저
정용기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1년 《심상》 신인상	도화역과 도원역 사이	시로 여는 세상	2017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정용기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2001년 《심상》 신인상	어쨌거나 다음 생에는	천년의 시작	2020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조동길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네 말더듬이의 말더듬기	녹원출판사	1991	소설		공주	
조동길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쥐뿔	문학시대사	1991	소설		공주	
조동길	남	금강 소설가 모임		달걀로 바위깨기	새미	2000	소설		공주	
조동길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어둠을 깨다	한국소설가협회	2000	소설		공주	
조동길	남	금강 소설가 모임		안개향기	도서출판등	2021	소설		공주	
진영대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97년 〈실천문학〉 신인상	술병처럼 서 있다	문학아카데미	2002	시집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예진흥기금	세종	
진영대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97년 〈실천문학〉 신인상	길고양이도 집이 있다	시와에세이	2020	시집	제2회 삶의문학상(삶의 문학)	세종	
진영대	남	세종문학, 세종시마루	1997년 〈실천문학〉 신인상	당신을 열어 보았다	실천문학	2022	시집	2022년 한국시문학상 (문학과 창작)	세종	

이름	성별	소속	등단 사항	저서	출판사	출간 연도	갈래	참고	거주지	
최 광	남	세종문학, 금강소설	1999년 《문학21》 신인상	노크	도서출판작가	2016	단편소설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조치원읍	
최 광	남	세종문학, 금강소설	1999년 《문학21》 신인상	글로벌 농법	도서출판작가	2018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조치원읍	
최 광	남	세종문학, 금강소설	1999년 《문학21》 신인상	DMZ 도그 하울링	푸른생각	2021	장편소설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조치원읍	
한상길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문예2000]誌	내 숲 속의 푸른섬	푸름사	2003	시집		세종	
한상길	남	백수문학, 세종시인협회	[문예2000]誌	고향의 등불	오늘의문학사	2019	시집		세종	
함순례	여	세종시마루	1993년 《시와 사회》 신인상	뜨거운 발	애지	2006	시집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예 진흥기금	세종	
함순례	여	세종시마루	1993년 《시와 사회》 신인상	혹시나	삶창	2013	시집		세종	
함순례	여	세종시마루	1993년 《시와 사회》 신인상	나는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애지	2018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함순례	여	세종시마루	1993년 《시와 사회》 신인상	울컥	역락	2019	시집	세종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세종	
함순례	여	세종시마루	1993년 《시와 사회》 신인상	사람의 전쟁 1,2	걷는사람	2020	융합	대전 문화재단 협업형예술창작생태지원 사업	세종	공저
황우진	남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2014 창조 문학	장막을 벗고	창조문학사	2014	시집		세종	
황우진	남	백수문학, 세종시문인협회, 세종시인협회	2014 창조 문학	시화를 펼치다	창조문학사	2016	시집		세종	

2절 고문헌·향토집에서 세종지역을 노래한 시(詩)

오봉락조(五鳳落照) - 송암 장규환(松庵 張奎煥)

지는 해에 제5봉이 붉게 물들고(落照紅飜第五鳳)
까마귀 사라진 숲에 백로가 한가하게 나른다.(鴉投盡鷺飛惰)
푸르름이 선명해서 한없이 흐뭇한데(蒼翠鮮明無限好)
그대는 어찌하여 눈물만 흘리는가?(景公何事淚龍鐘)

오봉락조(五鳳落照) - 이락당 유치도(二樂堂 兪致道)

연기고을 서남쪽에 오봉산 수려한데(燕邑西南秀五鳳)
가련히 지는 해는 붉은 빛이 곱게 짙다.(偏憐落日艷紅濃)
깊은 숲 속 비치는 햇빛은 그림처럼 밝아서(照人深林明似畵)
멀리서 보아도 울창한 소나무 숲을 헤아릴 수 있구나.(遙看可數鬱蒼松)

한 가닥 지는 해가 오봉산에 걸리더니(一抹斜陽掛五鳳)
청천에 은은히 부용꽃을 새긴다.(靑天隱隱削芙蓉)
천년을 다함없이 웃나봉을 비치는데(千年不盡牛山照
서풍에 지나는 비는 시름겹게 하는구나.(灑淚西風意萬重)

침산추월(砧山秋月) - 이선재(李璿載)

어여쁘다 달은 휘황하게 침산을 비추는데(可憐皎皎砧山月)
한번 먹은 맑은 마음 만고에 변함없다.(一片氷心萬古秋)
달이 꽃 창문에 비치니 옷깃마저 정결한데(來照惠窓襟共潔)
홀로 거문고 품고 역남루에 오른다.(抱琴獨上繹南樓)

침산추월(砧山秋月) - 송은 장달식(松隱 張達植)

침산에 대낮같이 달빛이 비치니(砧山如晝月光流)
달 아래 다듬이 소리 늦가을을 재촉한다.(月下砧聲動暮秋)
서산에 달 떨어지고 다듬이소리 또한 멎으니(月落山空砧又歇)
쓸쓸한 초목에는 새벽운치 그윽하다.(蕭蕭萬木五更幽)

침산추월(砧山秋月) - 우송 장응철(友松 張應喆)

침산에 밝은 달 가을기운 역역한데(砧山明月忽生秋)
옥같은 높은 하늘에 은하수만 흐르네.(玉　嶸河漢流)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잠 못 이루는데(搗鍊家家人不寐)
먼길 떠난 손님만 홀로 잠을 이루네(思歸遠客獨休樓)

삼월삼일에 번암에서 노닐다(三月三日 遊磻巖) - 육일당 최진원

삼월삼일 봄날이 저물어도(三三春日暮)
오월오일에 푸른 풀을 밟게 되리.(五五踏靑行)
들은 넓어 파란 하늘과 연하였고(野廣連天碧)
백사장 평탄한데 달을 빌려 밝았구나.(沙平借明月)
술잔과 술동이에는 취하고 깨는 흥취가 있고(盃樽醒醉興)
노래와 시에는 예나 지금이나 정이 있도다.(歌詠古今情)
맑은 홍취로 놀던 곳 아직도 기억하노니(倘記淸遊處)
번암은 본래 아름다운 이름이어라.(磻巖素美名)

산방에서(山房) - 육일당 최진원

맑은 풍경소리 바람따라 푸른 숲에 잦아들고(淸聲隨風落翠微)
높은 곳 암자에는 솔 삽짝이 닫혔구나.(一庵高處閉松扉)
하늘 가득한 꽃비는 봄기운이 다함이라.(滿天花雨春光老)
경승을 찾던 시객도 쌍쌍으로 돌아온다.(探勝騷人兩兩歸)

제비의 둥지를 두고(薦巢) - 환재 최지성

연기고을 먼 나그네 제비와 이웃하니(燕鄕遠客薦爲隣)
대들보 위에 짖는 소리 싫지 않고나(樑上喃喃聽)
내 집이 달팽이 같다면 너는 달팽이 뿔이니(我屋如蝸蝸角汝)
검은 옷 입은 너와 백면서생 날마다 친근하네.(鳥衣白面日相親)

천세 또 천세의 장수를 기원함.(謹上千千歲壽) - 환재 최지성[35]

주나라 낙양처럼 한양이 숭고하니,(周洛陽而漢崇)
선리가 봄을 만나 꽃 피우도다.(仙李椿而華兮)

반도는 만년 만에 열매 맺으며(桃萬年而子結)
꽃은 한번 피면 환갑이 걸린다네.(花一度而甲回)

곤룡포 빛나서 같은 이 없으니(龍袞煌其無般)
그 장수를 빌어 천세라네.(上其壽日千齡)
뜻은 늘 즐겁게 봉양하고(志以養於无彊)
눈썹 빼어나 만수무강 기약하네.(眉又介於无彊)

온 나라가 구 달효를 우러러 보고,(靑邱仰其達孝)
만만년 끝없이 찬송한다네.(頌不已於萬萬)

참으로 백년동안 가는 날을 아끼고(誠愛日而百年)
무강장수 더하여 늘 봄빛이리라.(籌添海而長春)

태평성대 수역으로 찬란하니,(昇平爛以籌域)
하늘 상제의 돈독한 도움 기다리네.(佇上帝之篤佑)

우리 임금 그 어머니 장수를 기원하니,(吾王燕其籌母)
금년에 이 동방의 경사로다.(慶今年於東土)

신령스런 봄은 갑자년에 자랐고,(靈春長於甲子)
탄신은 을묘년에 돌아왔네.(誕長回於乙卯)

화성이 드높아 패궁같고,(華城屹而沛宮)
임금의 수레 받들어 한차례 즐기네.(奉法駕而一預)

35) 정조 을묘년(1795년) 윤월 11일에 임금이 직접 화성에 내려와서 문과정시(文科庭試)를 보았으니 갑과 제일인(甲科 第一人)에 합격하였다.

남극성 팔달산에 빛을 더하고,(南星耀於八達)
북두칠성은 백리에 비치도다.(北斗映於百里)

때도 좋지만 날도 좋아서(長之吉兮日良)
춘주를 빚어 기쁨을 잔치하네.(釀春酒而飾喜)

구공은 온 시골이 모였고,(鳩笻集於一鄕)
태배는 모든 관료에 올랐도다.(鮐背登於百僚)

풍성한 음식은 축하 예의에 난만하니,(需雲爛於賀儀)
장수를 축원 드리는 이 얼마던가?(其壽而幾何)

어찌 화봉삼축에 그치리오?(奚徒三於祝華)
주나라의 구여보다 더 하도다.(不啻九於頌周)

기쁜 소리 절하고 조아림에 움직이니(歎聲動於拜稽)
천세 또 천세로서 천년 장수라 한다네.(日千千而於千)

송나라의 기영연을 열었고,(開宋筵於耆英)
노나라의 강능을 긴 해에 찬송하도다.(頌魯岡於長年)

술잔은 만세에 기울이고,(杯長傾於萬)
태평의 연기와 꽃을 꾸미도다.(飾烟花於太平)

여섯 글자의 제목으로 장수를 울리니,(符六字於上壽)
옛날 옛적부터 그러하였네.(自古昔而然矣)

궁중이 감화한지 몇 해던가?(官闈化於幾年)
해옥장수의 송축은 아침이로다.(海屋頌而今朝)

하늘의 바람으로 큰 음악을 보내어(天飇送其大樂)
온 나라가 봄빛으로 모두 하니,(八域春而都是)

부로들이 찾아와서 춤추고 뛰어 노는구나.(來父老而舞踏)
신하들에게 조칙을 내려 가요를 권하네.(詔臣隣而歌謠)

풍년 들은 시골이 바로 이땅이니(豊之鄕兮此地)
정담보다 싶으도다.(春酒湛於情話)

궁중나무 팔천세를 자랐으니(官樹長以八千)
천세에 또 천세이고 또 천세로다.(千又千又千千)

신선주 빚어 칭송하니,(仙醪釀而頌之)
난만하기 강릉같고 또 빗물 같도다.(爛如陸而如用)

꽃이 피고 또 꽃이 피어 해와 달 같으며(華又華兮日月)
임금의 효성도 하늘과 같도다.(仰聖孝之如天)

문왕은 하루에 세 번 문안드렸고,(儀文朝之日三)
순임금은 오십세에도 사모하였다네.(倣舜慕之旬五)

이 나라의 아름다움 이해에 불어나니,(倣休滋於是年)
기뻐하는 임금의 얼굴 신하들이 알겠도다.(喜天顔之巨知)
하루에 숫대를 더해서 노래하고,(謠添壽於一日)
창설한 도참 천년을 점치도다.(筮昌 於千斯)

임금의 글 제목에 이날의 글 쓰니,(扵璇題於千此)
신은 절을 하며 아름다움 선포합니다.(巨拜手而揚休)

팔경시(八景詩) - 남파(南坡) 임헌태(林憲泰)

당산에 오르니 푸르스름한 람기에도 날씨는 맑은데(登臨唐岫翠嵐晴)
산 위에는 옛 성터 자리를 잡고 있네.(更有挾山麗古城)
가을달 밝은 밤에 다듬이 소리 요란한데(月白砧園秋杵亂)
구름 깊은 비암사 새벽종이 울리는구나.(雲深碑寺曉鍾鳴)
금강에 돛단배 바람은 천리나 나부끼고(賈帆錦水風千里)

동진에 고기잡이배 등불이 깜박이고 피리부는 소리만 여기저기 들려오네.
(漁火東津笛數聲)
오봉산 저녁노을 걷친다고 말하지 말라.(莫五逭峰殘照斂)
용당바위 위에 놀기 좋게 개어 있네.(龍塘巖上別遊晴)
(연기지 제영조)

팔경시(八景詩) - 금사(錦史) 임병두(林炳斗)

석양 노을진 봉우리에 저녁 연기 둘려 있고(夕照峰前烟一簑)
연못가 멋진 바위는 한 켤레 신발처럼 드러나 있네.(奇巖塘畔露雙靴)
맑은 하늘 금강포구에 돛단배 돌아오고(天晴歸帆遠水落)
나뭇잎 떨어진 침산에는 가을달만이 비치우네.(砧山秋月多羅寺)
신라 옛 절에서 울려 나오는 새벽 종소리는 구름 속에서 퍼져 나오고
(疎鍾曉雲出麗城)
고려 옛 성의 담장 위에는 돌아오는 새의 발길이 바쁘더라.(古堞暮禽過嵐擬)
람기 어린 당산은 맑기도 하구나.(唐山淸如許嵐氣)
고기잡이 배 돌아오는 나루에는 홍타령이 절로 나오네.(漁火東津興若何)
(연기지 제영조)

오봉산(五峰山) - 청암(淸庵) 김윤환(金潤煥)

산색은 가파르게 다섯 봉우리가 솟아 있고,(山色揷五峰)
동강의 물줄기는 도도히 흐르네.(桐江流抱水落落)
일찍이 듣건대 명혈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니,(曾門名穴此中在)
바쁜 세상사를 잊고 잠시 발길을 멈추네.(除却奔忙暫駐節)
(조선환여승람, 연기 산천조)

제언(提言) - 이병연(李秉延)

긴 방죽을 새로 축성하였으니,
마치 이것은 진시황의 만리장성인 듯하네.
자연히 물 걱정이 없어지니,
연기 백성 편안하게 농사짓겠네.
(조선환여승람 연기 산천조)

연기팔경(燕岐八景) - 회산(晦山) 유인학(柳寅鶴)

황혼녘 붉은 물결 위로 밝은 달이 나오니,
연기의 사방에 환한 빛이 깃들었네.
먼 산은 아득히 푸른 빛을 띠고
황량한 절의 종소리는 옛 왕국의 소리처럼 들려오네.
고기잡이 배 등불이 강의 좌우를 비추고,
용당기암과 고려 잔곽은 험준하네.
연기의 팔경은 붓끝에 쌓이건만,
이 모두에 시인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네.
(조선환여승람 연기 형승조)

연기팔경(燕岐八景) - 탄수(灘叟) 임영철(林營喆)

오봉의 석양이 빛나는 것을 잠시 보니
침산의 가을달은 새로운 영을 비추네.
비암사의 종소리는 새벽의 노래를 부르고
고려시대 성에는 두견새 소리 쓸쓸하네.
용당을 품은 바위에는 어수리풀이 자라나니
아지랑이 개인 당산은 돌연꽃이련가.
동진의 고이잡이배와 금강으로 돌아오는 돛단배.
(조선환여승람 연기 형승조)

연기지방을 지나면서(燕岐途中作) - 정약용(丁若鏞)

연기 지방을 지나면서(燕岐途中作)
지난 겨울 포근함 처음 느끼니(始識前冬煖)
아무래도 이월의 날씨 아닐레(殊非二月天)
보리이삭 곳곳에 돋아 허옇고(麥芒隨地白)
꽃기운은 온 산에 불이 붙은 듯(花氣滿山燃)
유향이 마음쓴 일 고달팠을 뿐(劉向心徒苦)
경방이 닦은 학문 아니 전하네(京房學未傳)
천지가 맑은 빛을 한껏 머금어(乾坤含淑景)
그야 물론 풍년이 있을 거구만(應是有豊年)

■ 그 밖에 공간

원수산 - 윤기

말 멈추고 서쪽으로 연기산(燕岐山) 바라보니,
뜬구름 아지랑이 빛이 어이 그리 푸르른고.
길가는 나그네 탄식하면서 가다 다시 멈추되,
이곳은 지난 날 큰 싸움터라네.
적의 기병(騎兵) 올 때에 몇 만이나 되었던고,
공중을 덮은 깃발 구름이 휘날리듯.
처음에 강동(江東)으로부터 사방을 노략하니,
한번만 지나가면 폐허(廢墟)로 변하였다.
영웅임을 자랑하고 힘을 믿고 이 땅에 주둔할 때,
기세도 혁혁(赫赫)하다. 누가 감히 당하랴.
장막 안의 미인(美人)은 절세의 일색(一色)이요.
수레 안의 금과 비단 사방 것을 탈취했네.
마음대로 탐락(耽樂)해도 오히려 부족하여,
만 마리 소를 삶고 천 마리 양을 잡았네.
황금 병 백옥잔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노는 흥도 길었다.
천병(天兵 : 원나라 군사)이 한 번 오매 모두 무너져 버렸나니,
큰 수레바퀴가 범아재비(螳) 누르듯이.
우습도다, 구구(區區)한 무리 제 힘 생각 못했다가
계책 이미 다하여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다네.
우리 임금님의 은덕과 공업(功業) 천지와 짝하여
앉아서 온 사해에 농상(農桑)을 부성(富盛)하게 하니,
민간인은 화평하여 함께 생업을 즐기고
장사꾼과 나그네도 양식 싸가지고 갈 필요가 없네.
어리석은 선비 다행하게도 성대(聖代)를 만나서
중천의 일월 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
다니면서 성군(聖君)의 덕을 노래하고 성군의 만수무강을 비노니,
원하건대 우리 임금 만세(萬歲)에 장수하시고 창성(昌盛)하소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연기현 산천조-원수산)

연희루(燕喜樓) - 인재(寅齋) 신개(申槪)[36]

十載重登百尺樓　10년 만에 또다시 백 척 다락에 오르니,
世情人事水 流　세정(世情)과 인사(人事)는 물처럼 급히 흐르는구나.
獨隣元師靑山色　홀로 어여뻐라, 원수(元帥)의 푸른 산빛만이
萬古興亡只 留　만고(萬古)의 흥망에도 이렇게 남았구나
含盃轉覺此心寬　한잔 술에 이 마음이 한결 더 너그러워짐을 깨달았더니,
把鏡還羞久客顔　거울을 들여다보니 오랫동안 객지에 산 얼굴이
　도리어 부끄럽구나.
不用更登樓上望　다시 다락에 올라서 조망할 필요 없으니,
北來何恨有雲山　북으로 구름 덮인 산이 있으니 무슨 한이 있으리오.

(신증동국여지승람 연기현 누정조 —연희루, 연기지 제영조, 조선환여승람 연기 누정조)

수입금강명(水入錦江明) - 서거정(徐居正)

龜嶺行多險　귀령(龜嶺) 넘어 갈 땐 험하기도 하더니,
燕岐路自平　연기(燕岐) 땅 들어서니 길도 평탄하구
山連鷄岾翠　산은 멀리 계룡산을 연해 푸르고,
水入錦江明　물은 금강에 들어와 밝구나.

有容頻來往　오가는 손들이 저다지 빈번하니,
何時了送迎　보내고 맞는 일 어느 때 끝이 나랴.
凄凉孤 夜　처량한 외로운 객관의 밤에,
惱殺遠遊情　멀리 다니는 손의 심정이 산란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연기현 제영조, 연기지 제영조, 조선환여승람 제영조)

36) 조선 초기 문신으로, 태조 때 관직으로 나아가, 세종 때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고려사』 편찬에 참여함

전의(全義) - 서거정(徐居正)

地分車峴自東西　　땅은 차현에서 동과 서로 나뉘었고
路入全城高復低　　길은 전의성으로 들어서며 높았다 낮았다 하네
山勢周漕圍近郭　　산줄기 두루 연이어 성곽을 에웠고
樹陰繚繞護長堤　　숲그늘 빙 둘러 긴 언덕 보호 하네

독락정(獨樂亭) - 서거정(徐居正)

①

三江別野+土是靑氈　　금강의 별장이 선조의 유업이라
家世相傳又此賢　　집안 대대로 전하여 옴에 또 어진 자손이 더러 뜻을 이어 받았고
獨樂風流溫國後　　독락정의 풍치는 사마온공의 뜻을 이어받았고
一區圖畫輞川前　　일구의 그림같은 경치는 왕마일의 마천도보다 좋더라.
靑連鷄岳山無數　　계룡산으로 이어지는 산봉우리 다 헤아릴 수 없고
白接熊津水不邊　　웅진나루로 흘러가는 물줄기, 그 끝이 없어라
好作林泉眞宰相　　산중의 참다운 재상이 될 수 있으니
爲君長詠去來編　　그대를 위해 도연명의"귀거래사"를 오래도록 읊겠네

②

少年聲價孰如君　　소년의 성가(聲價)가 누가 그대에 비기리.
脚底平看萬里雲　　그 다리 아래 만리의 청운(靑雲)이 길이 평평히 보였네.
暫屈朝班還舊隱　　잠깐 조정에 나왔다가 옛 고장 다시 찾고
更從榮宦策高勳　　또다시 영화로운 벼슬에 높은 공훈 이루었다.
功名造物眞如戱　　공명이란 참으로 조물주의 작희(作戱)런가.
出處南兒未易論　　남아의 출처(出處)를 어찌 쉽사리 논하리요.
却恐鳴騶催上道　　말방울 울리며 길을 재촉하니
北山遠鶴更移文　　북산(北山)의 원학(遠鶴)이 다시 이문(移文)할까 렵도다.

③

名園直壓錦江低　　이름난 동산이 저 금강을 눌러 나직하게 있는데
我昔相尋路自迷　　옛날에 내가 찾으려다 길을 몰랐네
何氏林亭知最勝　　하씨(何氏)의 임정(林亭)이 가장 좋은 줄 알았어도
杜陵桐葉不曾題　　두릉(杜陵)이 오동잎에 시를 쓰지 못하였네
膏車恨未從盤谷　　수레에 기름칠 해 반곡(盤谷)에 따르지 못하니
雪艇終順訪剡溪　　눈 속에 배를 저어 마침내 각계를 찾으리
莫遣藏湍仍斂霧　　여울물 감추고 안개 거두지 말라.
似聞桃李已成蹊　　도이(桃李)나무 밑에 이미 길이 났다고 들었노라.

(신증동국여지승람-공주목)

독락정별기(獨樂亭別記) - 임재무

煃我十二世祖保安伯諱淑有三子仲爲我先而將軍公其季也公
以麗季勳臣革除後屛遯于三江上優遊十六年而後
沒自守其身有如圃治之賢其幽堂之誌神道之銘有足徵焉不佞
曾有所受於家庭世傳之語公山三岐合江下有亭獨
樂者是公別墅也舊說又日國家褒賞節義 命賜江山又
賜廟額曰林氏家廟使中軍摠制申檣題其額四字至今如
新然此亭之築必在於公之屛遯日也距今三百有於餘年而巖然獨存
於遺址者豈代有修葺而然歟吁亭之記文中有以
此亭爲公之胤府使公所築者阿也公受 賜江山名亭獨樂者其志亦
有寓焉夫如是則府使公繼其遺躅而肯溝之者
歟不佞以公之傍孫景仰節義有倍他人願一登臨者雅矣??官纏
身恨未遂計今年夏來鎭西州去亭不過果腹地乃於
閏七月旣望瞻拜公之廟仍上此亭江山風物宛然猶舊使人
有興感而起者矣於是燕公兩邑宗人咸以序集同席叙族
幾數百人也公之種德之厚吁亦盛矣于時宗人皆囑余曰子
旣同宗而工於篆盍以揭其額耶余不敢以筆拙辭遂書之因
記聞見事蹟如右云
崇禎後再庚寅仲秋下浣 洪陽營將林再茂記

〈역 문〉

나의 十二代祖保安伯諱淑은 아들 삼형제를 두셨는데 仲子는 나의 先祖요

장군(전서공은) 그망내시다. 공은 고려말 훈신으로 조선 太祖혁명후에 삼강상에 자취를 감추어 덧없이 지내기 十六年만에 돌아 가셨으나 그 몸을 스스로 지키심이 포은(정몽주) 야은(길재)의 어지심과 같았으니 그 묘소의 지문과 신도비문으로 족히 증거할 수 있다.

내가 일찍이 가정에서 대소로 전해 오는 말을 들은바 있는데 공산 삼기 합강 아래(독락정)이라는 亭子가 있으니 이는 공(전서공)의 농막이라 구설에 또 이르되 국가에서 절의를 포창하여 王命으로 강산을 사폐하고 또 가묘 액호를 사액하여 가로되 林氏家廟라 하고 중군 총재 申檣으로 하여금 그 額號를 쓰게한바 그 四字 가 지금도 새것과 같다.

그러나 이 정자를 지은것은 반드시 전서공께서 은거하실 당시 일 것이다.

지금에 삼백년이 지났는데도 높다랗게 홀로 유지에 우뚝 서 있으니 어찌대소로 수리하여 그런 것인가.

아아!! 정자의 기문중에 이 정자가 공의아들 부사공이 지었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전서공이) 강산을 사폐밧고 정자 이름을 독락이라 하였으니 그 뜻을 또한 부친 것이리.

무릇 이와 같은 즉 부사공이 그 유촉을 이어받어 장자를 지은 것인져.

내가 典書公의 방손으로서 절의를 울어러 삼모함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되여 한번 올라가 보고자 원한것이 오래 되였으나 관직에 매인 몸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것이 한이 되였드니 금년 여름에 西州營將으로 와서 정자하지 거리가 바로 구부리면 닿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비로소 윤칠월 보름이 넘어 바라든 公의 사당을 참배하고 이 정자에 오르나 보나 강사의 풍물이 완연히 옛과 같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였다.

이에 연기 공주 兩邑 宗人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族饍를 닦으니 수백인이 되였다.

공이 쌓은 덕이 두터움이 또한 성하도다?

이때 공인이 모두 나에게 청하기를 그데가 同家으로 종서에 솜씨가 있으니 어찌 그 懸額을 계시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내 감히 문필이 졸열하다고 사양치 못하고 마침내 이제까지 듣고 본바 사적을 우와 같이 이르노라

독락정(獨樂亭) - 임중(林重)

十載經營屋數椽　　십년을 경영하여 집 몇 칸을 지었고나
錦江之上月峯前　　금강의 위요, 월봉의 앞이로다
桃花 露江浮水　　복숭아꽃은 이슬에 젖어 강물에 붉게 뜨고
柳絮飄風白滿船　　버들가지는 바람에 나부껴 배에 희도다
石逕歸僧山影外　　돌길에 돌아가는 스님 산그림자에 비치고
烟沙眠鷺雨聲邊　　연기 낀 모래밭에 자우는 회오리 빗소리에 놀래도다
若令摩詰遊於此　　만약 마힐(摩詰, 당나라의 시인이자 화가王維의 자)이 이곳에 놀았다면
不必當年畵輞川　　당년에 반드시 망천(輞川, 중국 섬서성에 있는 강)만을 그리지 않았으리.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독락팔영(獨樂八詠) - 최립(崔岦)[37]

① 원포권장 (원포에서 넘치는 물을 봄)
流止皆天機　　물이 흐르고 그치는 것이 모두 하늘의 조화로 됨이니,
漲來亦發越　　넘쳐 오는 것도 역시 그 조화 속에서 발함이로다.
川觀卽觀海　　냇물을 보는 것이 즉 바다를 보는 것과 같으니
小大非吾設　　작고 큰 것은 내가 말함이 아니로다

② 層磯酌魚 (층돌에서 고기를 낚음)
不應心在魚　　마음이 응당 고기에 있지 않은데
何事老於釣　　무슨 일로 낚시에서 늙는고,
自結白鷗盟　　스스로 백구의 맹세를 맺노니
暮歸來復早　　저물게 돌아옴이 다시 이르도다.

③ 文殊春事 (문수사의 봄일)
文殊傾社去　　문수사로 서사(書社)의 제생들이 다 올라가니,
春服旣成時　　봄옷이 이미 이루어진 때로다
採 愁春損　　나물을 채취함에 봄빛이 손상될까 근심했더니
新芳夜又肥　　새로 꽃다운 싹이 밤에 또 돋아났도다.

37) 이이의 문인으로, 1561년 문과에 장원하였으며 이후 공주목사, 공주부윤을 지낸 뒤 승문원 제조가 되었음

④ 蒼岩秋氣 (푸른 바위와 가을 기운)

蒼岩與秋氣　　푸른 바위와 가을 기운이
借問是誰高　　빌어 묻노니 어느 것이 더 높을고.
白首人不語　　흰머리의 늙은이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
一聲長嘯豪　　긴 휘파람의 한 소리 호걸스럽도다.

⑤ 石潭明月(돌 못에 밝은 달)

潭空眞一鑑　　빈 못은 참으로 한 거울이 열렸는데
更有月來照　　달빛이 또 와서 비치도다.
與足莫相憐　　흥이 남에 서로 어엿비 여기지 말라.
潭中月漸杳　　못 속에 달이 점점 아득이 보이도다.

⑥ 瓦灘顚風(와탄의 어지러운 뱌람)

顚風作作惡　　어지러운 바람이 갑자기 사납게 부니
灘淺愁舟閣　　얕은 여울에 배 띄움이 걱정이로다.
剛彼早物兒　　강하게 조물아의 희롱을 입었으되
戱人人不覺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다.

⑦ 倉坪雨後(창평의 비온 뒤)

農家得雨喜　　농가에 비를 얻어 기뻐하니
滿野叱牛耕　　들에 가득히 소를 몰아 밭을 갈도다.
草色亦何事　　풀빛이 또한 어떠한고
幽人空復情　　그윽한 사람이 부질없이 정을 두도다

⑧ 鷄岳春晴(계약에서 봄이 개임)

雲空天似鏡　　구름이 걷히니 하늘은 거울같고
岳古雪爲眉　　뫼부리는 옛이니 쇠잔한 눈이 눈썹이 되도다.
相對又歲暮　　서로 대함에 또 어느덧 해가 저므니
溪翁耶得衰　　시냇가 늙은이가 어찌 쇠로하랴?

당수청람(唐岫晴嵐) - 간송(磵松) 장홍진(張弘鎭)

天晴唐山暖生嵐　　맑게 개인 당산에 따뜻하게 바람이 이는데

草樹依依翠共含　　산천초목이 다같이 푸르름을 머금고 있구나.
非烟非霧渾如靄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아지랑이가
　　다함께 어우러지니
一扶靑山氣更添　　한가닥 청산이 기운을 더하고 있네.
(연기지 제영조)

당수청람(唐岫晴嵐) - 성주노(成周老)

江雨初晴滴翠嵐　강에 뿌리던 비가 개이고 푸르른 기운이 한결 짙은데
連峰層石碧於藍　연이은 봉우리에 층층 바위는 쪽빛보다 더 푸르르구나
燕南歸客彷徨久　고향으로 돌아갈 나그네 방황한지 오래인데,
戰地腥塵一夢酣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도 꿈속에 아롱거리는구나
(연기지 제영조)

당수청람(唐岫晴嵐) - 우재(友齋) 장기정(張基定)

連峰西畔鳳崗南　연봉의 서쪽 기슭 봉암고개 남쪽에는
唐山晴天倒滴崗　당산 위 개인 하늘에 푸르름이 드리우고
浮沈塵埃山更好　부침하는 풍진 속에서도 산이 더욱 아름다우니
空 眼碧○○　하늘에 출렁이는 푸른 담요 같구나.
(연기지 제영조)

금강귀범(錦江歸帆) - 화석 김영채(華石 金永采)

江亭楊柳綠依依　강가 정자에 버드가지 푸르렀는데,
數曲漁歌一帆歸　어부의 노래 소리 몇 곡조 들리더니 돛단배 하나
　　외로이 돌아오네.
遺世飄如天上坐　속세를 떠나 표연히 하늘 위에 앉으니
要津風雨不侵依　나루터 비바람이 옷자락을 못 적시네.
(연기지 제영조)

금강귀범(錦江歸帆) - 용은(龍隱) 임병수(林炳琇)

日送孫帆錦浦歸　　해 저무니 배 한 척 강 포구에 돌아오는데,

檣烏詩與渚飛 丘+鳥　　때마침 까마귀 한 마리 돛대 위에 앉으니
　　물가에 갈매기 놀래어 나른다.
炯波十里滄茫外　　물결 십리 아득한 강물 밖에
一曲漁歌美夕輝　　어부가 한 가닥 고운 석양에 빛나네.
(연기지 제영조)

금강귀범(錦江歸帆) - 난계(蘭溪) 장일환(張日煥)

紅漸瘦時綠漸肥　　붉은 꽃이 시드니 푸른빛이 짙어져서
錦江春色正芳菲　　금강의 봄기운에 방초가 푸르르네.
堪令 手模眞景　　영을 받은 화공이 진경을 그려내
立立群帆帶月歸　　돛을 단 배들이 달빛 안고 돌아온다.
(연기지 제영조)

동진어화(東津漁火) - 모계 장세진(張世鎭)

茫蒹枯荻藝爲漁　　갈대와 마른 풀로 횃불 놓아 고기 잡으니
水底光明易看魚　　물 속까지 밝게 보여 고기 잡기 용이하다.
潛伏雖昭休捉鯉　　그러나 잠복해서 있다 해도 잉어를 잡지 말아라.
此鱗最愛好傳書　　이 잉어는 좋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연기지 제영조)

동진어화(東津漁火) - 당운(唐雲) 하천해(河天海)

東進自古野人居　　동진에는 자고로 야인이 살면서
近水生涯太平漁　　물가에서 일생을 고기 잡아 꾸려간다.
對火慇懃招伴語　　불을 마주보며 은근히 속삭이는 말
秋來風雨夜多魚　　가을이 오면 비바람 부는 밤에도
　　고기가 많이 잡힌다네
(연기지 제영조)

동진어화(東津漁火) - 기운 장기항(張基恒)

一帶長江十里餘　　한줄기 긴 강이 십리 넘어 흐르는데,

野人淸趣癖於漁　　야인의 맑은 취미 고기잡이 버릇일세.
第看月落汀空夜　　달 떨어진 물가에는 밤이 이슥한데,
炬火縱橫星火如　　출렁이는 횃불 빛이 달빛과도 같구나.
(연기지 제영조)

팔경시(八景詩)

登臨唐岫翠嵐晴　　당산에 오르니 푸르스름한 람기에도
　　날씨는 맑은데
更有挾山麗古城　　산 위에는 옛 성터 자리를 잡고 있네.
月白砧園秋杵亂　　가을달 밝은 밤에 다듬이 소리 요란한데
雲深碑寺曉鍾鳴　　구름 깊은 비암사 새벽종이 울리는구나.
賈帆錦水風千里　　금강에 돛단배 바람은 천리나 나부끼고
漁火東津笛數聲　　동진에 고기잡이배 등불이 깜박이고
　　피리부는 소리만 여기저기 들려오네.
莫道五峰殘照斂　　오봉산 저녁 노을 걷친다고 말하지 말라.
龍塘巖上別遊晴　　용당바위 위에 놀기 좋게 개어 있네
(연기지 제영조)

팔경시(八景詩) - 금사(錦史) 임병두(林炳斗)

夕照峰前烟一蓑　　석양 노을진 봉우리에 저녁 연기 둘려 있고.
奇巖塘畔露雙靴　　연못가 멋진 바위는 한 켤레 신발처럼 드러나 있네
天晴歸帆遠水落　　맑은 하늘 금강포구에 돛단배 돌아오고
砧山秋月多羅寺　　나뭇잎 떨어진 침산에는 가을달만이 비치우네.
疎鍾曉雲出麗城　　신라 옛 절에서 울려나오는 새벽 종소리는
　　구름 속에서 퍼져 나오고
古堞暮禽過嵐擬　　고려 옛 성의 담장 위에는 돌아오는
　　새의 발길이 바쁘더라
唐山淸如許嵐氣　　람기 어린 당산은 맑기도 하구나.
漁火東津興若何　　고기잡이 배 돌아오는 나루에는 흥타령이
　　절로 나오네.
(연기지 제영조)

연기팔경(燕岐八景) - 회산(晦山) 유인학(柳寅鶴)

황혼녘 붉은 물결 위로 밝은 달이 나오니,
연기의 사방에 환한 빛이 깃들었네.
먼 산은 아득히 푸른빛을 띠고
황량한 절의 종소리는 옛 왕국의 소리처럼 들려오네.
고기잡이 배 등불이 강의 좌우를 비추고,
용당기암과 고려 잔곽은 험준하네.
연기의 팔경은 붓끝에 쌓이건만,
이 모두에 시인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네.
(조선환여승람, 연기 형승조)

연기팔경(燕岐八景) - 탄수(灘) 임영철(林營喆)

오봉의 석양이 빛나는 것을 잠시 보니
침산의 가을달은 새로운 영을 비추네.
비암사의 종소리는 새벽의 노래를 부르고
고려시대 성에는 두견새 소리 쓸쓸하네.
용당을 품은 바위에는 어수리풀이 자라나니
아지랑이 개인 당산은 돌연꽃이련가.
동진의 고기잡이배와 금강으로 돌아오는 돛단배
(조선환여승람, 연기 형승조)

전의제시(全義題詩) - 서거정[38]

연기고을 먼 나그네 제비와 이웃하니(燕鄕遠客鷰爲隣)
대들보 위에 짖는 소리 싫지 않고나(樑上喃喃聽?)
내 집이 달팽이 같다면 너는 달팽이 뿔이니(我屋如蝸蝸角汝)
검은 옷 입은 너와 백면서생 날마다 친근하네.(鳥衣白面日相親)

38) 임정기 번역

태양십이경 - 진세현[39]

① 앵진귀범(鶯津歸帆)
順風如箭往來時 순풍 타고 쏜살같이 오고갈 때
鶯歌烏啼遠客悲 꾀꼬리 노래 그치고 까마귀 우니 멀리서 온 나그네 서글퍼지네
島頭灘項爭流處 섬 어귀 여울목 강류가 다투어 흐르는 곳
賈子漁兒大會期 상인과 어부가 크게 모여드는 시기라네
路回剡水秋霜早 섬계5)로 가는 길에는 가을 서리 벌써 내렸고
地轉楚江暮雨遲 초강楚江6)으로 돌아드는 땅에는 저녁 비 가늘게 내리네
就中誰效袁宏癖 이 속에서 누가 원굉袁宏7)의 취미를 따라하고 있는가?
載來月汀好咏詩 실어 온 달빛 비치는 물가는 시 읊기에 좋다네

② 월봉기암(月峰奇岩)
峯回月轉作名園 월봉 돌아드는 곳에 명원名園을 만들었으니
岩勢最奇化女魂 바위 기세 기이하여 여인의 넋으로 변한 곳이라네
幸免秦鞭藏磊磊 다행히 진시황의 채찍을 면하여 우뚝한 바위 간직되었고
遠超崑火立軒軒 곤륜산의 뜨거운 화재 멀리 벗어나 높다란 바위 서있다네
上含碧落千秋色 위로는 푸른 하늘 천추의 빛을 머금었고
下壓長江萬里源 아래로는 장강長江 만 리의 근원을 누르고 있네
一片寒山堪共語 한 자락 적막한 산이지만 함께 대화할 만하니
時時出望倚橋門 때때로 나가 교문橋門에 기대어 바라본다네

39) 진세현이 반곡리에서 주변 경관 12경을 노래한 시.

3절 세종시를 노래한 문학작품 중 현대 시(詩)

《조치원 역에서》 성배순

떠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라고 소리치며
아침 6시 13분, 어둠을 뚫고 기차가 들어온다.
뿌우웅 경적을 울리며 치익칙 역으로 돌아온다.
이번 역은 조치원, 조치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왼쪽 출구에 줄을 서자 애인이 귓속말을 한다.
역 주변의 출산율이 왜 높은지 아느냐고 농을 던진다.
6시 13분 경적소리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시 잠들 수 있을까?
우리도 역 주변에 방 하나 얻어 볼까?
아침 햇빛 속으로 주먹만 한 연분홍 복숭아들
주렁주렁 제 모습을 드러내며 웃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던 애인이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며 내 손을 쥔다.
한때는 별을 보려고 어둠을 기다린 적이 있다.
지금은 북극성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새로운 별이 북극성에 올랐다는 것도 안다.
북극성은 생각보다 밝지 않다는 것까지 안다.
기차에서 내려 조치원역 광장에 서면 안다.
낮에도 반짝이는 별이 있다는 것을.
태양은 언제나 저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조치원역 광장에서》 장석춘

사람들이 달라졌다
총총걸음이 아니라 여유 있고 느긋하다
걸어 다닐 만하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
기차 타러 온 사람들은
예전엔 오직 택시 타려고 버스 타려고
기차 타려고 바쁘게 움직였었다
조치원역 앞은 택시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뭣 때문에 택시들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택시들은 옆으로 쫓겨나고
역전은 넓은 놀이터가 되었다
감춰졌던 얼굴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말한다
"조치원은 좋지요"
이제는 사람들이 판치는 마당이 되어으면 좋겠다.

《조치원에서》 성기조

하늘의 날새가
전등불에 쫓겨
둥지에 숨고
우리들은 불켜진 고향
조치원으로 돌아온다
한 밤을 자고나면
다시 일터로 가야지
아침해는 궁평들에서 뜨고
새내는 금이성 돌아 흘러
복숭아 꽃을 곱게 피웠다
차령산맥이 북으로 달려
남으로 금강이 흐르는 곳
어와 조치원은 무릉도원일세

《나무》 박목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조치원》 기형도

사내가 달걀을 하나 건넨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1시쯤에
열차는 대전에서 진눈깨비를 만날 것이다.
스팀 장치가 엉망인 까닭에
마스크를 낀 승객 몇몇이 젖은 담배 필터 같은
기침 몇 개를 뱉어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축축한 의식 속으로
실내등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곤 하였다.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 이해합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보죠.
이번엔, 진짜, 낙향입니다.
달걀 껍질을 벗기다가 손끝을 다친 듯
사내는 잠시 말이 없다.
조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죠. 서울 생활이란
내 삶에 있어서 하찮은 문장 위에 찍힌
방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조치원도 꽤 큰 도회지 아닙니까?
서울은 내 등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방 사람들이 더욱 난폭한 것은 당연하죠.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 나무들.
한때 새들을 날려보냈던 기억의 가지들을 위하여
어느 계절까지 힘겹게 손을 들고 있는가.
간이역에서 속도를 늦추는 열차의 작은 진동에도
소스라쳐 깨어나는 사람들. 소치품마냥 펼쳐보이는
의심 많은 눈빛이 다시 감기고
좀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발 밑에는 몹쓸 꿈들이 빵봉지 몇 개로 뒹굴곤 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주니까요. 덕분에 저는
도둑질 말고는 다 해보았답니다.
조치원까지 사내는 말이 없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귀향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나의 졸음은 질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
설령 사내를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한들 어쩌랴, 누구에게나 겨울을 위하여
한 개쯤의 외투는 갖고 있는 것.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견고한 지퍼의 모습으로
그의 입은 가지런한 이빨을 단 한번 열어보인다.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사내가
마주 걸어오던 몇몇 청년들과 부딪힌다.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렇듯이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조치원이라 쓴 네온 간판 밑을 사내가 통과하고 있다.
나는 그때 크고 검은 한 마리 새를 본다. 틀림없이
사내는 땅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0시.
눈이 내린다.

《조치원역》 오철수

모든 사랑은 멀리서 오고
가장 가까이서 멀어져 가나니 거기
조치원 역 이다
만나기 위해 갔던 곳
떠나기 위해 다시 있던 곳
역광장 시계탑 위로 제비꽃빛 같은 시간이 머물 때면
그대 저 만큼서 조금씩 커져 내게로 왔던가
아는가, 꽃불로 타오르던 사랑
하지만 싣고 가는 기차에겐 경유지만 있는 것
멈춰 선 곳에 이별도 있어 거기
사랑은 지고 조치원 역 있다
오늘 문득 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아득한 이름이여! 거기쯤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사내 서성인다, 눈부신
그 자리
가버린 시간도 있었으니
오는 추억도 있어
새잎 나는 버드나무처럼 밝고 선한 여인
늙지도 않는 거기 조치원 역

《신흥리 큰샘》 성배순

할머니는 말씀하셨지.
열여섯 나이에 시집을 왔단다.
조치원 큰말이라 부르던 새터였단다.
동네에는 야트막한 안산이 있었고
산자락 끝에 샘이 하나 있었지.
그 샘을 큰샘이라 불렀단다.

매운 시집살이에 친정엄마가 눈에 밟혀
아침밥을 짓다 말고, 슬리퍼 신은 채로
새터길 달음박질했단다.

문득 백관 길로 가다 주변을 보니
여기도 복숭아밭, 저기도 복숭아밭
연분홍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
상촌 길로 가도 복숭아꽃, 승적골로 가도 복숭아꽃.
창고개, 뜸옥골, 청거리로 가도 복숭아꽃.
봉산리 내칭이로 가도 복숭아꽃 천지였단다.
아홉 거리 어디를 가도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었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구경을 했단다.
장등 고개길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저 멀리 청주 친정집이 보였단다.
그 순간 왜 시부모님이 생각났는지.
큰 샘물로 만든 두부 맛이 떠올랐는지.
부리나케 큰배미 논둑길을 달렸단다.

안산에는 까만 눈 작은 뱁새들이
비비배배 포릉포릉 날아다녔지.
노오란 나비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카시꽃 향기를 지나쳤단다.
으름덩굴 암꽃 수꽃은 넓죽하고 길쭉하고
애기똥풀 앙증맞게 피어 있는 길을
온몸이 흠뻑 젖도록 뛰어왔단다.

아침상을 물린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큰샘으로 가셨지.
시원한 샘물 한 바가지 퍼주시며
이 물맛을 잊을 수 있더냐고
아카시 줄기 잎을 떼더니 어린 며느리
긴 머리 풀고 곱슬파마를 해주셨지.

신흥리 사람, 침산리 사람 식수며 빨래까지
펑펑 써도 마르지 않던 샘.
뱁새들도 황금 날개깃을 적시고 가던 샘.
물이 부드러워 비누가 필요 없던 샘.

목욕하면 피부병도 씻은 듯이 낫던 샘.
두부를 만들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샘.
국수를 부드럽게 호르록 먹게 하던 샘.
낮에는 남자들이 등목하고
밤에는 여자들이 목욕하던 곳.
둥둥둥 북을 치고 닐리리 피리를 불며
나라 사람 동네 사람 무사태평하라고
칠월칠석날 샘제를 지내던 곳.
청소하려고 물을 다 퍼내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붕어며 송사리가 바글바글 넘치던 곳.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서
고무장갑이 필요 없던 샘.
지금은 땅속에 잠들어 있는 샘.
그 샘 다시 터지기를
죽기 전에 그 물맛 볼 수 있기를
할머니는 두 손 모아 빌으셨지.
신흥리 큰샘 물맛은 천상의 맛이라고.

《오봉산 타령》 성배순

양손을 활짝 펴고 앉아 용트림하는
봉산동 자단향나무 푸른 향이 온 마을에 퍼진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워 나무를 심고
아버지의 선행을, 효행을 떠올렸다는 내력을 듣는다.
강화 최씨 유물유적 이야기를 들으며 산을 오른다.
두루봉 자락 커다란 구멍은
장군이 용출한 장군터.
일제에 의해 바위는 깨졌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
장군은 한 아름의 나무도 가볍게 뽑았단다.
한 번 뛰어 오르면 내창천 바닥에 닿았단다.
그 발자국은 1척 이상 패였단다.
두 번째 뛰어오르면 청주 팔봉산까지 갔다 왔단다.

3.1운동 당시 오봉산에 봉화를 피운
봉산리 애국지사들의 이야기가 무르익는다.
중턱 약수터에는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고
마을사람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무사태평을 기도했지.
오봉산 봉우리마다 흔들흔들 백도라지.
산다락 계곡의 누가 쏘가리.

영험한 기운 먹고 임금남 수랏상에 올라갔지.
정상봉, 우각봉, 성주봉, 두루봉, 수형봉.
다섯 봉우리 소나무와 잣나무 초록 사이
동시에 태양이 뜬다, 만월이 차오른다.
봉황새, 풍년새 온갖 잡새가 날아들면
이곳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전설.
그 나라는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이야기.
온 도시로 퍼져 나간다.

《반곡리 이장》 김상우

배가 고파야 좋은 시가 나온다고 이장이 말했다
노을을 쳐다보다가 배가 고파
밤 대신 막걸리를 마셨다

찔레꽃이 날리던 봄날
트럭에 아내와 아이를 싣고 햄버거를 팔러 다녔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다
시를 쓸 겨를이 없었다

겨울바람이 홍도동 낮은 양철대문을 두드리던 한낮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다
새벽 찬물로 머리를 감고
시장 한쪽에서 쪽잠을 잤다
잠이 모자라 시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배가 고파야 좋은 시를 쓴다고 이장이 말했다
바닥에 깔린 막걸리가 아끄워 물을 타서 다 마셨다

《대평리에서
-유미에게》 김상우

강에 간다
흐르는 것은 가볍고
살아 있는 것은 저렇게 흐른다

오래도록 홀로 남아 있던 당신
이 대평리에서 네 아픔의 깊이보다
더 깊고 넉넉한 사랑을 만난다

저 강에 우리가 있고 모든 것은 흘러갈 때
비로소 온전한 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을

남은 그리움을 씻으며
이제 당신도 금나 저 물결로 떠나야 한다

온몸을 적시고도
뼈 하나 상하지 않는 물로 흐를 때

어둠을 덮고 넉넉한 사랑으로 다시 서는 대평리
살아 있는 것은 늘 저렇게 흐른다.

《그래, 운주산》 장석춘

어제 운주산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줬다
구름을 벗 삼아 오른 고유문에서 내려다보니
청송리 숯골이 빤히 얼굴을 내밀었다

아! 운주산

산성 외곽 길엔 진달래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래, 화전놀이를 하자
정다운 사람들끼리 사랑놀이를 하자
아니 놀면, 늙어가는 게 서러우니까.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324-0 93350